

“스스로 배우는 풀뿌리 여성주의”

풀뿌리 여성조직 사례 연구 및 활동가 교류 심포지엄

사후 자료집

일시_ 2013년 10월 18일(금) 오전10시

장소_ 전교조 부산지부 강당

주최_ 풀뿌리여성센터 바람

후원_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목차>

1. 프로그램 순서	2
2. 사례연구를 공유하기에 앞서	3
3. 3개 지역 풀뿌리 여성조직 활동사례 연구	4
4. 풀뿌리 여성조직 사례 인터뷰 요약 정리본	
1) 부산 연제여성회	21
2) 울산 울주군 구영여성회	41
3) 창원 명곡여성회, 사파대방여성회	72
5. 풀뿌리여성주의 워크샵 토론내용 정리본	102

스스로 배우는 풀뿌리 여성주의

- 풀뿌리 여성조직 사례 연구 및 활동가 교류 심포지엄 -

§ 일시 및 장소 : 2013년 10월 18일(금) 오전10시 / 전교조 부산지부 강당

시간	프로그램
10~12시	1부 : 부산-울산-창원 풀뿌리 여성조직 사례 심포지엄
	1) 사업취지, 풀뿌리여성주의 워크샵 요약 보고
	2) 사례 발표
	3) 사례연구 결과 발표
	4) 각 지역별 토론자 피드백 (사례연구 결과에 대해 자기 지역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견 발표)
	5) 전체 토론(간략)
12시~1시	점심
1~3시	2부 : 풀뿌리 여성활동가 교류 워크샵 : 주제별 모둠 토론을 통해 심화 및 상호배움
	풀뿌리 여성주의
	활동가 성장
	풀뿌리 여성정치
	모둠별 토론내용 공유 및 마무리

본 사례연구를 공유하기에 앞서...

1. 사례 정리 방식

1-1. 본 사례 자료는, 3개 지역에서 여성들을 조직하고 있는 활동가들의 인터뷰에 근거하여 정리되었습니다. 부산여성회, 울산여성회, 창원여성회의 모든 사례를 정리하는 것보다 각 지역 중에서도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작은 지역을 선정해 사례를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산은 연제여성회, 울산은 구영여성회, 창원은 사파대방여성회 및 명곡여성회를 정하였습니다.

1-2. 활동가들의 인터뷰 내용에 토대하여 생동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인터뷰 형식의 글쓰기로 정리하였음을 밝혀둡니다. 실제로 훨씬 더 많은 시간 동안 더 많은 내용을 담은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나, 본 자료집에 실은 '인터뷰 정리본'은 주제와 내용을 압축하여 '인터뷰 형식으로 재구성하여 쓴 글'입니다.

아래 인터뷰 정리본 내용편집에 대한 책임은 편집자인 '풀뿌리여성센터 바람'에 있음을 밝힙니다.

2. 각 동별 여성회에 대한 간략한 소개자료를 각 인터뷰 정리본 앞에 실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5/16에 진행한 <풀뿌리 여성주의 워크숍> 토론내용은 개조식으로 정리하였으며, 10/18에 진행한 <활동가 교류 심포지엄> 모둠별 토론 서기록 역시 주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담아내지는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4. 본 자료집은 풀뿌리 여성활동가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은 자료이므로, 이후에도 소중하게 다루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따라서 본 자료집의 내용을 인용하거나 참고할 시에는 사전에 풀뿌리여성센터 바람으로 반드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풀뿌리여성센터 바람 070-7527-3800, grasswomen@hanmail.net

3개 지역 풀뿌리여성조직 활동 사례 연구

풀뿌리여성센터 바람

풀뿌리여성센터 바람에서는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부산, 울산, 경남의 3개 풀뿌리여성조직의 활동 사례 연구를 통해 풀뿌리여성운동이 당면하여 부딪히는 고민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전망을 열어가는데 보탬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3개 지역의 활동은 다양한 측면에서 풍부한 내용을 갖고 있으나, 이번 사례 연구는 3가지 주제- 여성주의, 활동가성장, 정치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인터뷰와 분석은 박영미 대표와 조이현임 사무국장, 이정은 운영위원, 김현숙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사례연구 기획팀에서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풀뿌리여성주의 워크숍을 통해 고민을 보다 심화했습니다. 전문 연구가가 아닌데다 시간도 부족하여 활동 틈틈이 모여 인터뷰하고 정리하고 분석하여 연구의 깊이가 얇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어제와 오늘도 풀뿌리여성운동의 활동가로서 살아온 분들이기 때문에 현장과 가장 밀착된 연구라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를 시작으로 하여 많은 현장활동가들과 연구가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고민과 지혜를 모아주어 현장의 활동가들에게 도움이 되는 훌륭한 연구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I. 풀뿌리 여성주의

1. 풀뿌리여성운동의 현장에는 여성주의에 대한 혼란스러움이 존재한다.

인터뷰에 참여한 활동가들 대부분은 자신이 여성운동, 특히 풀뿌리여성운동을 하고 있다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졌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성주의에 대해서는 자기 견해를 뚜렷하게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부터 여성운동 조직의 활동가로서 여성주의를 잘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당당하지 못하거나, 여성운동이라고 하면 되지, 꼭 여성주의라는 말을 사용해야 하나고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까지 다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풀뿌리여성운동을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여성주의에 대해 소극적이고 자신없는 입장과 태도를 가짐으로써 풀뿌리여성운동을 힘있게 전개해나간데도 어려움을 겪고, 진보적 사회운동의 활동가들과 대변형 여성운동단체의 활동가들 양쪽에서 치이는 괴로움을 겪고 있었습니다.¹⁾

1) 여성주의는 뭘까요?

여성주의는 영어 페미니즘(feminism)을 여성운동에서 번역한 말입니다. 국어사전에는 “여성의 사회, 정

1) “실제 여성의 삶을 이해한다는 이런 측면보다, 여성이 갖고 있는 어려움만 하려고 하는게 강한거죠. ...(중략)... 이걸 여성 스스로가 해결을 하지만 사회 진보운동과 함께 하지 않으면 실제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도 있을 건데 ...(중략)... 게다가 그들을 주체로 세워서 그 운동을 하게라도 해야되는데 그렇지 못 하고, 자꾸 거기만 딱 빠져있는 듯한 느낌.” (강영희) / 인터뷰 정리본 참고 (본 자료집 76쪽)

“저는 남들이 얘기하는 여성주의라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다양하고 또 여성주의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도 각 단체마다 다 다른 거 같아요. ...(중략)... 같은 여성운동 하는 단체가 우리 단체에 대해서 느그가 무슨 여성운동 하는거냐, ...(중략)...그런 관점 잘못됐다고 봐요. 자기가 하는 거는 다 옳고, 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서영옥) / 인터뷰 정리본 참고 (본 자료집 85쪽)

치, 법률상의 권리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경향이나 태도”라 하고, 브리태니커 사전에는 ‘남녀는 평등하며 본질적으로 가치가 동등하다는 이념’이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성운동을 해나가는 기초 이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남성들과 다르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여성들 내에서도 계급, 인종, 민족, 연령, 성적지향, 가치 등등 많은 점에서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여성운동을 한다고 해도 ‘남녀는 평등하며 본질적으로 가치가 동등하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어떤 여성들의 입장에서 여성억압의 원인과 주된 해방의 방법을 보는지, 어떤 세력들과 협력하며 연대할 것인지에서는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운동과 여성주의는 다양하게 존재해 왔습니다. 자유주의 여성운동과 자유주의 여성주의, 맑스주의 여성운동과 맑스주의적 여성주의, 급진적 여성운동과 급진적 여성주의, 레즈비언 여성운동과 레즈비언 여성주의, 사회민주주의적 여성운동과 사회민주주의 여성주의, 생태여성운동과 생태여성주의가 존재해왔고, 탈근대적 여성주의, 탈식민주의적 여성주의, 무정부주의 여성주의 등에도 그에 맞는 여성운동의 실천이 있어왔습니다.

한국사회 성불평등 역시 모든 여성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고 계층 등에 따라 불균등하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까지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함께 눈물 흘리며, 함께 느끼고 함께 다짐하며, 함께 손잡을 수 있었습니다. 여성운동도 ‘여성해방’, ‘남녀평등’ 한 마디로 뭉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IMF이후 여성들 내부의 차이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 민주화와 남녀평등(양성평등-성평등으로 표현도 더 깊어졌습니다)의 확산은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여성의 이름으로’ 승승장구하는 여성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는 일자리에서 쫓기고 싸구려 일자리로 내몰리는 여성들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들은 현실에서 남녀의 차이도 느끼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여성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은 아주 작아졌습니다. 나와 같은 비정규직 남성, 나와 같은 남성 청년 실업자, 나와 같은 처지로 사는 내 남편에게 더 큰 공감대를 느낍니다.

이런 점에서 여성운동도 똑같은 지향을 갖고 똑같은 이념을 갖기 힘듭니다. ‘남녀는 평등하며 본질적으로 가치가 동등한데 어떻게 현실에서 구현할 것이냐?’ 하는 점에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990년대 중반 이전에는 여성주의라는 말없이 여성운동만으로도 여성운동을 잘했습니다. 여성주의에 대한 학습이 시작된 지 몇 년이 지나고도 여성주의라는 말을 몰라도 여성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오면서 여성운동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는게 여성운동이냐? 여성주의 운동이 맞냐?’고 따지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여성운동은 여성주의 운동이어야 하고, 여성주의는 이런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하는 게 여성운동이려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여성주의 운동이 되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여성주의를 공부하지만 여성주의는 너무 어렵고 나의 현실에 너무 안 맞고 불편하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어려워야 여성주의라 합니다. 불편해야 여성주의라 합니다. 여성주의는 부담감을 안겨주고(ex. “나도 이렇게 어려운데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하지?”), 죄책감을 안겨주고(ex. “여성운동의 활동가인데 여성주의를 제대로 몰라서...”), 자신감을 떨어뜨립니다.

달리 보면 “내가 하는 여성운동이 여성주의 운동이 맞냐?”하는 것은 단지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여성운동과 내가 하는 여성운동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맞고 내가 틀렸다’하는 논법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진보적 여성운동은 보수적 여성운동에 대해 “저건 여성운동이 아니야!”, “진짜 여성운동은 바로 이것, 우리가 하는거야!” 라는 방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여성주의를 주창하는 여성운동가들이 옳고, 그들이 말하는 여성주의가 어렵고 불편한 점도 느끼는 여성운동가들이 틀려

서 배워가야 하는게 아닙니다. 달라지는 여성들의 처지에서 여성운동가들이 어느 여성들 쪽으로 서는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 것이 아닐까요?

그런 점에서 풀뿌리여성운동가들은 ‘내가 여성주의를 잘 아나? 모르나?’가 아니라, ‘나는 어떤 여성들의 입장에서 어떤 여성운동을 지향하며 그것은 어떤 입장과 관점을 요구하는가?’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여성주의라 생각합니다.

2) 풀뿌리여성운동이 기초하고 있는 여성주의는?

풀뿌리여성운동가들은 어떤 여성주의를 가지고 있을까?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 삶과 사회의 주인으로 살아가는데 나서는 여성문제, 사회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해나가는 것이 풀뿌리 여성주의이다” (이은정)

“성평등의 문제를 포함하여 사회에서 여성들의 지위, 역할을 찾고 사회활동에 주체로 서는 것이 여성주의라고 말하는 형영이를 보며 저도 풀뿌리여성운동의 의미를 다시 알게 됐죠.” (이정은)

“여성운동이라고 하면, 여성들과 함께 여성의 자주적 삶이랄까, 어떤 지향점을 향해 가는거잖아요. 다양할 수 있지만. 여성이 자신의 자주성이 실현되는 세상으로 가는 거잖아요.” (강귀전)

“저는 끊임없이 주체적인 삶을 살고 싶어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제대로 안됐거든요.

여성회에서는 그걸 꼬집어내주고 그걸 펼쳐줄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는구나”

“그 전에는 어떤 주어진 틀 속에서 내가 부분적인 걸 변화를 시도했다하면, 여기에선 아무 것도 없는 것에서 끊임없이 내가 만들어가면서 변화를 일궈냈다는 거지. 시작, 출발점에서부터 다른 거 같애요.” (김연경)

“여성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일자리, 노동, 성폭력, 가정폭력을 비롯해 여성으로서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차별과 문제들을 여성 스스로가 주체로 나서서 같이 해결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그 결과로 여성들의 삶이 바뀌고 사회 구조가 바뀌어야 해요” (강영희)

“여성들이 스스로 움직여서 바뀌내고 변화시켜낸다는 것” (박정미)

“여성이 주체가 돼 가지고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거죠.” (서영옥)

노동, 폭력, 차별 등 일상의 삶 속에서 여성문제를 안고 사는 평범한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살고자하는 마음을 갖고

스스로 나서서 힘을 모으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면서

자신의 삶을 둘러싼 사회를 변화시키고

자신의 삶과 사회의 주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지향을 보여줍니다.

이 말들은 우리가 해온 풀뿌리여성운동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풀뿌리는 운동이나 조직, 집단의 근본이 되는 일반대중들, 특별한 권력이나 지위를 갖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을 의미한다. 여성운동에서의 풀뿌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여성문제를 안고 사는 평범한 다수 여성들이다.”

“풀뿌리여성운동은 성불평등을 비롯하여 사람의 사람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과 폭력, 소외와 억압이 없는 사회, 여성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여 자기 삶과 나라와 사회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목적으로 한다.”

“여성운동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힘은 풀뿌리여성들의 조직된 힘과 실천활동에 있다.”²⁾

이런 점에서 풀뿌리여성운동을 하는 우리의 여성주의는 ‘풀뿌리여성주의’라 부를 수 있겠습니다.

풀뿌리여성주의는

- “여성들이 자기 삶의 주인, 사회의 주인, 세상의 주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지향
- 여성 자신의 눈으로 삶과 세상을 읽고, 여성들의 활동과 힘으로 자기의 삶과 지역사회,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관점과 태도
- 성불평등을 포함하여 여성들이 주인답게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사회의식과 구조를 없애고자 하는 의지와 결심이다.”

주형영, 최해영, 배혜옥, 김연경, 박정미, 서영옥 등의 여성활동가들의 인터뷰 사례는, 사회운동의 경험이 전혀 없던 평범한 여성들이 풀뿌리여성운동에 참여하면서 지역사회변화의 주체가 되고 자기 삶의 주인으로 자각하고 성장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변화를 자각하고 있으며 자신이 변화하듯이 다른 여성들도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제의 아빠모임 사례는, 여성들이 가족인 남성들을 사회적 주체로서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각성하고 변화하도록 이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³⁾.

다른 사람들은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살아가는데, 여성들의 요구에 맞춰 지역사회를 변화시켜가는 풀뿌리여성운동은 참여하는 여성들 뿐 아니라, 가족들과 지역사회의 다른 주민들에게도 여성들이 변화의 주체로서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게 했습니다.⁴⁾ 이것은 성차별적인 의식을 변화시키는데 큰 기여를

2) 이상 한국여성단체연합 지역여성운동센터, 「여성조직운동론(2008)」 외 기타 발간자료

3) “아빠들끼리 좋은아빠모임을 만든거죠...(중략)... 애들 돌보고 키우는 일이 엄마들의 몫이었는데, 아빠들이 이 주제로 얘기 나누게 된거죠. 아빠들도 아이들 이야기, 가족 이야기로 수다 떠는 것을 즐기고 뿌듯해 하더군요.”
“요즘은 아빠들이 자신의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남성으로 이 사회를 살아가는 어려움, 자기 정체성,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는 거죠...(중략)... 지역에서 아이를 함께 키우는 활동을 같이 하지만, 가정에서는 아직 많은 부분이 엄마들에게 맡겨져 있어요. 물론 예전에 비해서는 가사와 육아에 아빠들이 많이 참여해요. ...(중략)... 아빠들이 남편으로 살기, 아빠로 살기 등 남성의 문제를 이야기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남성과 여성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독립된 사람으로 서는 과정라고 할까요.” (이정은) / 인터뷰 정리본 참고 (본 자료집 26쪽)

4) “애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어요...(중략)... 애도 엄마가 돈은 안 벌지만 활동하는 사람인거지, 가정과 아이들만을 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죠.”
“내가 이렇게 활동함으로써 갈수록 애들은 또 자기 아빠랑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빠가 생전 안 하던 설거지를 하고 집안일을 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애는 엄마랑 아빠의 역할을 구분짓지 않고, 엄마가 있으면 엄마가 하는 거고, 아빠가 있으면 아빠가 하는 걸로 생각하고.” (서영옥) / 인터뷰 정리본 참고 (본 자료집 87~88쪽)

하는 겁니다.

여성들은 이런 변화의 경험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간다면 언젠가는 풀뿌리여성운동의 목표로 모두가 주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하며 그에 헌신합니다.

2. 풀뿌리여성주의와 '여성들의 요구로부터 시작한다'

풀뿌리여성운동은 평범한 여성들 자신의 요구로부터 시작하며, 여성들 자신의 조직된 힘과 활동으로 진행한다라는 것을 원칙의 수준에서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을에서 만나는 평범한 여성들의 요구는 엄마로서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다는 요구, 그러지 못한데서 오는 죄책감과 걱정이 많습니다. 엄마학교, 마을어린이도서관, 지역아동센터, 품앗이 공부방, 생활협동조합, 공동육아협동조합 등 풀뿌리여성운동의 다양한 활동 내용은 이런 요구에 기초해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구들은 '여성은 가정 내 역할, 남성은 사회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나온 것이며 위의 활동들은 성역할을 강화시킨다고 여성주의의 이름으로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풀뿌리여성운동에 참여하는 여성들이 성평등의제보다 다른 사회적 의제에 더 관심이 높다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한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조직화나 밀양송전탑 투쟁의 할머니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안에서 여성들도 소위 여성주의적 의제(성평등의제)보다 다른 사회적 의제에 더 관심이 높고 요구가 높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000년대 중반 이후로 여성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굵직한 여성주의 의제는 없어지고 끝없이 터지는 지역의 현안들은 여성들의 요구에서 여성주의 의제를 만들어 낼 여유를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1) 출발은 여성들의 현실에서, 지향은 높이

여성들의 요구로부터 시작한다는 말은 여성들의 현실에서 출발한다는 말입니다. 여성들의 현실이 성역할에 매여있으니 여성들의 요구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성들의 현실에서 벗어나는 순간 여성운동은 땅에 발을 딛지 못한 현실성 없는 운동이 될 것이며, 여성들 스스로의 운동이 아닌 계몽활동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또한 여성들의 가정 내 역할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돌봄과 가사노동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나 삶의 기본 활동이며, 이것을 잘 수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것은 먹고사는 생활의 기본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에서 나오듯이 그것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가냐를 중요하게 봐야지 그것을 다루나 안다루냐를 문제삼아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연제여성회의 전신인 '토곶좋은엄마모임'은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 사람들부터 좋은 엄마가 되기 너무 힘겨운 사람들까지... 어쨌든 좋은 엄마 역할을 매개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놀토'에 대응해 아이들과 함께 놀고 즐거운 체험활동을 경험하게 하면서 동시에 엄마들만의 자리를 만들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고 여성으로서 자신을 찾아가는 경험 또한 만들었습니다. 더 나아가 엄

마만 아니라 아빠들도 아이들을 돌보고 키우는 일에 동참시켰고, 내 아이만 아니라 우리 마을의 아이들을 키우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아이들을 모두 잘 키우고자 교육네트워크도 만드는 활동으로 발전했습니다. **사적인 아이 잘 키우는 문제가 공적인 우리 사회의 교육문제를 해결하는데로 발전한 것입니다.**

창원지역도 처음에는 엄마역할을 잘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엄마학교를 했지만 지금은 아이를 잘 키우고 아이가 잘 자란다는 것이 무엇인지? 현재의 교육이 그러한지? 어떤 교육내용과 시스템이 필요한지를 고민하는 내용으로 변화를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역시 출발점과 지향점을 구분해서 생각하는 활동가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변화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창원여성회의 이 고민은 공적 제도로서 우리 사회 교육이 안고 있는 첨예한 문제입니다.**

구영여성회의 경우 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의 요구에서 그림책읽기를 하고 거기서 마을도서관을 만들고, 마을도서관들끼리 힘을 모아 ‘울주군작은도서관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도서관협의회는 공동으로 사서 교육을 하고 지원 조례를 만드는 등 공적인 활동을 해왔습니다.** “걸어서 5분안에 도서관”은 우리가 부러워하는 북국 복지국가의 대표적 상징이라 할 수 있는데, 구영여성회 같은 활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진다면 우리사회의 제도와 인프라도 그렇게 갖춰질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자신들이 개별적으로 부딪히는 요구-좋은 엄마 노릇하기 등-에서 시작했고, 그 요구와 필요를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했기에 이런 발전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풀뿌리여성운동의 목표를 명확하게 갖고 있는 여성활동가가 있었기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역할을 해체해가는 모범사례도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부장적으로 고정된 성역할을 해체하겠다는 지향점을 명확히 두고, 그 방향으로 일상적인 활동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활동가들은 스스로 풀뿌리여성운동을 하고 있다고 자부할지 언정, 회원들이나 우리의 대중사업에 참여해본 지역 주민들이 그런 방향에서 어떻게 인식과 생활이 변화하고 있는지는 꾸준히 점검되지 않는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자신이 여성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여성의식이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주류의 시선으로 가부장적인 여성의 역할이나 성차별의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회가 단순히 열심히 활동한다고 해서, 이런 의식이 저절로 변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회원들과 지역주민들이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인된 입장에서 실천에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크고 작은 기획들이 꾸준히 일어나야 합니다.

이와 같이, 현실의 여성들의 요구에서 출발하되 풀뿌리여성운동의 목표로 방향을 명확히 잡고 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2) 풀뿌리여성운동의 의제를 넓게 보자.

풀뿌리여성센터 바람에서는, 풀뿌리 여성활동가 교육에서 이런 조사를 많이 시킵니다. 자신과 주변의 여성 두 명에게 ‘지금 자신의 생활을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어떤 문제인지, 살아오면서 어려웠던 문제들은 무엇이었는지?’ ‘앞으로 자신이 바라는 생활의 요구들은 무엇인지?’를 물어서 답변을 받아오게 합니다.

모두 답변을 발표하여 칠판에 죽 붙이고 ‘여성이 아니라면 겪지 않았을 문제’와 ‘남녀 상관없는 문제’ 둘로 나누어 보게 합니다. 그러면 여성들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들은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문제도 있고, 남녀 상관없이 겪는 문제가 있고, 여성들이 더 심하게 겪는 문제도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폭력과 성형, 다이어트, 낙태, 입양 등이 첫째라면, 둘째에 해당하는 것은 교육문제, 환경문제, 고용문제, 주택문제, 소통과 갈등의 문제, 건강문제, 인권침해와 비민주적 관행, 전쟁위협 문제, 안전문제 등으로 많습니다. 이 중 여성들에게 더 심하게 나타나는 문제들도 있는데 그것이 셋째죠.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여성이 아니라면 겪지 않을 문제와 요구만 다루는 것이 여성운동입니까? 어떤 여성주의자들에게는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풀뿌리여성운동에서는 풀뿌리여성주의자들에게는 이 모든 문제들이 여성들이 해결해나갈 문제이며 요구입니다. 풀뿌리여성운동은 여성들이 살아가는데 힘들게 하는 문제들, 여성들이 살아가면서 꼭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공동의 바람들을 여성들의 힘으로 해결해 나가는 운동이니까요.

여성들이라도 자신의 경험과 처지에 따라 세 가지 유형이 포괄하는 문제들 중에 어떤 것은 민감하고 어떤 것은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풀뿌리여성운동에 동참하는 여성들이 성평등의제보다 다른 사회적 문제-즉 둘째 유형과 연관된-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화와 여성운동은 성불평등의 문제를 많이 감소시켰습니다. IMF 이후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성별 차원보다 계급계층 차원에서 심각해졌고, 주체적으로 살려는 의식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자신과 가족, 이웃들의 삶을 어렵게 하는 사회적 문제들의 해결에 더 높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3) 성평등의제는 다른 의제와 결합되어 있다.

물론 우리가 '여성문제'라고 할 때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와 억압, 착취를 말합니다. '여성문제'가 없다면 여성운동이 독자적으로 존재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런데 사회의 민주화와 성평등정책의 확대로 독자적인 '여성문제'는 줄어들고 남녀 상관없는 문제들과 결합되어 있는 '여성문제'들의 비중이 큼니다. 가령 학교비정규직의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 즉 노동문제이지만 학교비정규직의 90% 이상이 여성이라는 점에서 여성문제가 숨어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학교비정규직 조직사업을 위해 학교급식조리사로 취직하신 분들 중에는 엄청난 노동강도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 조리사들의 임금과 대우는 같은 강도의 노동을 하는 남성들과 비교하면 아주 박합니다. 그 이유는 여성들이 집에서 하던 일이라 평가절하되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이 대다수인 마트노동자, 보육노동자들의 임금과 처우가 박한 것, 그것이 여성문제입니다. 밀양 송전탑 어르신들의 투쟁에서도 경찰은 할아버지가 아닌 할머니들을 어르고 달래며 투쟁에서 떼어내려고 한답니다. 여기에서도 '여성문제'가 결합되어 있을 것입니다.

성평등문제가 아닌 다른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공동의 실천을 벌일 때도 그 문제와 결합되어있는 여성문제, 성평등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의 원인, 해결방향, 실천활동 방법과 방식을 찾는데 꼭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여성으로서 자각하고 여성과 남성, 사람들 모두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지역사회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목적으로 분명하게 지향해야 합니다.

4) 생활상의 문제에서 의제화를 이뤄내는 역량을 키우자

인터뷰를 한 활동가 중에서 남편이 게임중독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풀뿌리여성운동에 동참하게된

중요한 계기는 “PC중독”에 대한 강좌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활동하는 사람들에게서 인정과 위로를 받으면서 남편 때문에 망가진 자존감을 회복하고 허한 마음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너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문제이며 사회구조를 변화시키는데 힘써야 하고, 내가 하는 작은 활동이 사회구조를 바꾸는데 큰 힘이 될거라”는 전망을 얻었습니다. 정보와 상담의 도움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진전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활동가는 다양한 활동을 하지만 자신에게 제일 큰 남편의 게임중독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개별적으로 해결하거나 견뎌야 하는 문제로 되고 있을 뿐입니다.

대부분의 풀뿌리여성운동단체들이 여성들의 생활상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데 그 폭이 넓지 않습니다. 남편의 게임중독 사례처럼 많지 않거나 은폐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해결할 사람들을 잘 모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편 우리가 만나는 30~40대 회원들과 지역 여성들 다수는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생활의 불안을 느끼는데도 이 문제를 공론화하여 풀뿌리여성운동의 의제로 만드는 일이 참 안됩니다. 40~50대 회원들이 개별적으로는 일상적으로 불안을 느끼는 건강문제 역시 공론화하여 풀뿌리여성운동의 의제로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십 수년을 눈만 뜨면 부동산문제와 전세대란으로 TV는 시끄럽고 웰빙으로 건강에 관심이 높은데도, 평범한 여성들이 안고 있는 생활의 요구와 필요로부터 출발한다는 풀뿌리여성운동조차 이 문제에 대한 공동의 해결노력이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 활동가들이 처음에는 지역의 여성들과 대화하면서 생활 속의 요구에서부터 출발하지만 회원들이 늘어나고 활동이 일정 규모로 커지면, 평범한 회원들이나 지역여성들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생활상의 공동 요구를 모아내는데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새로운 공동의 요구들을 발굴하지 못하게 됩니다.

- 회원들 및 지역여성들과 만남과 대화는 계속 하지만 기존의 활동의제나 다른 성공한 사례의 의제만 운동의 의제라 생각하고 다른 생활상의 요구에 주목을 하지 못합니다. 회원들도 자연히 활동가가 귀 기울이는 주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모임에 오면 집걱정이나 돈걱정, 건강걱정은 말하지 않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활동가 자신도 개별적 생활에서는 항상 걱정이지만 함께 모인 자리에서는 꺼내지 않습니다. 누군가 그런 어려움을 꺼내더라도 ‘어떡하나?’ ‘잘돼야 하는데!’ 수준으로 마무리됩니다.

-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의지를 만들어내지 않고 수다로만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의제화는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여성들을 모으고 조직화하여 그 힘으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실천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는 것입니다. 함께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지를 불러일으키고, 성공적인 실천활동 방법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학습, 교육, 탐방 등이 필요합니다. 수다 이후의 후속 작업이 없다면 의지가 모아지기는커녕 나아지는 것도 없는데 괜히 말한다고 헛 힘 쓸 필요없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문제를 풀지않고서는 세상이 변하고 그 세상을 내가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강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우리 회원들이, 지역의 여성들이 갖고 있는 생활상의 어려움을 파고 들며 사회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조직적 노력이 더 기울어졌으면 합니다. 장애인부모운동, 미혼모운동 등 새롭게 일어나는 운동 영역은 이런 노력의 결실들입니다.

5) 일하는 여성들의 요구에 귀기울이고 현장에서 조직화를 강화하자

“일하는 여성들과 함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점이 제일 고민이 많이 되죠.”(강귀전)

“현재 여성회 일하는 회원들이 여성회를 통해서 얻는 게 없는 거죠, 실제로.”(강영희)

“...(중략)...초창기부터 분명한 여성조직화의 방향을 일하는 여성들에 대한 조직화로 잡았었어. 절반 정도의 역량을 투여해야한다고 방향을 잡고, 고용평등센터부터 일하는 여성모임 만들고 굉장히 열심히 했더라구. 그러다가 지역으로 확 들어가면서 지역활동이 왕성해지고, 2005년, 2006년 정도부터 일하는 여성에 대한 사업이 점점 줄어들면서 거의 명맥이 없어지는 듯한 데까지 왔더라구. 분명히 이걸 정말 우리 사업의 오류이자 한계이다. 그걸 평가했었지. 현재 달라진 여성들의 조건을 봤을 때 더더욱 이 시대에 우리가 여성운동을 하면서 무엇이 필요한가. 일하는 여성 조직화로 다시 가야된다.”(이은정)

“지금은 10년전에 지역에서 거점만들고 사업만들고 터 닦고 하던 것과는,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애. 나는 지금의 조직 방향 자체를 예전에 했던 것처럼 지역 속으로 들어가는게 맞을까? 물론 그것도 있어야되겠지만.

예전처럼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그렇게 하는건, 조직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옛날처럼 사람을 남기고 성장시키는게 굉장히 힘들어. 정말 이 사람들은 여성회뿐만 아니라, 다방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이나 자기 풀, 인간관계와 조직들이 있어. 예전과는 달라. 옛날 여성회처럼 그냥 한 곳에서 와서 정기적으로 와서 같이 책 읽고 활동하고 애들 프로그램하면서 성장해나가는 식으로 정적으로 움직이지가 않아. 요즘에 전업주부들조차도 굉장히 동적으로 여기저기 막 움직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면에서 옛날 방식을 자꾸 하는게 맞을까.”(이은정)

2008년 풀뿌리여성대회에서, 기존의 여성운동단체와 마찬가지로 풀뿌리여성운동에서도 어느 정도 활동력을 갖게 된 회원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활동력이 떨어지거나 결합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당시 우리는 이 문제를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봐서는 안되고, 여성들이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바라보며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여성들의 경제활동의 문제를 제기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한(또는 참여하고자하는) 여성들의 조직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조직화계획을 짜고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들이 다양한 형태로 경제활동에 진출하고 있으며 초등보육교사, 학교비정규직, 가사서비스, 텔레마케터 등에서의 조직사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여성들의 조직화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것을 간파했지만, 여성운동의 중심적 활동으로 제기하는데 실패했습니다. 마트여성노동자들의 조직화, 학교비정규직여성노동자들의 조직화는 풀뿌리여성운동에서 제기되어 시작될 수도 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뼈아픈 성찰 지점입니다.

예를 들어, 명곡여성회의 회원들이 일하니까 활동에 참여 못한다 → 그럼 그들을 만나러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다 → 얘기를 나눈 것들이 쌓여서, 여성노동자로서 현장의 조건이 안풀리고는 지역에서 활동과 조직화가 제한적이다라는 결론이 난다 → 여성운동 쪽에서 전략적으로 여성노동현장으로 조직하라든지, 현장에서 조직화의 가능성을 타진함 → 조직화하자.

이렇게 갈 수 있는데, 풀뿌리여성운동에서 이런 방향이 안나온 것은, 우리가 일하는 여성들, 회원들을 그렇게 만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결과, 학교비정규직이나 마트의 여성노동자들이 조직되어도 노동운동의 역량만 되지, 여성운동 역량으로는 안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4)와 5)의 과제는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사례에서 보듯이 모두들 최선을 다했고 많은 변화와 성과들이 있지만, 우리 풀뿌리여성운동 역량이 그만큼 성장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문제가 이야기된다는 것은 이 일을 해야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며, 우리가 도전해볼 역량을 갖췄다는 의미도 됩니다. 새로운 과제에 우리 활동가들이 힘차게 도전해나갑시다.

II. 활동가의 성장

풀뿌리여성운동은 일상의 삶 속에서 여성문제를 안고 사는 평범한 다수 여성들이 여성운동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왔습니다. 평범한 여성들이 여성운동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조직화될 때만 가능합니다. 평범한 여성들을 여성운동의 주체로 조직화하기 위해서는 풀뿌리여성지도자와 조직가-즉 풀뿌리여성운동 활동가가 많이 발굴되고 육성되어야 합니다. 인터뷰를 한 활동가들의 주된 관심 역시 활동가들을 발굴하고 성장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여성운동에서 풀뿌리여성운동을 주창할 때도 가장 핵심적인 문제 중의 하나는 기존 여성운동 단체에 활동가가 재생산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성운동을 포함하여 시민운동에 활동가들을 꾸준히 유입시켜주던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출신의 활동가들이 들어오지 않게 되었고 여성운동은 자체로 활동가 수준의 재생산을 감당하는 곳이 적었습니다.

풀뿌리여성운동은 여성운동의 주체는 평범한 풀뿌리여성들임을 강조하고 기존의 활동가들을 지지하는 수준에 머물던 회원들을 풀뿌리여성운동의 활동가로 전환시켰습니다. 지난 7-8년간 풀뿌리여성운동은 크게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풀뿌리여성운동 단체들에 속하는 3개 단체도 풀뿌리여성운동에 접하기 전에는 여성단체 회원 경험도 없었던 여성들이 여성활동가로 성장하는데는 어려움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활동가들의 발굴과 성장이 끊임없이 이뤄질 때 풀뿌리여성운동은 지속성을 가질 수 있으니 활동가들의 성장은 풀뿌리여성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1. 풀뿌리여성운동의 활동가란?

활동가는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마음먹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풀뿌리여성운동의 활동가란 풀뿌리여성들을 조직화하고 그 조직된 힘으로 풀뿌리여성운동의 목표대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풀뿌리여성운동의 목표는 여성들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 지역과 세상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풀뿌리여성운동의 활동가로 성장한다는 것은 나와 같은 풀뿌리여성들이 더불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요구, 세상은 변한다는 믿음, 개별적으로는 힘이 없지만 약한 풀뿌리여성들이 뭉치고 조직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만들어낸다는 확신 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1) '더불어 함께 주인답게 살고 싶다'의 힘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고자하는 요구는 내적 동력을 만드는데 꼭 필요하지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산다는 것은 한편 '내 뜻대로, 내멋대로, 남이야 어찌든지'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 개개인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고자할 때 모두가 주인되는 세상으로 갈 수도 있지만, 서로가 자신이 주인되는 삶을 위해 경쟁하는 만인 대 만인의 경쟁이 이뤄지는 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성들 모두가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풀뿌리여성운동의 활동가들은 처음부터 이웃의, 직장의, 우리 지역의 여성들과 함께 더불어 주인되는 삶을 꿈꿀 때 내적 동력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고자 꿈꾸며 함께 뭔가를 변화시켜본 조직적 실천활동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의 씨앗이 됩니다. 인터뷰를 한 활동가들 대부분이 '힘든데도 계속 운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대해,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꿈꾸고 함께 활동하고 힘들 땐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흔들리지 않고 목표를 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함께 주인답게 살고 싶다'는 정신이 높은 사람을 잠재적 지도자와 예비 조직가로 발굴해야 하며, 교육훈련 과정에도 더불어 함께 한다는 정신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지향이 높은 사람들부터 발굴하고 육성한다.

인터뷰와 토론에서 풀뿌리여성운동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풀뿌리여성운동이 평범한 일반 여성들이 참여하는 활동이다 보니 사회활동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 운동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 등 평범한 사람을 여성활동가로 키우는 데서 어려움과 한계가 많은게 현실이다.” (10/18 활동가교류심포지엄 모둠토론에서)

“지역에서 여성조직을 계속 키워나가는데 있어서 세상을 향해서 높은 지향을 가지고 펼치고 싶은 사람을 한 두명 발굴하는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50명을 서비스 하면서 가는 것보다 1~2명을 확실히 조직화하여, 깃발꽃자고 할 때 할 수 있는 사람을 조직해야하는 것 아닌가. 양손에 쥐고 이것했다가 저것했다가 하는 것 같다. 이 두 개를 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클 것이다. 여러 사람들을 많이 참여시키는 경험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것 같다. 이제는 깊은 지향과 요구가 있는 1~2명을 발굴해서 더 높은 지향을 향해 가도록 하는 것이 더 큰 과제가 아닌가.” (10/18 활동가교류심포지엄 모둠토론에서)

“풀뿌리는 운동이나 조직, 집단의 근본이 되는 일반대중들, 특별한 권력이나 지위를 갖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성운동에서의 풀뿌리는 “특별한 권력이나 지위를 갖지 않고 일상의 삶 속에서 여성문제를 안고 사는 평범한 다수 여성들”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마을이나 직장에서 만나는 학생운동, 노동운동 등 다른 사회운동의 경험을 가진 여성들도 풀뿌리여성들입니다. 또한 풀뿌리여성운동이 많은 풀뿌리 여성들을 조직화함으로써 여성운동의 주체로 참가시키려는 것이지, 서비스의 대상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풀뿌리여성들을 조직화하기 위해서는, 풀뿌리여성들 속에 있으면서 공동의 요구를 절실하게 느끼고 더불어 함께 주체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절실한 마음을 가진 여성들을 지도자로 발굴해야 합니다. 또한 풀뿌리여성들이 자기문제를 자신들의 조직된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

고 잠재적 지도자를 발굴하고 그들의 활동과 조직화를 도와주는 풀뿌리여성조직가들을 발굴하고 육성해야 합니다.

그럼 풀뿌리여성지도자는 여성들 공동의 문제나 요구를 파악하고 모아가는 과정에서 발굴한다고 한다면 풀뿌리여성조직가는 어떤 방식으로 발굴할까요? 그건 바로 위에서 말한대로 지향이 높은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더불어 함께 주인으로 살고 싶다’, ‘더불어 함께 주인된 세상에 살고 싶고 그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지향이 높은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높은 지향을 가진 사람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외롭게 깃발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풀뿌리여성들이 더불어 함께 깃발을 세우고 조직을 만들도록 촉진하고 도와주는 조직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풀뿌리여성운동도 일반 사회운동과 마찬가지로 지향이 높은 사람들을 우선으로 조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토론에서 위와 같은 말이 나온다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사업에서 지향이 높고 성품이 훌륭한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고 발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을 더 많이 해야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방법을 실천한 후 우리의 경험을 정리하면 참 좋겠습니다.

2. 교육(학습)과 실천활동과 조직생활을 통한 체계적인 성장

3개 단체는 활동가로의 성장은 체계적인 교육(학습)과 실천활동과 조직생활을 통해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은 잘 짜여진 강좌나 훈련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아니라 만남과 대화, 함께 마음나누기와 세상읽기를 통해서도 이뤄짐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잘 교류하여 빈 부분을 채운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교육에서

① 초창기에 마음을 열게하고 친밀감을 갖게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중요함.

“자녀와의 대화법 교육을 하는데...(중략)... 바로 부모교육을 안하고, 인생곡선을 해서 자기 이야기를 했는데, ...(중략)...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 곡선을 가지고 정말 자기 이야기를 다 드러내서 이야기를 하니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구나, 전혀 그렇게 보일 것 같지 않던 사람들의 속 이야기도 같이 듣고 그러니까, 뭐랄까 친밀감 이런 것도 느껴지대요. 그 교육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거기 참여했던 사람들이나 그 장면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남으니까. 그리고 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랑 친해지는 것 같고, 교육 마치고 나면 항상 같이 밥 먹었거든요.” (주형영)

② 기존 활동가들과의 만남과 대화의 중요성

“나랑 사업했던 조직가가 멘토링을 잘 해주었어요. “이런건 이게 아닐까?” 등 얘기를 많이 나누고 생각거리를 늘 주고 피드백을 계속 해주었어요. 어떤 사회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주었죠.” (최해영)

③ 모임이나 회의마다 ‘마음나누기’를 하는 것이 효과적

“마음나누기 시간에 주로 자기의 이야기, 자기 생각들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왜 하고 있는지, 우리가 활동하는 의미도 얘기하고. 개인적인 시나 드라마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도, 얘기를 하다보면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활동과 결부해서 이 의미를 더 찾게 되는 얘기를 나누게 되더라고요.” (이정은)

‘마음나누기’는 친밀감과 따뜻한 정을 나누면서 더불어 함께 한다는 의미를 기분 좋게 인식시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④ 모임이나 회의마다 ‘이슈나누기’, ‘세상읽기’, ‘10분 토론’을 하는 것이 효과적

“이슈나누기는 정치의식을 갖고 정치와 세상에 관심갖도록 불러일으키기 위해, 한거였고. 이슈나누기는 본인들이 이슈를 준비해오기도 하고, 보통은 또 뭘 준비해야할지 모르겠다고 물어보기도 해. 그러면 그 시기별 역사적 사건과 관련해서 준비하기도 하고, 그때에 있는 이슈를 준비하기도 하고. 이걸 주로 새로운 이슈에 대해 몰랐던 것을 알게 되기도 하고,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벽을 깨고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거죠.” (이정은)

“소모임을 한 2시간 정도 하면, 앞에 30분은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찾아와서 몇 개씩 했어요. ...(중략)... 신문 같은건 회원들 중에 한사람이 역할을 맡아달라고 해서 일주일치 신문중에 몇 쪽지 뽑아오면 그걸 가지고 얘기도 좀 하고.”

“요즘에는 영상으로 하죠.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을 틀어주기도 하고. 하종강씨 강의 같은 것도 내용 좋거든요.”

“울주군 지부 안에 교육모임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미리 잡아놓고, 우리가 소모임에 못들어가더라도 틀어주자고 하고. 울산여성회 지부마다 교육모임 시스템이 돼있을거예요. 주로 사람에 대한 것, 성장시켜야할 사람과 그 사람에 대한 교육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고민하는 회의죠.” (강귀전)

짧은 프로그램이지만 언론에선 시끄러운데 우리와 뭘 상관이 있나 싶은 문제들이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좋은 방식입니다. 회원들끼리 세상(의 현안)을 보는 관점과 견해를 통일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슈나누기에서 생기는 궁금증과 의문을 모아 특강이나 학습으로 연결하면 더 좋을 것입니다.

⑤ 본부, 지부, 지회의 분담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 운영

“ <본부>에서는 지부장, 사무국장단교육을 통해 사회는 변화한다는 확신을 준다. 활동가모꼬지는 월 1회 진행하고 정세교육과 실천활동등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신입회원교육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회원활동을 3개월 이상 꾸준히 진행한 회원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지부>는 운영위와 월례회를 진행, 지부 리더교육과 지도력 교육을 한다.” (10/18 활동가교류심포지엄 모둠토론에서)

“ 핵심들은 여기서 월 1회 4~5시간 정도 교육과 정책토론, 사업토론을 진행한다. 별도의 스터디그룹(학습과 토론이 참 중요하다)을 운영한다.” (10/18 활동가교류심포지엄 모둠토론에서)

⑥ 덧붙임

- 모임 등에서 주도적으로 기획한 탐방프로그램이나, 멘토링 등도 좋은 효과가 있으니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다른 여성들의 삶과 문제, 운동을 이해하는 교육도 필요합니다. ex. 여성학교 등

2) 실천을 통한 성장

“뭔가 자신이 이곳에 와서 스스로 만들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기쁨을 느껴보는 것. 이를테면 무상급식 투쟁해서 초등 무상급식을 1년을 받아냈거든요. 그걸 함께 하는 과정에서 성과를 내고 느껴보는게 사람의 성장에서 정말 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육으로만 되는건 아니고, 저희는 황금똥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활동과 결부해서 역할을 주면서 같이 했었어요. 그 안에서 회원들이 역할과 활동 속에서 많이 커져갔던 것 같아요.” (강귀전)

“놀이터 실태조사를 했거든요. 샘플링을 해서, 직접 놀이터 다니면서 놀이기구가 낙후되었거나 위험한지, 모래를 깊이 파봤을 때 모래의 높이나 깊이, 땅속의 상태라든지. 외곽지역(동읍, 북면)까지 싹 다 돌아다니며 조사를 했거든요. 그렇게 조사해서 데이터를 등 담당 행정과에 넣어서(제안해서) 놀이시설이 변화되고 모래도 교체되고, 이런 변화들이 있을 때 참 재미있고, 나 하나가 아니라 뭔가를 같이 해서 좋은 뜻을 가지고 하면 뭔가를 이뤄낼 수 있겠다는 보람이 있었어요.” (박정미)

자신들의 요구를 스스로의 힘과 활동으로 실현하는 경험은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주체가 된다는 것, 함께 한다는 것, 변화한다는 것, 성장한다는 것이 뭔지를 몸으로 배우고 깨닫고 그 기분을 느끼는 것이므로 이후 지속적인 활동을 하게 하는 중요한 동력이 됩니다.

실천을 통한 성장의 효과를 높이려면

- 개별이 아니라 반드시 팀으로 활동에 참여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 왜 이 활동을 하는가? 목적과 의미를 충분히 공유해야 합니다.
- 실천활동의 경험을 통한 교육과 훈련이라는 관점을 반드시 견지합니다.
- 결과만 아니라 과정을 중시해야 합니다. 조직차원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활동가의 성장지점에 대한 목표를 갖고 실천활동의 과제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 거창하게 시작했다 흐지부지 끝내지 말고 평가와 성찰을 반드시 가집시다.
- 조직에서는 실천활동에서 행사에 참여하기, 활동팀원으로 참여하기, 팀장으로 활동하기, 활동팀을 조직하기, 전체 실천활동의 계획 짜고 역량배치하기 등등 단계적으로 역할을 높여가는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3) 조직 생활

“엄마학교를 경험했던 분들을 회원으로 조직하고, 사후로 한 개 소모임 정도에는 참여할 수 있도록 했었어요. 당시에 상근자 3명이 나눠서 모든 모임을 100%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이야기, 정치에 대한 이야기, 여성으로서의 자주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하고, 굉장히 알차게 진행하고, 한명 한명 챙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중략)... 어떻게든 동아리 활동을 하도록 했

쪼. 동아리 활동을 하는 회원들과 아닌 회원들 사이에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쪼. 만남의 횟수도 다르고, 성장과정이나 기회가 없기 때문에.” (강귀전)

“동여성회 발족하고 제일 신경쓰게 이 부분이었어요. 사업 크게 벌이는 것보다, 첫 번째는 역할을 주는 것, 그리고 그 역할을 받아안은 사람이 수행하면서 성장하는 과정. 역할로는 회장, 사무국장, 관장, 수서팀장(책 선정 및 구입 담당), 프로그램 기획팀장 이렇게 있쪼. 그 외에 자잘한 역할들은 있쪼. 도서관 총무도 있고, 3개월마다 도서관 자원봉사 점수올리는 역할도 있고, 도서관 자원봉사 시간표 짜고 정리하는 역할도 있고, 자잘하게 역할을 나누려고 무진장 애를 썼쪼. 역할을 가지고 여기에 오는 사람과, 그냥 오는 사람들은 다르더라구요.” (강귀전)

사례를 통한 방안을 정리하면

- 모든 회원을 조직생활단위에 참가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생활나누기, 회의, 평가와 성찰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 한 명 한 명을 챙기려 노력해야 합니다.
- 모든 사람들이 역할을 고루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Ⅲ. 풀뿌리 여성정치

1. 풀뿌리 활동의 주 무대가 마을이며 마을에서는 평균 3년에 두 번의 선거가 치러지다 보니 풀뿌리여성운동과 정치는 만나지 않을래야 만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을의 유관단체 회원들의 선거참여야 어찌되었건 시민단체와 풀뿌리단체 회원들의 선거 참여는 왠지 부담스럽고 해서는 단체의 성격에 안 맞다고 느끼는 회원들도 많습니다.

“탈정치적이고 비정치적이고, 그런데 어디있어?! 그건 말이 안되는거잖아. 섬에서 자기들끼리 사는 것도 아니고, 정치제도와 경제제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걸 거부하고 순수하고 고상하고, 우리끼리의 뭔가, 이렇게 하는건 말이 안되는거지.” (이은정)

“정치적 지향을 정확하게 하거나 정책활동을 하는 것은 해야할 것 같아요. 그게 안맞는건가요? 소외된 계층을 위한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는 한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김경자)

2. 현대 정치의 핵심은 민주주의입니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주의(DEMOCRACY)는 데모스(demos, 평민, 지역)와 크라티아(kratia, 권력을 잡다)의 합성어로, 왕정, 귀족정, 과두정과 달리 평민들이 권력을 잡고 스스로를 다스리는 평민정(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주인인 세상, 소수의 권력잡은 사람들만 주인인 세상을 대다수 평범한 여성들이 주인인 세상으로 만든다는 것은 평민정인 민주주의를 제대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여성운동은 나라의 주인인 민(民, 데모스demos)에 남성만 아니라 ‘여성’도 있다는 것을 기본 상식으로 만들어 온 사회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풀뿌리여성운동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성격을 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民, 평민)이 주인인 정치는 민(民, 데모스demos)이 권력을 잡아야만 가능합니다. 하늘이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군사력도 없고 돈도 없는 평민들이 권력을 가지는 방법은 다른 평민들과 더불어 함께 나라의 주인으로,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겠다는 주인의식과 평민들의 조직화된 힘에 의해 가능했습니다.

다. 현대의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풀뿌리여성운동은 나라의 풀뿌리인 여성들이 주인의식을 갖는 것, 여성들의 조직화를 추구합니다. 이런 점에서 **풀뿌리여성운동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가꾸는 운동입니다.**

3. 하지만 많은 풀뿌리 여성들은 내 생활과 정치와 별로 관련이 없다는 인식을 많이 갖고 있고, 한국사회에 만연한 정치에 대한 혐오와 정치활동에 대한 두려움과 편견으로 풀뿌리여성운동에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풀뿌리여성운동이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해서 정치조직이나 정당은 아닙니다.

풀뿌리여성운동 차원에서 어떻게 정치활동을 해 나갈 것인가? **풀뿌리여성정치활동의 좋은 방식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 생활과 밀접한 사안일 때는 편안한 거 같아요. 예를 들어 비정규직에 관련된 사안으로 동구 쪽에 파업을 하고 누가 분신을 했나 그랬어요. 제가 그 때는 잠도 거의 못자고 겨울이라 추웠는데도, 거긴 꼭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거라. ...(중략)... 내가 가서 잠깐이라도 앉고 가는 그 자리에 그 사람은 힘을 받을텐데...(중략)... 그럴 때는 되게 편안했던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렵지 않았어요. 직접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힘들거나 어렵지 않은데, 정말 큰 그림 속에서 내가 정부나 이런데 대해서 메아리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그 안에 내 공이나 힘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좀 신념을 더 키워야 되는 그런 과정인 거 같아요.” (배혜옥)

“엄마들이 처음에는 정치이야기에 두려움이 있어요. 정치와 무관한 순수 지역활동을 하기를 원해요. 하지만 교육, 돌봄, 안전, 가정경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정치적이진 않은 것이 없지요. 어째보면 모이면 매일 정치이야기를 하고 살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선거에도 관심이 많고 정책을 보는 눈도 많이 생겼어요.” (이정은)

“내가 만약에 전기세 오르는 것이 너무 불만이야, 그럼 그것도 사실 다 정치와 연관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전기세 올리면, 그놈의 XX 이런 식으로 불만만 터트리고 말 것을, 같이 꾸준히 얘기하면 이게 뭐가 문제인지 내 주변에 사회문제가 있을 때 핵심을 짚어내는 힘이 딱 생기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꾸준히 얘기해야된다고 생각해요.” (최해영)

사례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생활의 크고 작은 문제들과 정치가 어떻게 연관되었나를 일상적으로 이야기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슈나누기를 통해 나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 같은 사회의 정치현안이 어떻게 나의 생활과 관련되는지를 깨달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선거 시기에 자신의 절실한 생활적 요구와 정치가 어떻게 연관되는가를 참여식 교육방법으로 경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전에 책모임할 때 육아서를 주로 읽고 아이들 키우는데 고민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2007년 대선 때 제안을 하나 했었어요. 대선후보들이나 당의 교육 정책에 대해 역할을 서로 나눠서 찾아오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각자 인터넷을 보고 찾아온거예요. 그런데 정말 다른거예요. 이렇게 각 당의 정책을 비교해보면서 얘기하기가 좀 더 수월한거예요. 이렇게 정책 하나하나가 다르다, 어느 세력을 대변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한다, 특히 여성들이 이런 것에 눈을 떠야된다고 얘

기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한참 지나고난 뒤에도 얘기하더라구요. 너무 재미있었다고.” (강귀전)

내가 찍는 후보와 소속 당이 무슨 정책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과거에 어떻게 그 문제를 대했는지도 모르면서 묻지마 식으로 선거에 참여할 때는 선거권이 내 삶과 사회적 조건을 긍정적으로 만드는데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선택의 근거를 가지고, 내가 선택한 후보의 앞으로의 활동을 평가한다는 것은 나라의 주인인 민주시민으로서 책임성있는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독일은 민주시민교육에서 자신의 정치성향에 가까운 후보와 정당을 찾아주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합니다.

5. 마을에서 함께 활동했던 사람이 의원이 되는 경우 정치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안에 여성위원이 있는 걸 회원들이 보잖아요. 의원이 있는 마을이 바뀌는 걸 보면서, 왜 여성위원들이 있어야 되는지, 또 우리가 교육하는 이런 부분을 가장 빨리 바꿀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는 게 정치라는 걸 알게되는거죠. 정치는 말 그대로 생활과 떨어져있는게 아닌거죠.

예를 들어, 똑같은 여성회 활동을 해도 우리가 한 5년 동안 하나의 사안을 바꾸기 위해서 집회하고 서명하고 이렇게 해도 바뀌지 않던게, 의원 한 분이 딱 배출이 되면서 그게 6개월 안에 바뀐다든지, 바꿀 수 있다든지 이게 힘이더라구요. 그걸 회원들이 보는 거죠. ‘아! 여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려면 여성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 인지하는 거고. 그렇게 바뀌는 거 같아요.”(서영옥)

6. 구영과 천상의 사례처럼 여성들의 생활적 요구를 정치적 요구로 발전시키는 활동이 일상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사례에서 보듯 구영여성회가 해온 ‘육아소모임 → 마을도서관 → 울주군작은도서관협의회 → 공동의 활동으로 조례제정’ 과 같은 일련의 활동 등은 일상정치활동의 좋은 사례입니다. 이런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최근 천상여성회가 지역의 학부모들과 아파트대표자 연합회와 함께 비리사학 00고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활동 또한 좋은 사례입니다. 풀뿌리여성들이 관심가지는 자녀교육의 문제를 우리교육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대중적인 실천활동으로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큰 활동입니다.

더불어 이런 활동을 통해서 풀뿌리여성들은 누가 우리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며, 누가 우리와 함께 하는지 지역사회의 여러 사람들과 세력들의 정치적 태도를 보고 경험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부산 연제여성회

◇ 창립일: 2006년 2월 (사)부산여성회 연제지부 출범

◇ 창립목적 : 본회는 자신의 삶, 가정, 지역, 사회에서 여성들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고, 민주적 지역공동체의 주인으로 살아간다.

◇ 주요사업

1. 성 평등 의식 확산과 여성권익신장,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사업
2. 지역 활동을 통해 풀뿌리 지역공동체를 위한 사업
 - 품앗이 공부방, 방과후 학교, 토요방과후 교실 등 아동사업
 - 학부모교육, 엄마학교, 아빠학교, 노인학교 등을 통한 성인교육사업
 - 어린이날 행사,영화제,벼룩시장 등 주민참여형 마을행사진행
 - 학교앞 유해환경 개선활동, 마을벽화그리기 등 마을환경만들기 활동
3. 아이가 안전하고 엄마가 안심하는 안전한 마을 만들기 활동
 - 우리동네 도서관, 어울마당 돌봄센터 운영
4. 마을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을기업“소풍” 운영

◇ 주요활동연혁:

- 2005년 2월 제1회 예비학부모교실
- 2005년 7월 토곡좋은엄마모임 구성
- 2005년 10월 토곡좋은어빠모임 구성
- 2006년 2월 부산여성회 연제지부 출범
- 2006년 9월 토곡여성노인학교, 한글교실 운영
- 2007년 8월 배산생태해설사 “초롱이” 결성
- 2008년 1월 “어울마당” 공간 마련, 품앗이 공부방 운영
- 2008년 1월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 리더교육
- 2008년 5월 제1회 어린이날 행사
- 2008년 7월 제1회 가족영화제
- 2008년 어린이 벼룩시장 운영, 불량식품 없애기 활동
- 2009년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활동, 마을벽화 그리기, 빛그림 공연운영
아동체험단“맨발동무” 구성, 제1회 아빠학교, 제1회 아빠와 1박2일
- 2010년 6월 우리동네 도서관 개관
- 2010년 방과후 마을학교“꿈꾸는 씨앗” 운영, 연제구 평생학습기관 지정
- 2011년 4월 마을기업 커피가 있는 마을가게 “소풍” 개소
- 2011년 연제구 교육희망네트워크 구성
- 2012년 3월 “어울마당 아동돌봄센터” 개소, 제1회 엄마학교
- 2012년 토요방과후 교실 운영, 도서관 학교,
- 2013년 아이가 안전하고 엄마가 안심하는 우리동네 네트워크 구성

엄마, 아빠, 청소년 마을 지킴이단 교육
안전한 마을 만들기 포럼 진행

◇ 회원수 : 116명 (아빠회원 19명 포함)

◇ 주요활동내용

<p>1) 교육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제구 평생학습관 지정(2010년 - 2013년) ▪ 노인학교 강사양성 교육진행 (2007년 ~ 2009년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학교 강사단 구성 / 월 1회 강사단 모임 ▪ 토곡은빛노인학교, 한빛 한글교실 운영 (2006년 ~ 2013년) ▪ 예비학부모교실 (2005년 ~ 2013년) ▪ 성평등 가족문화 만들기 교육 (2008년 ~ 201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마학교, 아빠학교 진행 - 가족 야유회, 아빠와 1박2일 ▪ 생활정치교육 / 월별 회원만남의 날을 통한 회원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1회 진행 / 이슈에 맞는 주제의 교육 ▪ 배산 생태안내자 교육 (200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 동아리 초롱이 구성 - 숲 생태 체험 활동 진행 ▪ 아동체험진행자 양성교육 (2009년-20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맨발 아동 체험단 구성 ▪ 회원 소모임 활동 (요구별, 취미별, 연령별)
<p>2) 가족 참여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애니메이션 야외 영화제 진행 (2008년 ~ 2013년) ▪ 5.5 어린이날 행사 (2008년 ~ 201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한 마을, 성평등한마을, 폭력없는 마을 등의 주제 ▪ 성평등 가족문화 확산 활동 (2006년 ~ 2013년) ▪ 연말 경로잔치 (2005년~20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엄마,아빠,어린이,어르신들의 공연발표
<p>3) 아동 관련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공동체 실현을 위한 “폼앗이공부방”운영 (2008년 ~ 201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부터 마을 방과후 학교로 운영 ▪ 현장 체험 교육 “어린이 벼룩시장” 운영 (2008년 ~ 2013년) ▪ 맨발 아동체험단 활동 (2006년 ~ 20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즐거운 토요일 어린이 체험 활동 (2006년 ~ 2011년) - 공동체 놀이, 숲체험 놀이학습, 문화 역사 체험 교육 ▪ 빛그림 공연 (2009년-2013년)
<p>4)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량식품 없애기 교육활동 (2008년 -200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 교육 진행, 학교 학생들에게 교육 진행 - 불량식품 조사 활동, 교육 전단지 제작 ▪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학부모 활동 (200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천 초등학교 통학로에 주변 신호등과 인도 설치 ▪ 마을 벽화 그리기 (2008년 - 20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산8동,9동 지구대벽, 연일공원놀이터벽, 주공아파트 진입로 벽 ▪ 안전 지킴이단 교육, 마을 안전 지도 그리기, 안전지킴이집 조사활동 ▪ 인사하는 마을, 안전한 마을 캠페인, 아이가 안전하고 엄마가 안심 하는 우리동네 만들기 활동, 연제구 유관단체와 연계한 포럼 진행

부산 연제여성회 인터뷰 정리본

§ 인터뷰 참가자 :

이정은(1대 지부장, 활동10년)/주형영(2대지부장, 활동8년)/최해영(3대사무국장, 활동6년)

대부분의 평범한 여성들이 여성으로서 차별과 불편을 안고 살지만 여성의 문제로 인식하고 바뀌어가는 활동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엄마로서의 정체성만을 가지고 아이키우는 문제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다. 엄마에서 여성으로 다시 깨어나는 풀뿌리 여성운동을 하며 마을과 사회를 바꾸는 활동을 하고 있는 부산여성회 연제지부의 이야기이다.

Q.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었나요?

- 이정은 : 부산여성회에서 연제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지역여성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연제지부를 만들면 좋겠다고 제안된 것이 2004년입니다. 연제가정폭력상담소 내에 지역사업팀을 구성하고, 상담소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연제구 내에 집중해서 홍보하고 강좌열고 이런저런 활동을 시작하게 됐지요.

Q. 2004년에도 대중강좌를 했네요? 근데 그걸로 사람이 남지는 않았어요?

- 이정은 : 연제가정폭력상담소라는 이름으로 연제구 내에 살고 있는 여성들을 만났죠. 대중강좌는 그 당시 여성회 다른 지부에서 했던 사업을 그대로 했어요. 그때 한참 했던 강좌가 아이들 모아서 의회체험하는 어린이 의정체험단, 우리가 살고 있는 연제구를 잘 알아보는 자치학교 등을 했었죠.

근데 진~짜 사람이 안모여져요. 어린이자치학교는 애들한테 관심이 있는 엄마들이 애들은 보내지만 엄마들은 참여안하고 애들만 보냈고, 자치학교는 거의 안모아졌지. 내가 알고 있는 동네엄마들 겨우 오라오라 해서 5-6명 정도 참여하고, 교육이 4회기면 2번은 탐방가는 걸로 했지만,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별 재미있는 교육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기의 요구가 있어서 참여하는게 아니라 내 얼굴 보고 참여해주는 부담스러운 교육이었나봐요.

당시에 여성회에서 준비한 교육이 대체로 여성들을 교양시키기 위한 교육들이고, 그들의 요구에서 출발하는 교육을 진행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할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많은 고민을 했죠.

그 때 한국여성단체연합 박영미 대표님과 이구경숙 국장이 울산에 좋은엄마모임이 있다더라, 많은 여성들이 참여하고 조직도 잘되더라 하면서 풀뿌리 여성운동 사례를 전파시키고 다녔어요.

대중강좌는 좀 거창한 주제로 여성회에서나 시민단체에서 꼭 해야 하는 다양한 주제들로 해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마을에서 엄마학교라든지 좋은엄마만들기라든지 하는 걸로도 조그만 마을단위로 해서 엄마모임이 만들어지는 걸 알게 된거죠.

그러면 나도 우리 동네에서 내 주변의 엄마들이랑 해볼까, 이렇게 생각전환을 하게 됐죠.

Q. 그래서 아이 유치원 보내러 나온 엄마들과 차 마시는 모임으로부터 시작하게 된거예요?

- 이정은 : 우리 아파트에서 반장도 하고 부녀회 들어가고 그런 역할들도 했는데, 그런 데에 가보니 적응이 안돼요. 아무것도 못하고. 내랑 비슷하거나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대상들이 아니었어요. 지역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사람들을 초대하기도 하지만, 지역에 있는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거잖아요. 여성회에서도 부녀회에도 좀 들어가고, 우리 편으로도 좀 만들고, 반장이나 대표자 역할도 맡아봐라, 많이 권하기도 했는데. 막상 내가 해보니까 거기(부녀회, 반장 등)에 있는 분들하고 성향도 안맞고, 연령대도 안맞고, 취향도 안맞고 관심사도 다르고, 다 너무 다른 그룹에 뜬금없이 내가 들어가서 있는 것 같았죠. 마을의 이슈나, 분위기, 사람들의 구성 등을 파악하게 된 건 있었네요.

그리고 있다 새로운걸 해야되겠네, 생각을 하던 중 우리 아들 유치원 차 태워주면서 인사나누는 엄마들에게 관심이 생기게 된거지요. 어린이집 차는 집 바로 앞에 와서 아들만 태우면 되는데, 유치원 차는 크니까 아파트 어느 한 곳에 우르르 모여 있어야 아파트에 있는 애들을 한방에 다 태우고 가는거죠.

그전에는 인사도 안하고 부스스하게 나가니까 눈도 안맞추치고 애 태우고 빨리 집에 오고 했는데, 이제 말을 걸기 시작했지요. 말을 걸기 시작한 사람들이 언니들이었고, 그집 애들은 7세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내가 집에 갈 생각을 안하니까, '우리집에 가서 차라도 한잔 할래요' 해서 '예, 좋습니다' 하면서 따라가고. 보통은 애 기다리면서 서있으면 서로 말 안시켜요. 다정하게 말 시키고 안부 묻고 이런 사람이 잘 없단 말이야.

에피소드 하나는~ 며느리가 둘째를 출산해서, 첫째 아이를 돌보고 있는 젊은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 할머니랑 되게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나중에 이 할머니가 며느리보고, '야, 저 재우엄마가 참 괜찮은 사람이더라. 저 엄마랑 친하게 지내라'고 떠밀어준거야. 그래서 이 새침한 언니가 '우리 시어머니가 자기랑 친하게 지내라고 했다'면서.

그렇게 하다가 7세 (자녀를 둔) 언니들한테 뭐 하고 싶냐, 뭐하면 좋겠냐, 혹은 뭐가 고민이냐.. 이런 얘기들을 서로 나눴죠.

근데, 이 언니들이 요구가 없는거예요. 포인트는 그거다.

하고 싶은 요구가 별로 없어... 그레가지고 요구를 만들어줬지.

내년에 학교 보내는데 걱정되는 건 없냐?, 하니까 아, 걱정된다면서.

여성회에서 "초등예비학부모교실"이라는 교육을 하는데 우리 동네에서도 해볼까? 아, 좋겠다, 하자, 이렇게 동네에서 첫 강좌를 준비하게 된거죠.

그래서 이 언니들하고 어떻게 해볼까 얘기하다가, 그럼 어차피 강사 부르는데 다른 엄마들도 같이 하자. 유치원에 서로서로 전단지도 넣고 아파트 라인에 홍보도 하고, 전봇대에 붙이고, 이런 작업을 이 사람들과 같이 한거죠.

Q. 강좌를 듣는건 좋은데, 자신이 홍보의 주체로 나서는건 좀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그걸 같이 하자고 얘길 하게 됐어요?

- 이정은 : 이 사람들 대부분이 그 아파트에 사는데, 자기 아파트에 붙이는건 쉽게 붙일 수 있겠대요. 자기가 경비아저씨한테 말해서 붙이겠대요.

뭐, 전봇대 붙이는 것도 다같이 한바퀴 도니까, 같이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도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같이 알려보자고 하니까 그래 뭐 알겠다고, 우리밖에 할 사람이 없으니까, 다른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했나봐요.

근데, 더 중요한게 있었어요.

5명에서 부족하나마 같이 의논하고 홍보하고 준비했는데, 예비학부모교실 딱 그 5명만 온거죠. 우리 외에 한 명도 안왔다는게 충격적이었죠. 준비하고 의논하고 했던 그 사람들만 온거지. 그 외에 한 사람도 안왔어. 나름 선생님도 섭외해놓고, 애 봐줄 탁아샘도 섭외해놨는데, 우리끼리밖에 안온거죠.

이 교육을 주최하는 단체에 대한 신뢰성, 불특정 다수에게만 홍보한것, 서로가 단절되어 살다보니 딱히 더 안내할 사람들이 없는 것 등의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Q. 그럼 토곡좋은엄마모임은 어떻게 만들어 졌어요? 연제지부는?

- 이정은 : 예비학부모교육을 마치고 커피 한잔 마시며 어떻게 할까를 의논했어요. 우리가 강좌를 아무리 좋은걸 해도 사람들이 오지를 않는다. 근데 우리가 이런걸 할거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면 좋는데, 안온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럼 우리가 애들 데리고 놀아보자. 그래서 마을 공원인 온천천에서 놀았어요.

매일 한번은 엄마들끼리 모여 서로의 삶, 여성으로 살아온 삶, 서로의 꿈 등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가졌

죠. 아이들과 함께 놀기 위한 준비회의도 하고요.

매월 한번씩 모여 온천천에서 아이들과 노는 것도 재미있었어요. 비눗방울놀이도 하고, 같이 준비해서 미술놀이도 하고, 하여튼 아이들과 어떤 룰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놀이를 했어요.

다섯달 정도 놀다보니 참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예비학부모교실은 아무리 좋아도 본인이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사람을 초대할 수가 없었는데, 놀이는 애들하고 놀아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막 초대를 한거죠.

지금 생각해도 참 신기한데, 어디서 사람들이 왔는지...

“재우엄마, 계속 이렇게 할거예요?” “이거 좀 회원제로 하거나 모임을 만들지, 언제까지 그냥 이렇게 사람들을 받아가지고, 누가 언제 올지도 모르고 불안하게 이렇게 할거냐?”고 이렇게 묻는거. 아, 그러면 모여서 이걸 한번 의논해보자, 해서 ‘7월은 토요일날 놀기 전에 전체 엄마들끼리 모여서 의논할건데, 모임을 만들려고 한다’, 그렇게 모인 사람이 17명이었죠.

‘토코좋은엄마모임’이라는 이름도 확정하고 부산여성회 회원으로 회원규정도 정하고 모임 체계도 마련했죠.

부산여성회의 소속 모임으로 하는 것에 완전 합의 하는 것은 아니였지. 썩 내키지는 않는데, 우리 모임이 더 성장해가고 자리잡기 위해서는 도움 주는 단체가 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합의했어요.

다음해 2월에 토코좋은엄마모임을 중심으로 부산여성회 연제지부 창립총회를 한거죠.

Q. 그럼 그때 부산여성회는 어떤 지원을 했나요?

- 이정은 : 온천천에서 몇 달을 노는걸 보고 여성회에서 ‘그럼 뭘 좀 지원해줄까? 어떤걸 지원해주면 지역사회하는데 도움이 되겠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노는데 너무 꺼리가 없다. 엄마들이 놀이를 진행하는데 한계가 많다. 다양한 놀이를 배우고 진행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을 해주면 우리가 도움이 될 거 같아요.”라고 해서, 여성회에서 “전래놀이진행자양성과정”이라는 전래놀이, 손유희, 과학놀이, 숲놀이, ... 등을 배우는 교육을 마련해 줬어요.

엄마모임회원이 열댓명쯤 갔고, 여성회 다른 지부에서도 참여했어요. 참여한 회원들은 너무 만족했었어요. 자신들이 배우고 싶은 교육이라 애들 업고도 참여하고, 마을에서도 회원이 되어야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자랑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주변의 엄마들이 모임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오고 싶어하기도 하고 엄마모임이 공식적으로 알려지는 계기도 되었죠. 이 교육을 통해 회원들이 모임에 대한 자부심도 생기고 여성회도 조금씩 알게 됐죠. 나는 이 교육을 총괄 진행하고 사회보고 챙기는 일을 했죠. 나도 일반 회원으로 있다가 교육을 진행하면서 나에게 여성회 간부로 성장해가는 훈련의 장이 되기도 한 것 같아요.

- 주형영 : 나도 그 교육을 받고 싶어 회원 가입한다고 했는데, 바로 안 넣어 주더라고요... 회원들의 전원 통과를 얻어야 된다면(웃음). 그래서 신청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2006년도 1월에 회원이 됐어요(웃음). 그래서, 아~ 여기 아무나 못들어가는구나(웃음).

Q. 여성회 회원에 한해서 교육에 참여하면 좋겠다고 한건 토코좋은엄마모임에서 한거죠, 여성회 본부에서 한건 아니죠?

- 이정은 : 아니요. 여성회와 엄마모임 모두 합의한거죠. 회원 역량강화 교육으로 진행한겁니다. 그냥 대중 강좌가 아니라 지부에서 하는 사업에 지원하는 내용이니까. 여성회에서도 재정을 특별히 만들어 지원한거죠. 공모사업 등으로 계획된 것이 아니라 지부의 요구를 받아 특별히 지원해 준거죠. 나도 여성회의 평회원 수준으로 있던 중이라 이 교육을 통해 여성회 진정성을 알게 되고 든든함을 알게 된 잊혀지지 않은 교육입니다.

Q. 근데 이렇게 자연적으로 모인 엄마들도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있었나요? 이렇게 노는게 좋든지, 비슷한 성향이 있으니까 왔을거잖아요?

- 이정은 : 그때 모인 엄마들이 그 당시에 나름 목표나 활동내용을 잡은 게 있어요. 엄마들도 교육을 받고 싶다.

엄마들도 자기를 발견하는 교육이 있으면 좋겠다. 아이들을 함께 키우면 좋겠다. 그리고 가정과 지역이 행복한 것을 만들면 좋겠다. 약간 이 정도의 합의를 본 엄마들이지요.

실제로 엄마들은 아이를 데리고 놀 수 있고, 품앗이 공동육아처럼 엄마모임 회원이 됐을꺼예요.

- 주형영 : 나도 그런 것 때문에 들어왔어요.

- 이정은 : 그렇게 보여지게 왜냐면, 엄마들끼리 했던 모임은 돌아가면서 집에서 진행하니까 잘 보여지지는 않지만, 애들하고 노는건 마을에서 놀고 있으니까, 그 노는 모습만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고, 그게 막 즐거우니까 소문도 잘 나게 되고. 아, 저기는 아이를 키우는데 도움이 되겠다, 애를 잘 키울 수 있겠다, 재미있게 키울 수 있겠다, 도움은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겠지요.

그리고 2005년 10월에 가족야유회를 갔어요. 그때 아빠들도 첫 출현을 하게 된거죠. 그전에는 엄마들과 아이들만 내내 북닥거리고 했는데, 거기서 아빠들끼리 좋은아빠모임을 만든거죠. 너희 엄마들끼리만 좋은엄마모임하나, 우리도 아빠들끼리 좋은아빠모임하자... 아빠들은 약간 친목모임처럼. 애들이 친구니까 우리도 알고 지내면 좋겠네요, 이러면서.

애들 돌보고 키우는 일이 엄마들의 몫이었는데, 아빠들이 이 주제로 얘기 나누게 된거죠.

아빠들도 아이들 이야기, 가족 이야기로 수다 떠는 것을 즐기고 뿌듯해 하더군요...

Q. 토목좋은 아빠모임에 대해 좀 더 얘기 해주세요. 처음 아빠모임을 만드는데 어려움은 없었는지?

- 이정은 : 엄마들이 엄마모임을 하고 활동을 하다보니, 아빠들이 보기에 엄마들이 별 돈도 안되는 것에 몰려다니고 가정에 더 소홀해진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부부갈등도 생기기도 하고... 또 하나는 엄마들만 애들 데리고 다니고 힘들게 애들보고 하지 말고 아빠들도 같이 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빠들도 교육을 좀 받고 우리가 하는 활동에도 참여하도록 하자는 생각을 하게 된거죠.

처음에 어떻게 아빠들을 만나게 할까? 아빠들만 만나게 해주면 뽀뽀할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가족야유회를 준비한거죠. 몇 년 동안 진행된 가족야유회의 첫 번째 목적은 아빠들을 서로 만나게 하고 아빠모임 회원확대였죠. 그리고 부끄럼 많은 아빠들을 위해 스포츠중계 같이 보기, 저녁 초대하기 등을 하면서 서로 친해하도록 도와줬죠. 근데, 아빠들끼리 너무 친해져서 만나면 집안을 안들어오고 술자리가 하나 더 만들어 진거죠. 좋은아빠모임이 아니라 술먹는 아빠모임이라는 불평의 얘기도 많았어요.

Q. 토목좋은 아빠모임은 어떻게 진행 됐나요? 아빠모임활동의 시사점은?

- 이정은 : 엄마들은 교육을 많이 받고 서로 토론이나 회의 등을 많이 하는데 아빠들도 이런 교육을 받으면 좋겠다는 엄마들의 요구가 생긴거죠. 아빠들의 요구가 아니라(웃음)

첫 아빠학교를 엄마들이 내용과 강사까지 모두 준비해서 소 끌고 오듯이 교육에 참가시켰죠. 교육에 참여한 아빠들은 교육의 효과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아빠들이 뭘 해줄까? 엄마들을 도와주는 일이 뭐가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한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아빠들 스스로가 대개 뿌듯하게 생각해요.(웃음)

어린이날 행사, 엄마들에게는 휴식을 주는 아이들과의 1박2일 캠프, 아빠학교 등을 스스로 기획하고 진행하게 된 거죠.

아빠모임 활동의 의미가 엄마들이 하는 일을 도와준다는 것이었는데, 요즘은 아빠들이 자신의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남성으로 이 사회를 살아가는 어려움, 자기 정체성,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는 거죠. 엄마들은 모임을 하면 먼저 자기 정체성 찾기와 여성들의 문제를 먼저 이야기 하는데, 아빠들은 그 순서가 좀 다른 것 같네요.

지역에서 아이를 함께 키우는 활동을 같이 하지만, 가정에서는 아직 많은 부분이 엄마들에게 맡겨져 있어요. 물론 예전에 비해서는 가사와 육아에 아빠들이 많이 참여해요. 엄마들의 지역활동, 경제활동을 인정하고, 가족 내에서 생기는 문제를 엄마들의 문제라고 몰아붙이는 일은 많이 줄었어요.

여성운동이 여성문제에서 출발해서 궁극적으로 주인공계 인간답게 살아가는 거라면, 아빠들이 남편으로 살기, 아빠로 살기 등 남성의 문제를 이야기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남성과 여성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독립된 사람으로 서는 과정이라고 할까요.

Q. 그럼 주형영 쌤 얘기로 넘어가볼까요. 엄마모임 소문을 누구한테 들었어요?

- 주형영 : 거기 활동하고 있는 엄마한테 들었죠. 이번 달에는 애들하고 연날리기 하러가요. 12월에는 경로잔치 했어요~ 그러더라구. 그래서 어, 거기 뭐하는데야? 물었죠. 그냥 엄마들끼리 모여서 활동을 하는데 아이들 데리고 다양한 놀이도 하고, 나름 봉사도 해요. 이렇게 하니까. 그건 완전 나의 로망이었죠. 아이한테 좋은 경험도 시켜 주고, 나름 사회봉사라는 것도 하니까. 이런게 참 좋겠다, 그래서 회원가입하고 싶다 생각을 했는데, 기존 멤버한테 허락받아야 한다고 그러고. 내가 가입했을 무렵 바로 못들어가고, 몇 명이 가입신청을 했는데 그 사람들을 모아서 회원만남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내 기억에는 1월에 신청해놓고 3월달에 만났던 것 같아요.

Q. 대기 기간이 길었네요?

- 이정은 : 근데 우리는 몰랐데이~. 그 회원이 스톱시키고 있었던거고, 우리는 논의를 한 적이 없어.

- 주형영 : 그래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나랑, 은0언니, 진0이 그렇게 3명이 같이 들어갔죠. 그래서 어느 식당에서 만나 자기소개를 하라 그러는거예요.(웃음) 기존멤버랑 신규멤버 같이 앉아서 소개하는데 엄청 빨랐죠. 처음에 맥도날드에서 모여서 인사하고, 식당으로 가서 밥먹고 나서 갑자기 회의를 막 하는 거예요. 엄마팀, 새싹팀(유치팀, 초등팀 등)이 있는데, 나보고 어디를 들어가겠냐는거야.(웃음) 거기 뭐하는데데? 물어보니까 엄마들 교육도 하고 아이들 놀이도 하는데, 이걸 연령에 나눠서 하는데, 너는 어디갈래 할길래, 나는 그 때 엄마팀으로 갔던 거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앉아서 팀을 나누더니 뭐할건가 얘기하는데, 옆에 앉아서 약간 애매하게 쳐다보고 있었지. 그러고난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한다고 하더라구. 처음에 정은이 집이었던 거 같다. 거기서 또 처음에 무슨 소개를 하더라구(웃음). 무슨 카드를 뽑아서..

- 이정은 : 그게 회원만남의 날 개념이야. 전원모임을 우리집에서 했었거든.

- 주형영 : 그래, 무슨 카드를 뽑아서 짝을 지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 보는 사람인데 자기 이야기도 하고 하는 것이 낯설기도 하면서도 괜찮았어요. 아, 여기는 이렇게 하는구나. 모르는 사람과 만나서 이렇게 얘기가 되는구나.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좀 애매하더라구요. 집 거실에 아줌마들 앉혀놓고 소개하고 프로그램하고 무슨 운동하는 단체인 줄 알았어요(웃음). 그런걸 전혀 접해보지 않았는데, 어색하기도 하고 아, 여기는 이렇게 하나보다, 색다르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고... 그 다음에는 문자로 '김치찌침 먹는 데 오세요' 하는데 그런 데는 아직 내가 가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아직 나는 멤버십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데는 문자가 와도 이걸 내 레벨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안갔고

Q. 어떻게 여성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어요?

- 주형영 : 자녀와의 대화법 교육을 하는데 한창 관심이 가던 때였거든요. 들으면 좋겠다 해서 들으러 갔는데, 사실 크게 기대를 안하고 갔죠. 그런데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하는 것도 신기했어요. 어떤 기관도 아니고 단체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듣는 것도 좋았고.

그 때 바로 부모교육을 안하고, 인생곡선을 해서 자기 이야기를 했는데, 보통은 처음 보는 낯선 사람들 사이에 자기 이야기 잘 안하잖아요. 그래서 얼만큼 풀어야되지, 그런 고민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 곡선을 가지고 정말 자기 이야기를 다 드러내서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구나, 전혀 그렇게 보일 것 같지 않던 사람들의 속 이야기도 같이 듣고 그러니까, 뭐랄까 친밀감 이런 것도 느껴지대요. 그 교육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거기 참여했던 사람들이나 그 장면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남으니까. 그리고 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랑 친해지는 것 같고, 교육 마치고 나면 항상 같이 밥 먹었거든요. 교육마치면 그 유모차를 다 끌고 내려

와서 다 밥먹으러 가고, 그러고도 그냥 모임 같은건 꾸준히 하고, 교육 있으면 참여하고, 계속 그랬던 거 같아요.

그러다가 여성회에서 생태교육을 잡아서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했어요. 너무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된거죠.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도 알게 되었고, 또 살면서 생태라는 개념을 전혀 접하지 않고 있다가, 정은이가 이런 교육이 있는데 맞을 것 같다. 이게 나중에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거야, 해서 갔죠. 우리는 또 다 직업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무슨 양성과정이었었는데, 그래서 이걸 배워놓으면 나중에 직업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내 나름의 계산은 그거였죠.

그래서 가서 정말 전혀 접하지 않던 내용들을 보면서 생태를 접하면서 되게 신기했었고. 또 그 교육이 강의실 안에서만 듣는게 아니고, 영도도 가고 양산도 가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 4명이 멤버가 돼서 같이 다니고 하니까 더 친해지는 계기도 되고 멤버십이 좀 더 쌓였던 것 같애. 숙제가 있어서 같이 모여서 스터디도 하니까 더 친밀감도 생기고, 뭔가 좀 관심사가 생기더라구요.

그전에는 여성회 모임 가면 그냥 남 얘기 같았는데. 그냥 앉아서 듣고, 부모교육 듣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었지만, 내가 뭔가를 한다는 개념은 없었는데. 생태교육을 받으면서 멤버십 딱 세워지고 뭔가 내가 할 꺼리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다들 애 업고 가고, 친정엄마한테 욕 얻어먹으면서 애 맡기고, 가서 듣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걸 듣고 연제지부에서 배산생태해설사 양성과정을 준비해서 그래서 거기에 우리 회원들과 외부 사람들 모집해서 진행했어요. 그걸 할 때에도 정말 신기했어요. 외부 사람들도 같이 와서 듣고 하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대단하다는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홍보했어' 물어보니까 배산에 가서 현수막 걸어놓고 홍보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진짜 놀랐지, 와 대단하다.

Q. 최해영샘의 처음은 어땠나요? 엄마모임 소문을 누구한테 들었어요?

- 최해영 : 점O가 애가 같은 반이었고 같이 밥푸러다니는 사이였어요. 점O가 엄마모임 회원이고 생태교육을 다녔어요. 여름방학 지나고 가니까, 이 엄마가 티비에 나왔다는거예요. 어디 생태해설하러 다니는데 티비에 나왔다는 얘기를 그 아들이 일기에 써서 다 알게 된거죠. '너 그런 것도 해?'하니까 그런 것도 한대요. 그래서 '나도 가면 안돼?' 했어요. 근데 내 성향상 내가 누구한테 먼저 시켜달라고 하는 성향이 절대 아닌데, 그 때 내 사정이, 우리 아이도 너무 아팠을 때고 나도 너무 아파서 우울증이 극에 달했을 때. 이렇다가 내가 우울증으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을 때였어요. 이렇게 밖에 안 나오면 죽을 거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뭐든 끈을 잡아보고자 했던게 생태해설양성자과정이었죠. 생태해설에 관심있었던게 아니라, 어디든 밖으로 나가자 해서 선택한 거죠. 그래서 '가면 안돼?' 물어보니까, 개가 그래, '와~' 그러더라구요. 그때 이미 수업은 반 정도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애가 너무 쉽게 오라고 하니까, 내가 가도 되나 싶은거예요. 그래도 그냥 갔어요. 근데 내가 가니까, 다들 아무렇지도 않게 '오세요' 하면서 이름적고 싸인하고 수업듣고 밥 먹으러 같이 갔더니, 무슨 회칙을 정한다 하고, 이름을 정한다 하면서 내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지...싶은거예요.

'우리 엄마들끼리 동화책 읽기 모임도 하는데, 거기도 와' 그러는거예요. 그래서 '그래?'하면서, 그때 1학년이니까 관심사가 다 고만고만할때잖아요. '어, 알았어, 갈게' 하면서 갔어요. 근데 거기는 갔는데, 분위기가 쉼~한거야. 집에서 모인다고 해서 집으로 갔는데 엄마들 세 명이 앉아있는데 저 엄마는 왜 왔지 하는 느낌(웃음).

- 이정은 : 그때 토코좋은엄마모임 안에 엄마모임을 진행하는 팀, 놀이모임을 진행하는데 유아팀, 초등팀이 있었어요. 이렇게 나눠서 하다가 회원이 늘어나니까 다시 체계를 바꿨어요. 2005년, 2006년에 들어온 사람들은 1기 디딤돌반, 그 다음에 2007년에 들어온 사람들이 2기로 빨래터반. 해영샘은 빨래터 반이었지요. 그리고 2008년 갖 모집된 3기가 있었어요. 거기는 한누리반이었고. 2기 빨래터반 엄마들이 거의 주공아파트에 사는 엄마들이었어요.

Q. 최해영샘은 여성회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게 된 계기는요?

- 최해영 : 점O가 자기가 반장을 할텐데 나보고 총무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하니까, 그냥 니랑 내랑 친

하니까 하면 된대요. ‘그래, 알았어’ 했지요.

사실은 동화모임에는 애정이 크게 없었고, 생태 거기는 재미가 있더라구요. 나도 ‘이런걸 배우는데가 있었어?’ 하면서 이런 세상에 눈을 뜬 것 같고 우리 아이랑 대화도 되는거예요. 생태모임에 더 열정을 쏟았죠. 거기에서 또 팀을 나눴어요. 그 중에 스터디반 반장을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하, 참, 내가 이거 안 하면 내가 떨어져 나가겠구나 하는 생각에 한다고 그랬어요. 사실 빨래터반에 총무를 맡고 있었지만 크게 애정은 없었고, 생태해설사반에 관심을 더 두고 하면서 몇 달이 흘렀죠. 또 여성회 이외에 따로 공부도 이것저것 많이 하러 다니고.

2008년 광우병 사태 일어났을 때... 너무 분개스러운 거예요. 그때 우리 애들이 아프다고 했잖아요. 아픈 아이들에게 이런 걸 먹인다니, 하면서 완전 내가 화가 난거죠.

그래서 서면에서 집회한다더라 하는데, 사실 저는 집회라는 걸 한 번도 가 본 적 없거든요. 그게 뭔지도 몰랐어. 근데 동생 끌고 갔어요. 서면에 땅바닥에 앉아서 집회를 하는데 이건 진짜 새로운 거예요. 아,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도 활동하는구나 하면서 자주 나갔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미국산 소 안 들어올 줄 알았어요. 그때가 연제지부 어울마당 간판 달고 할 때였는데, 어울마당에서도 광우병 소고기 반대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뜻이 맞을 수도 있겠네, 하는 생각이 처음 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 때 비폭력대화법 공부모임을 하는데 오라는 거예요. 그때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그때여서(웃음). 그래서 갔어요. 사실 그 모임을 진행할 때는 책을 읽는 과정에서 자기의 사생활과 모든 것들을 드러내야 하는 일이 많아서 너무 힘들었어요. 한 회 한 회 진행하면서, 탁 털어내는건 좋은데 그 드러내는 작업이 너무 힘들어서 ‘아, 힘들다 힘들다’하고 울기도 정말 많이 울고 진짜 눈물바다 몇 번 되고 했는데, 끝나고 보니까 그 모임이 너무 좋았던거예요. 일주일에 한번 했던 거 같아요. 아 그것도 나한테 새로운 경험이었지. 이래서 내가 치유될 수가 있구나. 내가 제일 처음에 힘들게 왔는데, 그때 이 사람들과도 신뢰가 더 생겨지는 때였겠지만, 나 스스로한테도 병을 치유했다고 해야되나, 우울증을 털어냈다고 해야되나, 그런 계기가 됐어요.

Q. 그때 우울증이 있었을 때 병원이나 다른 상담도 다녔었나요?

- 최해영 : 병원도 다녔어요. 2~3번쯤 갔는데, 그때 내 마음은 병원에 다니면서 이걸 치료할 수 있으면, 나 혼자서도 어떻게 하면 치료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져서, 아직 이 상태면 혼자 한번 치유해보자 생각했죠. 결론적으로는 병원이 아니라 모임을 통해 털어낸거죠.

Q. 샘이 이런저런 교육을 절박한 심정으로 많이 다녔다고 했잖아요? 근데 결국 연제지부에 계속 오고 남게 된 이유는 뭐예요? 차이든지.

- 최해영 : 여러 곳에 강의를 듣거나 배우러 다녔는데 거기는 교육만 하고 끝이었다면 여기는 사람들 사이에 끈끈함이 있고 인간관계가 남았다고 해야하나. 다른 교육 중에서도 끝나고 모임을 만들려는 경우도 있었지만, 뭐, 내가 뭐 이걸로 직업을 하거나 이렇게 아니라면 굳이 남을 필요가 있을까 싶더라고요. 난 단순히 새로운거 하나 더 알고자 하는 마음에서 다닌 거였으니까.

그리고 광우병 사태라든지 비폭력대화법 등의 계기로 내가 그 때 이 사람들에게 빠져있었다고 해야하나(웃음), 그런게 있었기 때문에... 또 이 사람들이 나한테 신뢰를 많이 줬기 때문에 남은거지요. 한동안 또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무슨 날은 월례회, 또 다른 날은 무슨 교육, 또 뭐에 와~ 이러니까 ‘어, 다른데 더 좋은 교육도 많은데 거기 갈까’ 하는 갈등도 제일 처음에는 있었어요. 근데 그냥 여길 택한 거지요.

- 이정은 : 여성회가 하는 교육들이 10~15명 정도 소수로 해서 자기 얘기를 많이 하게 하는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처음은 자기이야기를 하는 것을 힘들어 하지만 그것이 신뢰를 쌓고 마음을 모으는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 최해영 : 그때는 우리 반끼리도 다큐를 하나 선정해서 얘기를 나누는걸 많이 했었어요.

Q. '좋은엄마모임' 이름을 만들고 모임을 하면서 '좋은 엄마가 뭐냐는 토론을 많이 했다고 했는데, 각자 생각하시거나 토론하셨던 좋은엄마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얘기해주세요.

- 이정은 : 엄마가 행복해야 애들이 행복하다, 엄마가 즐거워야 애들이 즐거운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 마냥 희생하고, 애만 위해서 사는건 절대 좋은엄마가 될 수 없다. 좋은 엄마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뭘 할 때마다 많이 했어요. 아, 엄마들이 자기의 삶을 즐겁고 행복하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살 때에 좋은엄마로 설 수 있다.

엄마들이 처음에는 애들 때문에 많이 회원가입해요. 좋은엄마모임이라는 이름도 그렇고, 겉으로 보여지는게 애들과 노는 프로그램들이 많으니까. 애를 잘 키우고 싶어서 들어오는 엄마들이 많은데, 들어와서 계속 나누는 얘기가 자기 삶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그와 관련된 교육을 하니까.

그래서 처음에 엄마들이 들어와서 하는 말이, '아니, 나는 그냥 애들 프로그램보고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맨날 내 얘기 하라고 하고 엄마들 교육 받으라고 하고 왜 이렇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그럼에도 남아있는거지. 충족되는 부분이 있었겠죠. 차츰 애들건 없어지고 엄마들끼리 많이 늘어나네, 하는 시기도 있었죠.

좋은 엄마가 돼야된다는 엄마의 역할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사회에서 책임감 있게 많이 주잖아요. 이게 부담스러운거지, 엄마들은. 그냥 엄마로 사는 자체가 되게 부담스러운데, 그 짐을 계속 내려놓도록 하는 작업들을 우린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엄마의 잘못이 아니다. 그것만이 엄마의 역할이 아니다. 엄마의 역할이나 엄마로서 사는 것에 대해서 여성 중심으로 생각하고, 마음먹고, 활동하게 하는 과정이 토곡좋은모임에서 있었던거지요.

애를 잘 키우기 위한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왔지만, 독립된 주체가 되어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 교육이나 어떤 자극들을 많이 제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 엄마모임을 하다보면 부부 싸움을 많이 하게 된다든지. 시부모와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것에 대해 살짝 고민도 했지만, 그게 여성으로서 서는 과정이더라구요. 아내, 엄마, 며느리로서만 살다가 점점 갈등도 생기면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 생긴거지요.

Q. 해영샘은 이런 것과 관련해 스스로의 변화나 갈등이 있었나요?

- 최해영 : 약간 정당성을 찾았다고 할까... 애한테 뭐든 다 해주고 싶었던건 있었지만, 성향상 엄마가 희생해야한다는 생각은 안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씩 애나 남편한테 괜히 미안하기도 하고. 소위 말하는,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서, 내가 이런 얘기의 당사자는 아닌가 하는. 그때가 시댁과 인연을 끊었을때였거든요. 사실 미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도 사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어떡해. 거기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해줬다고 할까, 너는 그래도 된다고. 처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편과 서로 건드리고 싶지 않아서 말하지 않는 부분이었다고 한다면, 나중에는 이렇게 저렇게 교육을 받기도 했지만 얘기도 통하게 되고, 남편에게 설득하는 작업에 들어갔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되는 이유를. 그래서 남편이 이해해줬어요. 니가 그럴수도 있었겠구나, 라고.

우울증의 절반 이상이 시댁이었어요. 시댁 얘기만 나오면 너무 우울하고 아팠었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싶고. 명절만 다가오면 내 몸이 한 달 전부터 아프고. 근데 지금은 그런게 전혀 없으니까요.

남편과의 관계도, 아, 남편이 이럴 수도 있겠구나, 내가 이런 마음이니까 남편에게 전달해줘야지, 내가 남편에게 말하기 시도하게 되고, 그전에는 그냥 침묵했어요. 근데 아이에게도 말하는 작업을 하게 되고. 지금은 시댁과 만나요. 그냥 내가 가지, 뭐. 남편이 너무 안됐더라구요. 내가 마음이 좀 여유로워졌나보죠.

Q. 마을에서의 정치활동은 어땠나요?

- 최해영 : 정치 얘기하니까... 우리가 2010년에 우리동네 도서관을 만들고 이사를 했어요.한 두 달 인가 있다가 지자체 선거를 하게 되고, 아빠모임 회원이 후보를 나가게 됐죠.

- 이정은 : 그 때 이사를 하고 선거치르느라고 개소식을 좀 늦추고 있었죠.

- 최해영 : 그 때 나는 너무 싫었어요. 선거는 선거고 여기는 여기인데, 아이들 뛰어놀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고 할 때는 언제고, 왜 여기 문을 닫아놓고 다들 거기 가서 있느라고 바쁘게 하는 마음이 너무 컸었어요. 어떤 때는 그럼 도서관을 좀 늦게 문을 열든지, 저 선거 때문에 일부러 급하게 문 연 거 아니야 하는 생각까지 들었었거든요. 그때는 말은 하지 않았고, 나중에 한참 뒤엔가 형영이한테 얘기했던 거 같아요. 그때 사실 그런 마음이 좀 컸었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씩 모임하면, 월례회 때라든지 교육을 하잖아요. 교육할 때 정치적인 이슈를 다루기도 하고. 자주 하다가 딱 안할 때도 있었고, 하여튼 꾸준히는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 듣는 기회가 있었던 게 나한테 도움이 된 거 같아요. 처음에는 약간 거부감이 들기도 했지만. 정치적인 얘기도 하고, 이슈가 되는 얘기도 하고, 선거에 누가 나가면 우리가 이래저래해서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구 의원을 잘 세워야지 정책을 잘 반영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꾸준히 해줬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좀 이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죠.

광우병 집회는 열심히 나갔지만 그게 정치는 아니라고 생각했죠. 난 우리 아이 먹거리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생활정치라고 하는데... 여성회는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거 같아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게 해주고. 사실 그때 딱 깨달았던 건 아니고, 또 몇 년 지나고 하나야 아, 내가 그때 광우병 소고기 반대 했던 것도 정치와 관련이 있는 거고, 좋은 사람을 잘 뽑아야 되겠구나, 하는 느낌은 몇 년에 지나면서 하게 된 거죠. 그 당시에는 활동을 하지말까 하는 생각도 잠시 했었어요.

- 이정은 : 엄마들이 처음에는 정치이야기에 두려움이 있어요. 정치와 무관한 순수 지역활동을 하기를 원하지요. 하지만 교육, 돌봄, 안전, 가정경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정치적이지만 않은 것이 없지요. 어쨌보면 모임이면 매일 정치이야기를 하고 살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선거에도 관심이 많고 정책을 보는 눈도 많이 생겼어요.

중요한 건 선거시기입니다. 예전에는 선거에 투표만 하면 됐는데 지금은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요구를 받게 되는 거죠. 자발적으로 하는 수준이면 좋은데, 우리회의 후보가 나가니 더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마을에 얼굴을 내밀어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죠.

처음 모임이 만들어지고 1년도 안돼서 2006년 선거가 있었어요. 참 많이 힘들었어요. 마음도 의식도 모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하게 되었고 선거를 마치고 5명의 회원이 순수 활동을 하겠다고 탈퇴를 했어요.

그 후 2010년 선거 때도 쉽지는 않았어요. '왜 그 당이나?' '지역주민들이 민주노동당과 연세여성회를 같이 본다'. 2010년 1월 사업평가와 계획을 잡는 자리에서 우리가 올해 있을 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깊은 토론을 하고 서로의 걱정을 털어 놓는 자리를 가졌죠. 그걸로 한마음을 가지게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2010년 선거는 많은 회원들이 선거운동에도 참여하고 우리의 절실한 요구를 담아내며 진행되었고 결과도 좋아서 잘 마무리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선거가 다가오면 활동가들은 고민입니다. 회원들과 어떻게 잘 선거를 치루어야 할지... 지금 연세 지부장의 최고의 고민일겁니다.

Q. 아, 그럼 그전에는 여기가 정치와 연관이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네요?

- 최해영 : 네,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고, 부산여성회 연세지부라고 하기는 하지만, 사실 처음 들어올 때부터 연세여성회를 알고 들어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산여성회와는 별반, (부산여성회의) 소속단위이긴 하지만 굳이 연결고리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했었고.

제가 2011년인가부터 상근하면서 본부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본부는 왠지 색깔이 너무 뚜렷하다는 생각이 많았어요. 그런 느낌에 본부 사람들 만나러 가는 건 너무 부담스럽고. 원래 내 성향도 사람을 잘 만나고 쉽게 친해지고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다가. 교육을 들으라고 하면 그 내용이 알고 싶은 내용이니가 가는 거지, 여성회 자체를 전부 다 이해하는 수준은 아니었던 거죠.

Q. 지금은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연세여성회가 말하는 생활정치라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 최해영 : 아까 얘기하면서 모임에서 이슈 토론할 때 정치적인 주제를 잡다가 안 잡다가 했다고 그랬잖아요. 어

느 순간부터 내가 잡자고 했어요. 지금 와보니까 잡아야될 것 같다고, 그렇다고 너무 세게는 말고. 좀 쉽게, 아닌 듯 하면서 가랑비 옷 젖듯이 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이런 발언을 내가 하고 있더라구요.

어떤 이슈가 특별히 있는건 아니었고, 제가 상근하고 난 다음에, 작년인가, 연제가 막 성장하면서 치고 올라오다가 너무 주춤해있다, 정체기에 빠지는 건 아닌가, 그때 그런 얘기 나왔어요. 지금은 좀 그런 시기라고 생각한다, 좀 쳐지다가도 다시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연제지부가 활동하는 내용을 잡을 때, 회원들이 정치적인 이슈를 꺼내면 좀 싫어하기도 해서 지금은 안하고 있는데, 안하는건 답은 아닌 거 같다. 그렇다고 우리가 정치적인 얘기를 아닌 것처럼 감추고 살지는 않을거 아니냐. 또 언젠가는 선거가 다가오고 이런 얘기를 하게될 때가 있을텐데, 평소에 안하고 있다가 그럴 때 딱 얘기가 되는 것보다는 꾸준히 이슈를 이야기를 하는게 나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Q. 왜 꾸준히 얘기해야된다고 생각하세요?

- 최해영 : 내가 물들었다고 해야되나(웃음). 경험자로서. 내가 들어보고 겪어보니까, 아, 생활정치가 맞네. 내가 만약에 전기세 오르는 것이 너무 불만이야, 그럼 그것도 사실 다 정치와 연관돼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전기세 올리면, 그놈의 XXX, 이런 식으로 불만만 터트리고 말 것을, 같이 꾸준히 얘기하면 이게 뭐가 문제인지 내 주변에 사회문제가 있을 때 핵심을 짚어내는 힘이 딱 생기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꾸준히 얘기해야된다고 생각해요. 좀 아쉬운건 정은이가 덜 바쁠 때에는 브리핑을 너무 잘해줬어요. 어떤 일이 있거나, 궁금한게 있어서 물어보면, 쪽~ 얘기를 해줘요. 근데 요즘은 바빠서... 그럴 시간이 없을거 같아서 안타까워요.

Q. 지금은 여성회 본부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해영 : 음... 글썄요... 가야되니까 가긴 하는데.. 지금은 본부에 대해서... 편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저렇게 뚜렷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게 계속 유지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웃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아직 편한 건 아니에요. 조심스럽게 다가가죠. 그건 내 개인적 성향이 그런거니까.

Q. 여기서 상근도 하고, 사무국장, 여성회에서 얘기하는 간부의 역할도 맡고 있는데, 이렇게 간부로 성장한 과정이 뭐 때문에 성장하게 된 것 같아요?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와있는 본인의 모습에 만족스러우신지?

- 최해영 : (웃음) 네, 만족스러워요. 가랑비에 옷 젖듯 슬슬 이야기했던 것들이, 항상 연제지부는 나를 생각하게 만들어준다고 했잖아요. 내가 왜 이 교육을 듣지, 왜 이런 생각을 가져야되지, 그런 생각을 꾸준히 하게끔 하고, 내가 활동하는 의미에 대해 계속 의문을 가지게끔 피드백을 정은이랑 형영이가 해준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사람을 쉽게 끌어들이거나 친해지거나 하지 못해서, 사실 저는 회원을 거의 안데리고 왔죠. 근데 같이 파트너로 일할 사람이 있다면 나도 그렇게 키워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에 걸로 현혹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활동하는 의미를 계속 묻고 찾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요. 그런데 그렇게 할 힘은 아직까지는 저에게 없죠. 그런 힘은 또 언젠가는 길러지겠지, 뭐.

Q. 쌤이 2009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2011년부터 상근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쌤한테 제일 의미있었던 활동은 무엇이었나요? 내 생애 혹은 내 성격, 내 삶, 이런데에 가장 의미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 최해영 : 성격으로 치면 그거다. 맨발아동체험단 엄마선생님 활동을 계속 했었어요. 토곡좋은엄마모임에 처음 와서 무슨 모임을 할때마다 자기소개를 너무 많이 시키는게 싫을 정도로, 나는 앞에 나가서 얘기하는 것이 정말 싫은데도 불구하고, 단장을 맡아서 엄마들을 이끌고 아이들을 가르치는게 처음에는 부담스러웠는데, 지금 명석을 깔아줄 때 해보지, 아니면 내가 언제 한번 이런 일을 해보겠냐, 하면서 처음에 시작했어요. 그때가 정말 즐거웠어요. 새로 내가 배우고, 같은 팀끼리 의논도 하고, 아이들한테 풀어주고. 그때가 제일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Q. 그럼 자신은 앞에 나서는데 싫다고 했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런걸 좀 해보고 싶었던건가?

- 최해영 : 음.. 주위에서는 그렇다고 하는데, 나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에도 발표하는걸 그렇게 싫어했던 사람이, 신기하지. 나도 신기해요.

교육은 대화법이 정말 좋았고.

저는 여성회 활동을 계속 하겠지만, 상근을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은 사실은 없어요. 사람들과 관계맺으면서 부딪혀 가는게 쉽지 않아서, 오래 할 생각은 없고.

나중에 체험단이나 이런 쪽으로 나중에 계속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가 된거죠.

Q. 지금 연제여성회가 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나,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바와 관련해서, 좀 아쉽거나 잘하면 좋겠는데 잘 안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 최해영 : 이런 질문이 나오면 계속 얘기했던건데, 회원하고 관계맺기. 초창기의 회원들은 연제여성회와의 끈이 없더라도 소모임끼리의 끈끈한 끈이 있어서 아직까지 오시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회원들이 연제에서 맨발체험단 등 프로그램 만들면서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 온 사람들은 탈퇴를 하거나, 활동에 참여를 잘 안한다든지, 연제여성회가 하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한달에 한번 회비내고 만다든지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많이 아쉽죠.

내가 계속 안되는게 인간관계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계속 용기를 내고 있는 편이에요. 모레도 약속을 한명과 잡았는데, 맨발체험단 하려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일이 있어서 못하겠다 하는 분이 있는거예요. 이 분은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잡아놨어요.

소그룹 멤버십이 끈끈하게 있으면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하다말다 하더라도, 꾸준히... 우리 회원들이 자주 하는 말이, 여기는 친정같다는 말을 자주 하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회원들이 계속 남아있고 활동을 지지해줄 것 같은데, 그런 마음들이 없으면 언젠가 자기 요구조건이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떨어져나갈 사람들이니, 회원과의 관계맺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경험인 것 같아요. 내가 형영이와 정은이와 관계맺기가 잘 돼서 살아남은 것처럼.

Q. 성장시키고 있는 사람은 있나요? 어떤 방법으로 성장시키고 있나요? 성장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함께할 사람, 마음을 좀 더 내는 사람이 있나요?

- 최해영 : 그게 민O였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지요. 지금 내가 이끌고 있는 소모임(맨발)에 오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라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거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은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시간을 내서 이 사람들의 얘기를 좀 더 들어주고, 어떻게 얘기를 잘 전달해야지 잘될까 고민 한 번 해보는 것, 그 수준인 것 같아요. 잘 들어주는 연습하고 있고.

Q. 회원교육 차원에서 스터디는 무슨 내용을 했어요?

- 최해영 : 책으로, 처음에는 공동체에 관한 책, 나중에는 현대사에 대한 책으로 하면서. 약간, 음.. 뭐라고 해야 되나, 처음에는 여기서 교육하면 정은이가 자주 하는 말이, '조직을 세워서~' 하는 말을 자주 해서, 제가 '조직이란 말 좀 안 쓰면 안돼? 무슨.. 이상한 단체도 아니고 조직이라는 말을 계속 쓰냐'고 이랬는데 나중에는 그 의미를 알겠는거예요, 내가. 이렇게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인간관계 때문에 떠난다면 몇 년 뒤를 봤을 때 내 손해가 아닐까 하는 생각(웃음)도 들었고. 그래서 약간, 더 남아있게 됐다고 해야될까.

- 이정은 : 상근활동가들이 늘어나면서 상근자들을 중심으로 시작했어요. 연제여성회의 지향과 활동의 의미를 서로 같이 인식하고, 우리가 계속 활동을 창조 해나가는데, 일만 늘어나고 영똥한 곳에 가 있지 않아야 하니까 스터디를 하자 된거죠. 책 읽고 각자 발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지역공동체 활동, 시사적인 것, 역사, 통일 관련 책, 여성주의 관련 책 등을 진행 했는데, 좀 하다보니 참가하는 사람들의 의식성장의 차이가 생기면서 다시 분화했죠. 책의 수준을 좀 더 높이고 싶은 욕구가 있는 그룹은 따로 진행하고 상근자학습은 지부장이 진행하는 걸로 나누었는데, 학습모임이 잘 진행 안되고 사업논의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흐지부지 되었어요. 다시 운영위원들 중 학습모임에 함께 할 사람을 더 추가해서 다시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Q. 지금도 계속 스테디를 합니까?

- 최해영 : 네, 요즘엔 현대사 하는데 진도가 잘 안나가요(웃음).

내가 배운 건 우리 집에 가서도 써먹지. 남편한테 가서 앉혀놓고 얘기해주고, 친정식구들 있을 때에도 한 두 명 있을 때 얘기해주고. 이번에는 연세 모꼬지 갈 때 송전탑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언니네랑 같이 놀러가는데 가서 송전탑 얘기를 가족들한테 해주고.

가족들 중에 딸들은 약간 진보적인 성향이 있어서 내가 말해주면 고맙다고 하고 좋아하지. 근데 형부나 남자들은 ‘뭐 몰라도 안되나’ 이런 주의라서, 어떤 때는 ‘처제, 그렇게 얘기안해줘도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이번에는 처제 말 들어보니 반대할만하네’ 이렇게 반응해주기도 하고. 눈치를 봐서 얘기를 꺼내야될 때와 아닐 때를 잘 가려서 해야되는거죠. 사람 많이 없고 1:1로 있을 때. 가족들이 좀 연습상대가 돼서.

남편은 잘 들어주다가, 얼마 전에 남편과 대판 싸운 일이 있었어요. 이정희 대표가 개성공단 관련해서 한 발언을 두고, ‘이정희, 그 빨갱이’라는 말을 써서, 내가 너무 놀란거예요. 이때까지 내가 하는 말을 다 흘려들었나 싶은거예요. 그래서, ‘아니, 자기 지금 어떻게 종북도 아니고 빨갱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냐’고. ‘빨갱이라는 말의 어원이나 알고 하는 말이나’고. 우리 신랑도 뻥뻥거지. ‘니 왜 그라노’ 그러더라고. 나는 집회 같은데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종북이니 빨갱이니 하는 말이 너무 듣기 싫다. 자기네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언론매체에서 그냥 쓰는 말을 따라쓰는 것 같아 너무 싫은데, 그래도 그동안 나한테 어느 정도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은 사람이 그런 말을 쓰니까 너무 듣기 싫다, 그렇게 말했어. 그러니 남편은 ‘내가 니 보고 그랬나, 니가 이정희 골수팬이냐’ 뭐 이런 말을 썼어요. 그래서 ‘아니, 내가 이정희는 아니지만, 뭐 그렇게 좋아하는건 아니지만, 이정희씨의 뜻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그 사람한테 빨갱이라고 하는건 나한테 빨갱이라고 하는 것 같다’며 싸웠어요. 우리 신랑도 내가 하는 말이 기분 나빴고, 반응이 쇼킹했대요. 한 달 동안 말을 거의 안하다가 한풀 꺾이고나서 다시 얘기했어요. 서로 앞으로 조심할게 하면서 마무리가 됐죠.

우리 자매들은 이제 전부 다 선거하러 가요. 선거할 때 되면은 엄마랑 언니한테 누구누구 뽑아야한다고 설명 다 해줘요. 다 선거는 꼭 해야되는걸로 인식하게 됐죠.

Q. 연세지부에서 회원들의 성장을 위해 어떤 것들이 있어요?

- 이정은 : 운영위원회의를 리더들의 성장의 교육 훈련의 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일상적으로는 회원만남의 날에 항상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요. 여성회에서 지부들이 전체 들어가야 하는 교육을 선정하여 강사를 파견하여 교육이 진행되기도 하고 지부에서 그 달에 필요한 이슈활동을 가지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간부 양성을 위한 교육으로 활동가교육, 지부리더교육, 조직가교육 등이 필요에 따라 진행되죠.

회원들과는 주로 엄마학교, 도서관 학교, 아빠학교, 안전한 마을 만들기 활동가 교육 등의 교육이 진행 되면서 자신의 삶과 사회를 알아가는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운영위원회의는 어떻게 진행 되나요?

- 이정은 : 운영위원들이 핵심활동가들이고 연세여성회를 만들어가는 리더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마음을 모아 팀을 이루고 지향에 맞게 잘 해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운영위원 회의지만 교육과 훈련의 장으로 운영합니다.

운영위원들이 자기의 역할이 뚜렷하게 있으면서 운영위원회에 들어와야 본인의 역할을 분명히 자각하면서, 자기가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참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엄마모임 할 때에는 거의 15명~20명 정도까지는 전원회의를 했어요. 전원회의를 하다가 사람이 많아지고 반이 만들어지면서, 반장과 총무를 중심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거죠.

운영위원회도 하나의 팀이잖아. 어느 소모임보다 이 팀이 최상의 팀이 되어야 하는 거고.

그 중 하나는 이 팀 성원들이 서로 잘 알고, 친해지고, 우리가 하는 활동의 의미도 이 사람들이 제일 잘 알아야되는거고.

그래서 2008년부터 운영위가 제대로 가동됐어요.

2008년부터 한 게 마음나누기, 이슈나누기였죠. 이 두가지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보통 3시간 정도 회의를 하

면, 그 중에 1시간~1시간반을 마음나누기와 이슈나누기에 할애하게 되더라고요. 나머지 시간을 의논하고, 토론하는 안전다루기를 하고. 앞에서 마음나누기 이슈나누기를 충분히 하니까 회의는 좀 쉽게 진행이 됐던 것 같고. 마음을 모으고 안전다루기를 하니 쉽게쉽게 처리되는거죠.

마음나누기와 이슈나누기는 운영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준비를 해오고, 마음나누기에 주로 자기의 이야기, 자기 생각들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왜 하고 있는지, 우리가 활동하는 의미도 얘기하고. 개인적인 시나 드라마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도, 얘기를 하다보면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활동과 결부해서 이 의미를 더 찾게 되는 얘기를 나누게 되더라고요.

이슈나누기는 정치의식을 갖고 정치와 세상에 관심갖도록 불러일으키기 위해, 한거였고.

이슈나누기는 본인들이 이슈를 준비해오기도 하고, 보통은 또 뭘 준비해야할지 모르겠다고 물어보기도 해. 그러면 그 시기별 역사적 사건과 관련해서 준비하기도 하고, 그때에 있는 이슈를 준비하기도 하고. 이걸 주로 새로운 이슈에 대해 몰랐던 것을 알게 되기도 하고,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벽을 깨고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거죠

같이 이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마음만 모은다고 되는게 아니고, 정치적 성향을 맞춰가는 것도 되게 필요하고 중요한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 두 가지에 많이 담겨있는거죠.

운영위를 2008~2010년까지 이렇게 계속 했어요.

하다보니까, 중간에 어떤 의견이 나왔다면, 너무 바빠죽겠는데 앞 부분의 마음나누기 이슈다루기가 너무 시간을 많이 차지한다는 의견이 나온 거예요. 계속 해왔던 사람들은 약간 적응되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사람은 회의니까 빨리 의논할거 의논하고 보고할거 보고해서 안전처리하고 끝냈으면 좋겠는데, 이것보다는 너무 앞부분만 많이 하는거 아니냐, 이걸 줄이든가 좀 없앴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운영위원들이 내기 시작한거죠.

그렇게 하니까 그 뒤에 이걸 약간 없앴어. 없애고 회의만 한거지. 그런데 오히려 논의하는 시간이 더 많이 길어지고, 회의 시간 전체가 더 길어지기도 하고, 결론은 안내고 끝난다든지. 혹은 의견이 잘 안모아지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이게 왜 이럴까 얘기하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회원들에게 취지를 다시 설명해서 마음나누기와 이슈를 다시 꼭 하자고 얘기하게 된거예요. 그래서 마음나누기, 이슈다루기를 한 1~2년 안했을거야, 그러다가 다시 부활시킨거지. 다시 중요하게 생각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Q. 그전에 하지말자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래도 계속 하자, 이렇게 하지는 않았나보네요?

- 이정은 : 이게 내가 2010년까지 지부장하고 2기 지부장이 하면서 스스로 좀 버거웠을 수도 있지. 주 지부장도 운영위원들이 부담스러워 하는데 굳이 힘들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거지요. 새롭게 구성된 운영위원들이 핵심적인 내용으로 회의중심으로 하면 좋겠다는 요구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요구를 받아안아서 진행한거죠.

이렇게 진행하다보니까, 마음나누기, 이슈나누기를 통해서 진짜 운영위원들이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죠. 회의이긴 한데, 그 3시간이 교육의 장이 되기도 하고, 소통의 장이 되기도 한거죠. 그리고 본인들의 생각을 얘기하는 훈련의 장도 되는거죠.

운영위원회가 훈련과 교육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면서, 그 운영위원들이 자신이 반 모임을 진행하면서도 운영위 진행하는 형태를 흉내내서 한다든지. 그래서 이야기 나누면서 되게 많이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들이 많았다고 하거든요.

교육도 다 이야기나누는 형태로 진행된게 좋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운영위가 그런 식으로 진행되니까, 운영위원들이 자기 반모임에 가서도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식으로 반모임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이 운영위원들이 각 자기 소모임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 자기가 챙겨야할 사람들이 있는거죠. 연제여성회 전체에 일이 있거나 같이 챙겨야할 때에는 운영위원들이 자기가 맡은 반 회원들을 챙기는 과정들이 있

있죠. 그러면서 또 훈련되고. 그러면서 본인의 적극성이나 자발성이 더 생겨지고.

Q. 부산여성회 차원에서 회원교육, 간부교육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이정은 : 부산여성회에서는 주로 간부교육을 중심으로 진행해요. 일상적으로는 매월 1회 활동가 모임을 하면서 정세와 이슈를 읽는 교육이 진행되고, 지부장교육과 사무국장단 교육을 매년 초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성회의 활동목적과 자신들의 활동목적을 맞추는 내용, 여성운동과 사회운동을 알아가는 교육입니다.

올해는 간부교육의 내용을 여성주의, 진보적 민주주의, 근현대사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신입회원교육도 여성회 본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입회원이 되어 3개월 정도 지부활동을 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여성회활동소개, 여성주의, 민주주의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Q. 2기 지부장으로 가장 힘든 점은 뭔가요? 지금 3년차죠?

- 주형영 : 다 힘들어요. 기존에 운영하던 걸 잘 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고, 어울마당의 방향성을 놓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부담, 회원들을 성장시키면서 운영해야한다는 부담.. 사업이 우리 회의 목적과 맞게 진행 되는지 점검하고 평가하는 일들, 차기 지부장과 운영진을 구상해야 하는 어려움...

Q. 장기적인 과제와 고민들인데, 일상에서의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 주형영 : 일상에서는 상근자들과 소통하고 역할을 나누고 공유하면서 운영하는 것, 회원들과의 만남을 통해 요구를 파악하고 관계를 맺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Q. 어렵고 잘 해야되는 것만 얘기하는데, 지부장이 되고 좋은 점, 잘한 점, 자랑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주형영 : 3년 동안 도망 안가고 꾸준히 하고 있는 것(웃음)... 파토안내고 잘하고 있는 것(웃음)

심각한 문제를 단순하게 보는 여유가 생겼어요. 옛날에는 마음에 쥐고 있었는데...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것도 장점이지요.

엄마학교, 도서관 학교를 준비하면서 마을에서 엄마들의 역할을 고민하고 모델을 만들고 있어요.

막연하게 활동을 해 왔다면은 지부장이 되면서 내가 하는 활동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명확하게 이해해야 회원들을 잘 안내하니깐요.

Q. 엄마학교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 주형영 : 회원들에게는 성장의 기회가 되고 주민들에게는 공동체라는 상도 만들고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엄마들이 독립된 인격체로 자신의 역할을 좀 더 확대하는 목표가 있었죠.

Q. 토곡은빛여성노인학교를 오랫동안 운영하셨는데, 이분들이 여성으로서 자각하고 주체로 나서는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요?

- 이정은 : 여성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노인문제가 남성어르신들보다 더 많아서 여성노인분들만의 노인학교를 운영하게 되었고요. 여성노인분들이 더 가부장적이고 숙명론적이잖아요. 어머니들의 삶에 대해 물어 보면 자식자랑이 대부분이에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거나 잘 말을 안하세요. 그래서 어머니들의 삶에 의미를 다시 찾아 드리고 싶어서 살아온 이야기 사진 전시회를 했어요. 자신의 삶을 자신을 주체로 보게 하는 것이었지요. 손에게 쓰는 편지 등으로 자신의 몸에게 칭찬하고 소중한 사람임을 느끼게 하는 활동이 처음에는 많았네요. 분단마다 반장과 총무를 뽑아 학교운영위 회의를 하며 학교운영에 참여하도록 하고 경로잔치에는 도움을 받는 노인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공연을 자랑하는 발표회로 운영하면서 학교, 행사, 수업의 주체로 서도록 했어요. 선거에서도 동네의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있게 투표하시고 어머니들의 변화된 모습은 감동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어머니 이야기, 딸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성평등 교육 등도 진행 했는데, 여성으로 살아온 삶에 대한 한과 서러움이 많으시고 그 아픔을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아온 삶이 너무 길었던 것 같네요.

Q. 회원들은 여성의 문제 등에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나요?

- 주형영 : 교육에 참여하는 회원과 참여하지 않는 회원 간의 차이가 있어요. 교육에 참여하는 회원들은 여성의 정체성을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도 가지는데, 일반 회원들은 여성의 문제를 피하려는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Q. 여성으로 정체성을 가진 뒤에 다른 여성들의 문제도 내 문제라는 인식으로 확산되었나요?

- 이정은 : 가정살림은 여성들의 책임이고 청소, 설거지, 아이키우기, 아이교육 모두 엄마들의 몫이고 책임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다.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몇몇 언니들이 그래도 살림은 살고 활동하고 있나? 걱정을 하지만 ...

그리고 다른 여성들이 겪고 있는 여성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의 문제로 될 수 있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여성들이 힘든 처지에 있는 여성들을 더 이해 못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개인의 문제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여성들의 삶이 마을에서는 더 민감하죠. 한부모인 가정은 동네에서 더 조용히 살고 미혼모는 더 말 할 것도 없겠죠.

여성회 활동에 참여하는 회원들은 이런 생각은 하지 않죠. 참 신기한게 평범한 엄마들이었는데 여성회 회원이 되면서 여성으로서의 자각과 여성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변해요. 교육과 실천 활동도 있겠지만 그 단체의 정서적인 분위기, 문화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도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힘을 보태야 하는 활동에도 참여하려고 하고, 주로 서명활동과 캠페인이지만...

아빠들의 생각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집안은 엉망으로 해놓고 여성회일에만 열심히 한다고 투덜대지만 조금씩 가사와 육아를 도와주고 엄마들의 활동을 인정해주고 있죠.

Q. 여성주의, 여성운동에 대한 본인의 인식변화 과정은 어땠나요?

- 주형영 : 성평등이 필요하다는 건 아는데 어떻게 실천하고 활동해야하는지를 몰랐는데, 여성회 활동을 통해 좀 더 활동에 대한 이해가 되고, (예전에는) 여성운동을 투쟁, 쟁취의 목표로 활동하는 것으로 봤었는데, 생활속에서 인간존중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지게 됐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거고.. 예전에는 가족을 위해 내 꿈을 접어야 한다는 생각이었는데, 여성회 활동을 통해 그것이 가족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걸 알게되고, 내가 하는 활동을 찾으면서 가족들앞에 당당하게 요구하기도 하고, 주형영이라는 사람의 역할, 꿈을 인정받는 것이 큰 변화였죠.

- 이정은 : 여성회에서 성평등강사단 양성교육이 있었어요. 그때 연제지부에서 형영이를 추천했죠. 형영이가 활동을 시작한지 얼마 안됐을 땐데 워낙 교육을 좋아하고 활동도 잘하니깐.. 그래서 교육을 받았는데 많이 힘들어 하더라구요. 자기 생각과 좀 다르다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렇게 불평등하게 살면서 성평등을 요구하는 것이 거의 없는 것 같고 성평등 관련 교육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성회 활동, 교육과 실천활동 속에서 알게 되고 스스로 깨닫게 되는 과정에서 나의문제, 너의 문제가 우리 여성들 모두의 문제로 생각하고 회원들과 아이들에게 설명해주는 형영이의 모습을 봤죠.

그리고 성평등의 문제를 포함하여 사회에서 여성들의 지위, 역할을 찾고 사회활동에 주체로 서는 것이 여성주의라고 말하는 형영이를 보며 저도 풀뿌리여성운동의 의미를 다시 알게 됐죠.

Q. 아이를 함께 잘 키우자고 시작해서 지금은 어떤 활동으로 확대 되었나요?

- 주형영 : 지금은 마을과 사회를 바꾸자고 얘기하게 되었죠. 벼룩시장, 영화제 이런 활동이 아이들에게 체험을 주는 것으로 활동했다면, 지금은 체험의 장이 아니라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감동과 자극을 받아서 공동체를 이해하고 안전한 마을을 만든다던지, 참여까지는 힘들어도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하는 활동이 많아진거죠. 내 아이들에게 뭔가 하나 더 해주는 엄마가 아니라 마을,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도록 하는 바램으로 활동을 해요.

Q. 지금의 활동이 풀뿌리 여성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주형영 : 자신이 하고 싶은 활동을 찾고 활동을 하도록 안내하는 것, 여성들이 움직이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풀뿌리 여성운동인 것 같은데요.

- 이정은 : 처음에 토곡좋은엄마모임을 만들었을 때, 이 모임은 아직까지 풀뿌리 여성운동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여성의 역할을 더 강화하는 것 아니냐고, 엄마들이 아이를 잘 돌봐야 한다는 역할을 더 공공화하는 것 아닌가 하고...

근데 여성들의 요구에서 여성운동을 시작되어야 하는데, 여성운동, 여성주의라는게 여성들이 당사자들인데, 여성들에게 너무 어렵게 와 닿거든요.

지금 여성들이 아이키우는 문제가 제일 고민이고 자기의 문제라서 그것에서 출발한겁니다. 결과는 그 역할을 더 공공화한게 아니라 육아, 돌봄, 안전의 문제를 개인의 몫에서 공공의 몫으로 만들어 운동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게 풀뿌리 여성운동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Q. 2011년부터 시작하신 돌봄센터에 대해서 좀 얘기해주세요.

- 이정은 : 연제지부가 활동해온 내용이 아이들 키우면서 생기는 돌봄, 보육, 교육, 안전의 문제, 안전한 마을 만들기였어요. 처음은 내 아이에서부터 시작했지만 우리들의 아이, 마을의 아이들로 확대되고, 실제로 더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가정이나 일하는 여성들에게 아이의 문제가 큰 고민이잖아요. 이런 문제를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함께 해결해나간다, 함께 돌본다, 이런 의미가 있겠지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방과후 안전하게 머물러 있을 수 있고, 저녁밥을 함께 먹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주로 자영업을 하시는 가정의 아이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일하는 여성에게 아이의 안전과 저녁밥은 너무 중요한 문제잖아요. 참여하시는 분들은 만족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회원들의 힘을 받아서 재미나고 활력있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네요. 회원들속에서 필요성이 올라와서, '우리 한번 해볼까', '그래 한번 해봐요' 이렇게 한 사업이 아니라, 공모를 통해 시작하면서 회원들과 의미를 더 만들어내고 하는 과정을 충분히 못가진거죠.

이 사업에 참여하는 회원들이나 진행하는 팀들은 의미있어해요.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정의 아이들이 와서 머물고, 보람도 있고,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걸 지켜보는 회원들은 여기가 도서관으로 만들었고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도서관을 만들고 1년 후에 돌봄센터가 들어오면서, 뭐라할까... 약간 돌봄센터의 공간으로 뺏겼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돌봄센터에 대해서 약간 이야기를 나누거나 평가를 하면, '우리들이 다 원해서 한 사업이 아니지 않냐'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근데 연제지부가 예를 들면 어린이날행사, 경로잔치, 영화제 등 다양한 활동이 다 첫 시작이 공모사업이 아니었던데요. 공모사업으로 안하고, 이런 큰 행사들도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던게 익숙해져 있었던 거죠. 우리가 역할도 나누고 돈도 모으고, 활동의 의미도 찾고, 그렇게 활동의 주체가 되는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해에 그럼 우리가 이 형태로 공모를 한번 넣어볼까, 이런 식으로 사업을 정착해 나갔거든요.

- 박영미 : 참 행복하게 일한거다, 그치?

그럼 그걸 사람들에게 다 공개를 해야지. 다 공개를 해서 지원해준다는데, 우리가 어떤 지원을 받을거고, 어떤건 안받을거고, 우리가 우리 계획을 짜고, 그 지원사업을 어떻게 활용할건가, 이렇게 가야지. 주민들, 회원들이 주도권을 놓치면 안되는거지. 주체가 안되는거지. 주체라고 안느끼는거지. 어느 순간에. 그리고 주도적으로 계획한 사람들은 회원들이 안받쳐주니까 힘들고, 지원해준 쪽에서는 언제까지 해내라는 식으로 조르고.

Q. 연제여성회의 제일 핵심사업은 뭐가요?

- 주형영 :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이요.

처음부터 진행해온 사업이라 그냥 이어받아서 사업해온게 있죠.

안전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했지만 활동을 계속하다보니 내용과 방향을 잡게된 것 같네요. 안전에 대한 다양한 영역이 있고 우리가 말하는 안전은 시스템에 대한 안전이 아니라 일상적인 안전이죠. 일상의 안전은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사람을 알아가는 것,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알아가면서 안전의식을 회복하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과제를 만들어가면서 함께 하는 것이죠.

다른 단체들과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함께 힘을 실어가는 과정이요.

Q. 연제여성회가 제안해서 만드는 네트워크인가요? 어떻게 진행하게 됐나요?

- 주형영 : 연제여성회만의 활동이 아니라 마을전체로 확산되길 바랬어요. 그런 방향을 찾다보니 마을에 있는 단체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함께 하도록 요청하게 되고 마을에 있는 단체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어린이날 행사를 같이 했는데 평가가 좋게 나왔고 연제여성회가 하는 활동을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을 모으게 되었고 향후 네트워크를 만들어 공동의 과제로 하자는 일부 합의가 생겼어요.

- 이정은 : 어린이날 행사를 주민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진행해보자는 취지로 마을에 있는 아동관련 활동을 하는 단체, 학원을 만나게 되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 마을의 행사를 공동으로 진행하기도 하고 안전한 마을만들기 활동에 서로 힘을 보태기도 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연제구 교육희망네트워크는 2011년에 만들어 활동공유와 이슈해결 활동을 하였고 지금은 마을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활동을 함께 기획하고 진행하는 마을네트워크를 구성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물론 현재는 연제여성회가 제안하고 주도해서 하고 있어요.

Q.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 좀 더 얘기해주세요?

- 이정은 : 처음부터 안전한 마을을 만들겠다고 시작한 건 아니고요. 아이키우는 문제가 엄마들 개인의 몫이 아니라는 것을 엄마들이 알게 되고, 아빠모임이 만들어지면서 아빠들도 돌봄과 육아에 참여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가족의 문제 또한 개인의 영역이 아니라 공공의 문제로 인식하게 되기도 하고, 사회가 점점 흉악해지고 아동,여성 관련 끔찍한 사건들이 생기면서 마을의 안전과 사회의 안전을 만들어 가는 활동을 하게 된 거지요. 아이키우고 가족을 돌보고, 마을에서 자원봉사하는 곳들이 엄마들 개인이 떠안아야 하는 몫으로 생각했던 것이 마을과 사회의 공공의 몫이라는 것을 깨달아가고 실천해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얼마전에는 우리가 ‘안전한마을만들기 사업을 언제부터 어떤 사업들을 하게된거지?’하는 얘기들을 모아봤어. 처음에는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하고 활동하는 거였다면, 회원들의 의식과 활동이 성장하면서 마을현장을 바꾸어가는 활동을 포함해서 안전한 마을만들기 활동을 진행하게 된거죠.

2008년에 학교앞 문구점에 팔고 있는 불량식품을 우리 지역의 학교 앞 문구점에서 없애자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문구점에 팔고 있는 불량식품을 골고루 사와서 그 성분 분석도 본인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인터넷 뒤져서 다 했어요. 그 결과를 분류해서 홍보판을 만들어 길거리에 전시회도 하고 교육도 열고, 학교에도 전시하는 활동을 했죠. 그래서 애들이 불량식품을 실제로 안 사먹거나, 아이들이 살 때 성분이 어떻게 들어있는지 보거나 유통기한을 보고 사는 모습들이 나타났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뿌듯해하고, 아이들도 변하고 실제로 아이들이 안사먹으니 문구점에 파는 것도 좀 없어지기도 하고, 다 없애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연제구에 ‘여기는 불량식품 안파는 문구점이다’를 인증하는 그린스티커 붙여주면 안되겠냐는 것을 우리가 제안하기도 했죠. 이런 것들은 실제로 현실화는 안되었지만 그래도 이런 제안을 우리가 하기도 했다는 것이 성과이지요.

2009년에는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를 했어요. 학교앞 통학로에서 아이 사망사고가 나면서 통학로 바꾸는 활동을 시작했어요.

사건나자마자 바로 ‘우리가 움직이자’, ‘우리 지역에 엄마모임이 있는데도 이런 사고가 더 이상 일어나면 안되겠다’고 하면서 팀 꾸리고 현장조사하고. 회원들끼리 초동팀 꾸려서 현장조사하고, 그걸 바탕으로 설문지 만들어서 학교에 설문통계조사하고, 그 설문조사 항목 안에 함께 참여할 엄마들을 모았어요. 학부모들이 40명 정도가 함께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분들에게 다 연락을 해서 오라고 했어요. 안전한 통학로만들기 활동을 더 확대해서 함께할 사람들을 모집을 한거지요. 실제로는 몇 명 안왔어요. 학교에 설문지를 넣어서 담임선생님이 보내준 설문지니까, ‘할게요’라고 표시는 했는데 막상 오지는 않은거지요.

그래도 활동해본 경험이 있는 우리 회원들이 움직이니가 일이 되더라고요. 통학로를 시간대별로, 요일별로, 비오는날, 맑은날, 어떻게 애들이 잘 다니고 있는지 팀별로 작업을 하고, 회의도 하고, 대안도 만들었어요. 대안 만들어서 경찰청, 구청에 보내고, 답변도 받았지요. 그리고 바로 신호등 만들어지고, 차 없는 거리 만들어지고, 끊겨진 인도 만들어지고, 우리가 요구한게 다 됐어요.

이 활동 속에서 통학로가 안전하게 바뀐 보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회원들이 많이 성장을 했어요.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회원들이, 본인이 조직의 힘, 함께하는 힘을 보게 됐다. 이 활동의 의미를 알겠다, 이런 필요성을 많이 느꼈다고 평가하더군요.

2010년에는 “성평등한 마을이 안전한 마을이다” 활동을 1년 동안 했어요. 2010년에는 요 주제로 활동을 하자고 해서 교육, 활동, 어린이날행사, 영화제 등등 모든 내용을 이 제목을 다 붙여서 했죠. 주제로 활동하기 시작한게 2010년부터지. 아빠들도 성평등교육을 하고, 엄마들, 청소년, 노인학교까지 성평등교육을 다 했어. 성평등한 마을이 안전한 마을이다라는걸로. 그런데 안전한 마을이라는 것이 개념이 너무 넓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주제를 잡아서, 안전한 마을을 상상하고 만들게 되었지요. 이때부터 ‘안전한 마을 만들기’라는 말을 본격적으로 사용했어요. 그전에는 그런 활동을 해도 우리가 안전한 마을을 만들고 있는 활동이라고 정확하게 딱 말로 규정을 내리지는 못했었거든요.

2011년에는 “폭력없는 마을이 안전한 마을이다” 이래서 전쟁반대, 평화 이런 주제로 하고,

2012년에는 “함께 돌보는 마을이 안전한 마을이다” 주제를 잡아서 하나씩 포인트로 한거죠. 예를 들면 영화제나 어린이날행사를 매년 하잖아, 그때 해당 년도 주제를 넣어서 그 주제에 맞는 행사를 만들고 내용을 담아내고 교육을 하는 거죠. 2012년은 돌봄센터 개소하면서 함께 돌보는 마을을 주제로 했어요.

2013년 올해는 “아이가 안전하고 엄마가 안심하는 마을이 안전한 마을이다” 주제로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렇게 주제화되고 구체화된 것은, 이걸 공모사업을 잘 활용한 덕분인 것 같아요. 공모사업을 내면서 우리가 1년의 계획을 잡고, 주제도 정하고. 우리가 하는 사업이 이런거구나, 하면서 체계를 잡거나 하는 것도 어찌 보면 공모사업의 덕분이기도 하지요. 그냥 막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이제는 좀 미리 주제와 내용을 정해서 운영하는 것도 의미가 크죠.

Q.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

- 주형영 : 참여하는 회원들은 평가가 좋아요. 잘하고 있고 필요한 활동을 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힘이 나요.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회원들, 주민들을 변화시키고 움직이게 하는 동력을 익히고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 최해영 : 다른 사람이 많이 변했으면 좋겠다는 것 보다 내가 하고자 했던 것이 뭔지를 항상 생각하고 그 마음을 잊지 않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 이정은 : 엄마모임에서 지역의 여성단체로 성장하여 풀뿌리 여성운동을 하고 있는 회원들을 보면 희망이 보인다. 특별한 활동가가 하는 운동이 아니라 지역의 평범한 여성들이 자신의 삶과 지역, 사회에서 스스로의 문제를 보고 변화시켜 나가는 활동속에서 주인으로 성장하는 우리 여성들이 희망입니다. 여성들에게 강요되어진 돌봄과, 육아가 마을이 함께 해결해야하는 것으로 만들어 내고 사회의 영역으로 확대 시켜나가는 활동들이 평범한 지역 여성들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큰 희망입니다.

울산 울주군 구영여성회

◇ 창립일: 2005년 12월 (사)울산여성회 울주군지부 창립

◇ 창립목적:

(사)울산여성회 울주군지부는 울주군 지역 여성들의 권익향상 및 양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성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특히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공동체문화를 만들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창립

◇ 주요사업

- 황금뚝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책읽는 마을만들기 사업
- 울주군작은도서관협의회 활동
- 지역여성들을 위한 교육강좌사업
- 아이들과 함께 하는 생태놀이 활동

◇ 주요활동연혁:

- 2005년 12월 (사)울산여성회 울주군지부 창립
- 2007년 3월 (사)울산여성회 울주군지부 부설 황금뚝도서관 개관
- 2007년 6월 황금뚝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활동시작
- 2009년 11월~ 울주군 범서읍 구영지역 도서관 모임 구성, 활동시작
- 2010년 도서관관장모임 활동
- 2010년 9월 구영여성회 발족
- 2012년 울주군 작은도서관 조례제정을 위한 활동, 조례 통과 성과 냄.
현재 울주군 전체지역으로 확대하여 '울주군작은도서관협의회'로 4년 여 활동 중
(황금뚝도서관+11개 아파트도서관으로 구성)
- 2012년 9월 한국여성재단 리모델링 사업 신청 리모델링 진행
- 2012년 범서가 제외된 울주군 무상급식 대책위 활동 전개 (범서지역 7개 단체와 함께 연대활동)
- 2013년 비리사학 흥명고 천상이전으로 인한 천상 공립고 설립 대책위 활동 전개 (범서지역 아파트 및 이장단, 학부모들과 함께 연대활동 현재 진행 중)
- 2013년 현재 독서모임(청소년부모독서모임 '칭출어람', 책모임 '너울'), 생태모임('온새미로' '골목대장' '생태엄마모임'), 소띠엄마모임 등 소모임 활동 중.

◇ 회원수: 약 100여명

◇ 부설기관: 황금뚝도서관

» 설립이유: 지역적으로 소외된 울주군지역에 도서관을 통해 아이와 어른이 성장하고 책을 통해 책읽는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의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 하기 위해 설립.

- » 개관: 2007년 3월
- » 구조와 체계: 관장,수서팀장,프로그램 기획팀장
- » 월 1회 자원봉사자 모임(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해 논의)
- » 주요활동
 -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도서관활동(울주군작은도서관협의회 활동)
 - “책과 함께 크는 아이”프로젝트-정기적인 유아,초등 독후 프로그램 진행
 - 지역여성들을 위한 교육강좌사업

울산 울주군 구영여성회 인터뷰 (요약정리본)

§ 인터뷰 참가자 : 강귀전(구영여성회 회장), 배혜옥(구영여성회 사무국장), 김연경(황금동도서관 관장), 이은정(울산여성회 부회장, 전 울주군지부장)

1. 강귀전 (구영여성회장)

Q. 시작단계에 대해서 먼저 여쭙볼게요. 언제부터 울주군에서 활동을 시작하셨죠?

2006년 8월부터 여성회 상근을 시작했어요. 울주군지부는 2005년 말에 창립했었고, 저는 그 다음해에 들어왔으니, 창립멤버는 아니죠. 제일 처음에 울주군지부를 조직하게 된 과정에는 사실 저는 없었기 때문에 잘은 몰라요.

Q. 그럼 샘이 활동을 시작한 시기부터 물어볼게요. 울주군지부를 처음 시작할 때 회원은 얼마나 있었나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에는 회원이 50명은 넘었어요.

저는 맨땅에 헤딩은 아니었죠. 우리가 관리할 회원들이 꽤 됐었어요.

제가 제일 힘들었던게 회원들 얼굴과 이름을 전부 다 매치시키는데 한 1년쯤 걸렸어요. 잘 안 나오는 회원들은 내가 잘 모르니까. 뒤에 들어서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다는게 굉장히 힘들고.

Q. 그 당시에 회원들이나 지역 여성들에 대해 어떤 조직화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했는지 얘기해주세요.

그 당시는 지금 여성회 고민과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전업주부 위주로 갔던 것 같아요.

여성들이 스스로 성장하고 설 수 있는 프로그램,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고민하는 것들, 이런 것이 맞물려있었던 것 같아요. 활동가그룹을 키워내는 교육이나 프로그램도 많이 애를 썼던 것 같아요.

대중사업은 뭐 끊임없이 벌였던 것 같고. 엄마학교, 벼룩시장, 전통놀이마당 등으로 대중적으로 여성회를 알릴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많이 했어요. 저희가 황금동도서관이 있으니까 도서관 이름으로도 계속 사업을 했구요.

Q. 엄마학교 얘기를 좀 해주시죠.

엄마학교는 2007년~2009년 동안 매해 엄마학교 이름으로 총3회를 했고, 매회 3~4회 정도 강좌를 했어요. 해마다 엄마학교를 통해서 회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어요. 엄마학교는 이 지역에서 여성회를 알리고, 비회원들을 여성회로 오게 하고, 여성회 조직으로 묶고, 키우는 장이었죠.

엄마학교를 경험했던 분들을 회원으로 조직하고, 사후로 한 개 소모임 정도에는 참여할 수 있도록 했었어요.

당시에 상근자 3명이 나눠서 모든 모임을 100%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이야기, 정치에 대한 이야기, 여성으로서의 자주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하고, 굉장히 알차게 진행하고, 한명 한명 챙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Q. 엄마학교나 대중강좌를 하면서는 후속활동이나 조직을 어떻게 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었나요?

초창기 활동하면서 3명이 회의를 할 때마다 사람 중심으로 챙겨보자, 사람을 놓고 매달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사업을 할 때에도 예를 들어, 엄마학교 4강을 진행한다고 하면, 4강 이후에 이 분들의 후속 조직화를 어떻게 할 지를 놓고 굉장히 토론을 많이 했었어요. 저희는 어떻게든 동아리 활동을 하도록 했죠.

동아리 활동을 하는 회원들과 아닌 회원들 사이에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만남의 횟수도 다르고, 성장과정이나 기회가 없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거의 동아리로 굴러갔었어요. 새로 엄마학교같은게 끝나면서 동아리가 만들어 지고.

그래서 주로 동아리로 활동하면서 여성회 안에 들어오게끔 했어요. 그렇게 조직화된 묶음 안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짜서 직접 진행하거나, 본부에서 진행하는 활동가교육프로그램도 있으니까 그런걸 들고오기도 하고.

그리고 교육으로만 되는건 아니고, 저희는 황금동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활동과 결부해서 역할을 주면서 같이 했

었어요. 그 안에서 회원들이 역할과 활동 속에서 많이 커져갔던 것 같아요.

Q. 그 때 동아리들은 엄마학교와 내용적으로 관련된 동아리를 했나요?

첫 해에 ‘좋은엄마가 되기 위한 동아리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했죠. 근데 이게 바로 탄력을 받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모였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아놓고 저희도 솔직히 주춤했었어요. 첫해에는 밀해야할지 잘 몰랐던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볼래?’ 이렇게 물어보면, 주로 엄마들이 고민하는건 아이들에 대한 죄책감이나 육아와 관련해서 본인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교육을 봐야할지 모르겠다, 함께 좀 풀어보자, 이런 거였죠. 그런 것에 관련된 육아서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하다보니 어느새 책 모임으로 가버린거죠. 책을 매개로 아이들 키우는 얘기를 계속 해 나가고.

어쨌든 엄마학교를 한 해 하고나면 반드시 동아리 한 개를 만들었어요.

두 번째 엄마학교 때에는 유독 천상 쪽에서 나이대가 있는 언니들이 엄마학교를 들은거예요. 그래서 2회 엄마학교를 마치고서는 청소년 부모모임을 만들었어요.

Q. 엄마학교를 3기로 마무리한 이유가 있나요?

3기 강좌를 할 때 마지막 강좌가 생태교육이었는데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그래서 2010년에는 엄마학교라는 타이틀은 빼고 생태학교로 했어요. 제일 처음 두 해 동안은 비회원들이 와서 폭발적으로 회원들로 들어오게 되었다면, 3회쯤 되니까 포화가 되더니, 4회쯤 되니까 거의 회원들 위주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 세월이 흐르면서 이 지역도 많이 변했어요. 제가 처음 8년전에 들어왔을 때 볼모지였던 것과 비교해보면, 다른 주부교실이나 여성조직들도 많이 들어오고, 지역 내에서 강좌를 통해서 여성들의 욕구를 충족해줄 수 있는 것이 여성회 외에도 다른 곳들이 많이 생겼어요. 시간이 지나오면서 여성회 말고라도 여성들이 활동할 수 있는 지점이 많이 생겨난 것 같기도 하고.

좀 패턴이 달라지면서, 엄마학교 이름으로 하던 식의 강좌는 스톱한 것 같아요.

Q. 대중강좌의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건가요?

제가 제 경험으로 다르게 느끼는건, 요즘은 대중강좌가 쉽지 않거든요.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여러 곳에 그런 요구를 받아안을만한 곳이 많거든요.

제가 도서관 활동을 하면서 도서관협의회를 만들었어요. 도서관협의회가 해마다 도서관학교를 하고 있어요. 올해 4회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걸 3년 하면서 비교는 되는 것 같아요.

도서관학교에 70~80명씩 오거든요. 하루짜리 교육인데, 타겟이 각 도서관별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로 명확한거예요. 1년에 1번 도서관학교하는 날은 우리들만의 동창회처럼 만들어보자. 정말 구름떼같이 오더라고요.

그동안 엄마학교 이외에도 다른 여러 대중강좌를 해보면서 쉽지 않았던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도서관학교 하면서는 다른 양상이더라니까. 올 대상을 어떻게 타겟을 삼았는가, 그들의 요구에 어떻게 접근했는가와, 그냥 열어놓고 오세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것 같더라고요.

Q. 황금뚝도서관이 언제 개관했지요? 지부 사무실 옆에 조그맣게 공간을 만든거죠?

도서관은 2007년 3월부터 시작했지요. 울주군여성회 사무실 안에 한켠으로 시작했어요.

도서관을 처음 만든 당시에는, 2006년부터 유아엄마모임을 하고 있었고 다른 소모임이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초창기에 유아엄마모임에서 한번 만들어보자고 했었죠. 그 당시에는 이 동네에 아무런 도서관이 없고, 군립도서관은 차를 타고 몇십분 가야되고. 걸어서 갈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었죠.

처음에는 회원들만 책을 빌릴 수 있는 공간으로 했죠. 작년부터는 지역으로 오픈했어요. 처음에는 바코드 프로그램도 없었어요.

도서관이 가지는 공공성과 관련해서, 여성회 회원들만 책을 빌려갈 수 있는 구조에 대해서 고민해야하는 시점이 어느 순간에 왔고, 토론을 해서 오픈을 했죠. 그리고 여기 신규영지역에 새로 생긴 아파트들에는 다 도서관이 있

는데, 자기 아파트 주민들만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파트 주민이 아니어도 빌라지역이나 인근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민간도서관이 필요하다는 고민에서 오픈했죠.

Q.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가지는 고민이나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나요?

초창기에는 여성회활동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매개로 도서관으로 만들었던 측면이 크고, 여전히 도서관은 구영여성회 활동의 매개인데, 하면할수록 도서관을 어떻게 바라봐야하는가, 계속 고민이 많이 돼요.

이걸 매개로 보면 여성에게 타겟으로 가게 되고, 도서관을 중심으로 보면 도서관 프로그램 중심이 되어하더라구요. 그 중간쯤에 애매하게 걸려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어느 순간엔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또 하나는, 한 해 평가를 하다보면 운영위원들이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언니, 저는 누굴 여성회로 데려오거나 또는 사업을 함께 할 때 도서관은 편한데, 여성회는 왠지 부담돼요’ 이렇게 구분을 하는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얘기를 해왔죠. 여성회가 도서관이고, 도서관이 곧 여성회다. 그렇게 얘기해왔지만, 어느새 도서관과 여성회가 그들의 머릿속에 분리가 될 때가 있는거죠. 그것도 5년 이상된 운영위원들이 그런 말을 할 때에는, 그런 고민이 들때도 있죠. 차라리 여성회가 도서관을 만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여성회가 온전히 여성회로만 바라봤었다면 어땠을까.

그렇게 생각하게되는 일들이 좀 많았어요.

혜옥 씨 같은 경우도 도서관 관장을 그만두고 구영여성회 사무국장을 하게 되고, 새로운 관장이 들어서게 됐을 때, 원래 처음에 했던 일이니까 얼마나 애착이 많겠어요. 그러니 ‘언니, 저는 사무국장보다는 관장 일을 더 하고 싶어요’ 이런 메시지라든지. 그게 같은건데, 결국은.

여성회를 만든 이유와, 도서관을 만든 이유가 지역여성들을 좀 더 만나는 매개로 만든건데, 어느새 따로 돼버린 순간.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면, 도서관 덕도 많이 봤지만, 도서관으로 인해 더 혼란스럽기도 했던.

그래서 언양여성회가 뒤늦게 발족하고나서는 언양여성회 회장한테 ‘그냥 언양여성회로 만들어라, 뭘 하지말고’(웃음).

그리고 도서관 사업을 하는 주체로서 제 고민은, 도서관 사업이 굉장히 매력이 있더라구요. 어떨 때에는 딱 도서관을 분리해서 도서관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 두 개를 잘해서 그 매개를 잘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하는 거니까 굉장히 어렵기도 하더라구요.

Q. 도서관은 문턱이 낮고 쉬운데, 여성회는 문턱이 높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요?

그 얘기가 역으로, 어떤 운영위원들에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국은 정치색이거든요. 이 얘기로 시작했는데 결국 정치색 얘기로 된 적도 있어요.

‘언니, 제 주변에 사람이 있구요, 여성회 얘기도 막 해요’ 그 회원도 사람을 데리고 오고 싶고 회원이 많아졌으면 하는 자기 욕구가 있는데, 얘기를 하다보면 ‘거기가 좀 정치적이잖아’ 라는 말을 들은 적도 있다고 저한테 말을 하더라구요.

근데 참 신기한건, 그걸 극복하는 과정이 여성회에 들어온 시간과 일치하지는 않더라구.

우리 삶의 정치나, 우리 여성들이 좀 더 제대로 된 세상에서 살려고 여성회를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활동한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여전히 부대끼는 분들과, 그걸 턱 넘어서는 분들이 다르더라구요.

Q. 정치와 관련한 부분을 여쭙볼게요.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거나 꺼려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구영여성회 차원에서는 정치활동을 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치활동을 여성회가 하는건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구영여성회 상근자가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거겠죠. 상근자들이 돌아가면서 선거운동 결합하기도 했죠.

끊임없이 회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중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소모임에서 이러저러해서 선거 파견 결합하기로 했다고 얘기를 하고 갔었죠.

앞에서 별 얘기는 없어요. 근데 좀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는거 같아요.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하기도 할거고. 오히려 왜 그러냐고 물어봐서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경우도 있었고. 대중단체가 정치와 무관할 수가 없다. 이런 내 생각들을 얘기하고.

쉽지 않은 과정이기도 한데, 필요한 과정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 지역 엄마들이 특징이 있죠. 계급적으로 보면, 중산층은 아니겠지만 중산층에 걸맞는 삶과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는 고민이 많이 되죠. 하면서 숨이 턱턱 막히는 지점도 그렇게 있고.

Q. 여성운동은 왜 정치적이어야하나? 혹은 회원들에게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왜 선거에 결합하는지, 혹은 왜 정치활동을 하는지, 그걸 왜 적극적으로 하는지 등에 대해서요.

선거시기가 아닐 때에도 상근자들이 놓치지 않았던 것은, 우리 삶과 정치가 무관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소모임에서든 회원들 만날때든 정말 열심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든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너무 크니까.

왜냐하면, 어느 정당, 누구누구를 구분하는게 아니라, 아예 정치라 함은 나와는 무관하다고 많이들 생각하니까. 차라리 000당을 지지한다고 하면 '너는 왜 그 당을 지지하냐'라고 하면서 얘기라도 하잖아요. 그런데 아니라 아예 무관심한거잖아요. 그랬을 때 정치 자체가 우리 삶 하나하나에 미치는 영향을 얘기했죠.

선거 시기에는 이 지역에서는 더 할 얘기가 많았죠. 그동안 견제할 세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나 기존의 정치권력을 가졌던 세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면서, 여성회가 정치조직이나 정당은 아니지만, 이 시기에 어떤 한 세력이라고 해야하나, 이런걸 선택하고 지지하고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시민사회영역도 자기 영역을 만들고 활동을 해가는 독립적인 영역인데, 유독 선거시기가 새로운 정치세력이 창출 되는 시기에 이편도 저편도 아니면서 나몰라라 하고, 사실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받아안는 정치세력이 힘을 낼 수 있는데 도움이 안되면서 어려운 측면이 많았다는거죠.

그래서 여성회는 계속적으로 그냥 나몰라라 하고 있는게 아니라, 후보군이나 정치세력 중에서 여성회가 지향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더 가까운 세력을 선택해서 연대도 하고, 선거 전에도 여성단체이기 때문에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내용도 함께 만들고, 이런 내용에 부합해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세력들에 힘을 모아주고 싶다.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해야한다고 얘기해왔던 것 같아요.

Q. 우리 삶과 정치가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해왔는지? 예를 들면, 소모임 할 때라든지, 그걸 환기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교육 같은 것이 어떤 것이 있었나요?

예전에 책모임할 때 육아서를 주로 읽고 아이들 키우는데 고민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2007년 대선 때 제안을 하나 했었어요. 대선후보들이나 당의 교육 정책에 대해 역할을 서로 나눠서 찾아 오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각자 인터넷을 보고 찾아온거예요. 그런데 정말 다른거예요. 그때 한나라당이었으니까, 한나라당의 경쟁교육정책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이렇게 각 당의 정책을 비교해보면서 얘기하기가 좀 더 수월한 거예요. 이렇게 정책 하나하나가 다르다, 어느 세력을 대변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한다, 특히 여성들이 이런 것에 눈을 떠야된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한참 지나고난 뒤에도 얘기하더라구요. 너무 재미있었다고.

근데 이게 여전히 정립되지 않은, 새로운 분이 들어오면 또 계속 얘기되어야하는거니까. 그게 뭐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고. 끊임없이 사업을 해야될 내용인 것 같아요.

저는 소모임하면서 그들이 커리큘럼을 서로 추천하는데, 보통 무관한 책들을 얘기하면 저는 유독 관련 책을 넣는 편이었죠.

예전에 구영에서도 모임을 하면 그렇게 박통 얘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중에 박통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회원들이 이해를 못하는거예요. 그렇지만 경제를 살렸고, 하면서 자기 의문을 끊임없이 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네 생각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할 수는 없는거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사』도 읽었고. 『이 순간의 역사』도 읽고. 역사책도 배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혼란스러워하더라고. 왜냐면, 어디에 가서 이런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상근자 얘기를 많이 흡수하는 분들도 있고.

소모임을 한 2시간 정도 하면, 앞에 30분은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찾아와서 몇 개씩 했어요. 예를 들면, 요즘에 울산같은 경우는 택배 파업이라든지, 레미콘 파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슈가 있으면 소모임 시작할 때 돌아가는 얘기를 상근자가 해줬어요. 신문 같은건 회원들 중에 한사람이 역할을 맡아달라고 해서 일주일치 신문중에 몇 쪽지 뽑아오면 그걸 가지고 얘기도 좀 하고. 초창기에는 가능했던 것 같아요. 의식성장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확인은 안되고, 워낙 더딘거라서.

Q. 요즘에는 모든 소모임에 상근자가 다 들어가지는 않을텐데,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은 제가 들어가는 모임은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영상으로 하죠.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을 틀어주기도 하고. 하종강씨 강의 같은 것도 내용 좋거든요.

울주군 지부 안에 교육모임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미리 잡아놓고, 우리가 소모임에 못들어가더라도 틀어주라고 하고. 울산여성회 지부마다 교육모임 시스템이 돼있을거예요. 주로 사람에 대한 것, 성장시켜야할 사람과 그 사람에 대한 교육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고민하는 회의죠. 지부회의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틈이 없기도 하고, 그분들 중에 몇 명은 교육의 대상이기도 하고.

의식의 성장과 관련해서는 정도는 없는 것 같애. 한방에 때려 넣어서 할 수 있는게 아니니까.

Q. 그럼 이런건 없나요? 소모임할 때 상근자가 얘기하거나 제안하는 내용이 그냥 흡수되어버리거나 일방적인 것 같은 느낌이 있을 수 있죠?

글쎄요... 제가 책모임을 같이해왔는데, 동여성회 발족하면서 책모임이 천상여성회로 가고 제가 책모임에 결합안하기로 됐거든요. ‘애들아 미안한데, 내가 이제 구영 활동을 해야겠다’하니 난리가 난거죠. ‘언니가 들어오면 이런저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 근데 언니가 없으면 우리끼리 앉아서 뭘 어떻게 하란 말이나?’ 그러더라구요. 그때 내가 생각한건 ‘아, 내가 너무 오래 있었구나’ 한 2년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구조를 어떻게 탈피할 수 있지? 상근자가 소모임에 다 못들어가는데, 그런 고민이 들더라구요.

그때 당시에는 재미가 있었죠. 얘기를 하면 흡수가 되고, 끊임없이 되묻기도 하지만. 관계도 됐었고, 뭔가 열어놓고 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관계였으니까.

제가 회원들 연령대보다 많은 편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다보면 관계가 되고 하다보면 회원들이 흡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역으로 생각하면. 어찌다보니 좀 일방적이게 된 것 같기도 하네요.

Q. 풀뿌리운동단체들 중에서도 정당색을 드러내는 것이 주민접근성을 제한하거나 막는다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울주군에 통합진보당 여성위원장을 뽑는데, 지부장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동여성회 회장은 여성위원장 겸임을 안하는게 좋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동이 발족하면서 지부일때와 다른 것 같아요. 동 단위이다보니까 지역여성과 밀착되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말지 않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굳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런데 정당색을 드러내는 것은 안 할 수가 없죠. 여성회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여성회를 만든 이유가 이 공간을 위한 것이 아니니까. 그런 활동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주민들의 접근성을 막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보면 그게 맞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그게 여성회의 힘이 될수도 있고 다른 여성단체와의 차별성이 될수도 있겠죠. 주부교실 이런데와는 다른거잖아요. 불편한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게 또 사업의 대상이어야 하고, 오히려 더 역으로 치고 나가야할 것 같아요.

중요한건, 여성회를 왜 만들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상근자들이 이렇게 희생하면서 만든 목

적과 목표, 지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만 우리의 표현이 부족해서. 그런걸 일방적으로 느끼게 하지 않으려면... 계속 해설하고 이렇게 있어야죠. 잘 못하고 있지만, 생각이 다른 분들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거죠. 들어주고 받아주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되겠죠. 정말 정체성이 달라도 여성회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새누리당 시의원 와이프도 우리 후원회원으로 있으니까, 생각이 다른 분들도 서로 알면서도 회원으로 있어요. 이 공간에서 여성들이 활동하는게 어떻게 도움이 되고 좋은지 몰라도 다시 또 오기도 하더라고요.

예전에 호주제나 투쟁해서 바꿨던 것에 대해서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고 나서야 한다, 여성들의 삶 하나하나가 정치와 무관하지 않다, 그래서 선거나 이럴 때 가만히 있어서 뭐할거냐, 오히려 나서서 누가 우리의 얘기를 대변해서 할 것인지 찾아 나서야 한다는 얘기를 하면, 수긍하기도 하더라고요. 이탈하거나 여성회를 멀리하게 되는 분들도 있겠죠. 그렇다고 논쟁이 붙는 일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또 무상급식 같은 경우는 소리없이 지지를 많이 하죠. 여성회가 애를 써서 됐다고들 하고.

Q. 무상급식 활동에는 회원들이 많이 같이 했어요? 회원들이나 지역에는 어떤 영향이 있었나요?

범서지역 인구가 대략 2만명 정도 되는데 무상급식 서명을 4천명 정도 받았어요. 그 시작도 여성회 회원이 와서 얘기했어요. 이런 사안이 있는데 여성회가 뭐하나, 이런거 잘하라고 회비내고 있는데, 이럴 때 나서라, 해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범서지역 내에 7개 단체가 모여 여성회 중심으로 대책위를 꾸렸어요. 사실상 여성회가 거의 다 했죠. 주민들이 참여한건 그리 많지는 않아도, 공감대는 많았던 것 같아요. 작년에 4월 국회의원 선거할 때 새누리당이 무상급식 공약 풀랑을 걸었는데 범서지역만 빠지고 안하니까, 주민들도 많이 화났고 우리도 얘기하기 편했죠.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주변 학부모들에게 서명 받아오기도 하고, 학부모총회 하는 날 학교 앞에서 서명 캠페인 하면서 알리고, 분위기 좋은 학교에서는 학교 운영위 모임까지도 1~2군데 했죠. 나중에는 주민간담회도 하고. 여성회가 일하면서 되게 활력도 됐던 것 같아요. 회원들의 요구에 힘입어서 시작을 하고, 소모임들마다 다 얘기하고, 도서관 앞에 플랭카드 붙여놓고, 장날마다 나가고, 활동을 많이 했죠. 언론도 타고 이슈가 된 것도 굉장히 영향이 크고. 여기 이 지역이 완전히 새누리당 텃밭이거든요. 그런 활동을 통해서 깰 수 있는게 있었죠. 울주군에 군수 이하 의원들이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활동을 통해서 생각을 깨는 것과, 선거를 통해서 하는건 회원들이 볼 때에는 좀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Q. 구영여성회 창립하게 된 이유와 과정을 좀 말씀해주세요.

지부로 있을 때 동여성회 발족 고민을 했어요. 좀 더 지역에 맞는, 지역여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서, 라는 울산여성회 차원의 공감대가 있었죠. 근데 천상이랑 구영은 좀 달랐어요. 울주군지부가 여기 구영에 있었고 거점이 있었고, 별 불편함없이 해왔기 때문에, 굳이 동여성회를 더 해야하나, 이런 생각이 있었죠. 천상이 적극적이었지. 천상지역 회원들은 구영으로 오려면 다리를 건너 넘어와야되니까. 차를 타고 오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하나의 덩어리라고 하기도 애매한. 회원들 상황도 다르고, 연령대와 고민도 다르고. 그러면서 천상 안에서 회원들이 공간에 대한 요구가 올라오면서 동여성회 발족얘기가 됐었고, 천상여성회를 발족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나올 때 구영도 고민을 했죠. 결론적으로는 따로 하면 못할거 같아서 구영도 같은날 발족한거예요. 저같은 경우는, 동여성회 발족을 하고 경험하면서 감을 얻은거지, 감을 갖고 동여성회를 발족하게 된건 아니예요. 지역여성에게 좀 더 다가가기 위해서 동별 특성에 맞게 동여성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견이 있는건 아니구요. 근데 처음에 이 논의가 붙었을 때 그런 느낌은 좀 들었어요. '동여성회로 가야된다' 약간 일방적인 느낌. 내 준비도 안됐고. 그런 것에서 조금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Q. 창립하게 되는 과정에서는 회원들의 논의는 어떻게 되었나요?

그 과정도 천상과 구영이 달랐던 것 같아요.

천상은 회원들로부터 공간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이 얘기가 되면서, 처음에는 우리 회원이 하는 피아노학원 안에 한쪽켠에 전전세를 주고 썼어요. 재작년 봄에 공사해서 북카페 만들고, 이런 과정이 있었죠.

구영은 좀 다르게, 이미 이 공간이 확보된 상황에서 주로 해설을 했죠. 구영과 천상이 다르고, 각 동마다 특성화된 사업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동여성회로 가려고 한다, 이제는 여기가 지부가 아니라 구영여성회로 다시 태어나려고 한다. 동에 맞게 더 특성화해서 하겠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따로 무슨 얘기를 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별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그 과정에서 회원들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자기것으로 생각했는지는... 천상보다는 조금 못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던 것 같아요.

재정적인 것이라든지, 구영여성회 특화된 사업을 뭘로 할건지. 회원만남의 날 때 만나서 얘기하고, 우리 발족하기 전에 회원총회를 각각 했거든요. 총회 하면서 임원단 뽑고, 발족식은 같이 힘을 받는 자리로 하고.

발족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부녀회나 여협에도 인사하러 다니고, 초대장 다 주고.

예전에 여성회 활동은 우리끼리 활동이 많았다면, 여성회가 해를 거듭하면서 지역과 연계하고 이런 면에서는 계속 관계를 만들고 네트워크를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발족을 앞두고서 회 도서관을 다 만나고 아파트부녀회부터 해서 지역의 사람들을 쭉 다 만나고 알리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관도 읍장, 의원 다 만나고. 큰 잔치처럼 만들었죠.

Q. 동여성회 발족을 하면서 샘이 회장을 맡게 되셨네요?

동여성회장이 직접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자리이니가, 여성회의 정신을 잘 알고 있고 여성회의 지향점과 비전을 명확히 아는 사람이 해야된다, 자칫 잘못하면 여성회와 따로 놀 수 있다, 동은 동대로 굴러가고 여성회 본부는 여성회 대로 굴러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실제로 저도 맞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 우리가 사람을 발굴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든다고 하지만, 사람이 준비되어가는 과정이 분명히 존재해야되기 때문에, 제가 하게 된거죠.

Q. 동여성회로 발족하고나서 힘들었던건 뭐예요?

발족하고나서 2달쯤 정말 힘들었어요.

동별 재정을 따로 가져가니까, 재정에 대한 압박은 되게 컸어요. 그 당시에 구영회원이 125명쯤 됐는데, 그 회비로는 세도 안되는거죠. 동여성회 발족하고는 한 두 달 동안 후원 따라 다니고 재정문제부터 해결해놓고 활동을 시작한거 같아요.

동여성회는 정말 새로운거더라구. 인적 자원도 각자 다 흩어지니까, 정말 생으로 시작을 해야되는거더라구요.

원래 지부로 있을 때 도서관 운영위원도 있고 회의구조나 활동가그룹이 있었는데, 동여성회 발족하고 시작할 때가, 원래 활동했던 친구들이 다 그만두던 과도기적 시기였어요. 동여성회를 발족해서 그만두는게 아니라, 몇 년동안 활동하던 친구들이 좀 쉬고싶다, 이렇게 물리는 시기였어요. 새로 짜야되니, 그런 것도 초반에는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가 조금 고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본부사업도 있고 지부사업, 동사업도 있다보니까. 우리는 연초에 별로 계획한게 없는데, 1년을 하다보면 매일매일 일정한거예요. 그럴 때 자기 중심이 서있지 않으면 본부와 갈등이 있을 수 있거든요. 동에서는 '우리가 뭐하려고 하는데 본부에서~' 라고 할 수가 있고, 본부에서는 또 '왜 동에서 이렇게 안따라와주냐' 이럴 수 있죠.

그러면서 나왔던 얘기가, 하방도 더 많이 필요하고, 동과 본부가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 뭐든지 필요하다. 따로 갈 수 있으니까. 본부에서는 동에서 무슨 고민을 하는지 잘 모르고, 동은 동대로 너무 힘든데 본부에서 뭐 좀 지원 안해주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연양에서는 회원이 그런 얘기도 나왔다고 하더라. 회비를 1만원을 걷으면 본부-지부-동 이렇게 나누잖아요5). 그

걸 두고 '본부에 왜 돈을 주냐'하고.

그래서 그런건 우리가 교육을 해야된다고, 회비가 어떻게 쓰여지고 왜 이렇게 하고 동여성회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고, 뭘 하려고 하는지. 아이구야~싫기도 하고.

Q. 지금 구영여성회나 전체 울주군지부 회원은 어느 정도 되죠?

지금은 구영회원이 현재는 110여명쯤(발족할 당시에는 125명쯤). 새로운 분들은 계속 들어와요. 기존에 오랫동안 후원해왔던 회원들이 나가기도 하구요. 폭발적으로 들어오지는 않고, 꾸준히 들어오는데, 3개 동여성회(구영,천상,언양)을 합치면 예전에 울주군지부로 있을 때보다는 회원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언양도 동여성회 발족할 당시에 신규회원이 폭발적으로 들어왔어요. 동에 거점이 생기니까. 언양여성회가 우리 울주군지부가 생길 때처럼 딱 그랬어요. 언양은 더 촌이니까, 문화의 불모지거든요. 그러니 재작년쯤에 정신없이 들어왔죠.

천상 회원이 80~90명 정도이다가 조금 빠졌을거고, 언양 회원은 70명 정도 되다가 지금은 조금 빠졌을 거예요. 아무래도 구영이 시작한지 오래됐으니까 회원은 제일 많고, 안정적인 편이죠.

동여성회 발족하면서 울주군 지부 회원들을 거주지에 따라 동여성회로 나뉘었어요. 이사하면 다른 동여성회로 넘기고.

Q. 구영의 경우는 동의 특성이나 비전을 어떻게 잡았는지 궁금합니다. 황금동도서관 중심의 활동으로 방점을 찍은 건가요?

지부로 있을 때에는 황금동도서관이 울주군지부 부설이었는데, 구영여성회 발족하면서는 구영여성회 안으로 황금동도서관이 아예 들어온거죠. 구영의 특성화사업은 여전히 도서관으로 갔어요. 황금동도서관이 구영여성회의 약 70% 정도를 차지하죠. 동전의 양면처럼, 여성회 이름으로 지역여성들을 만날 때도 있고, 황금동 이름으로 만날 때도 있고.

구영여성회 발족하면서는 도서관협의회가 많이 컸어요. 올해가 4년째니까.

지역으로 뻗어나가는데,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역으로 간다는게 뭐가. 큰 사업을 뽐뽐 터트리면, 그게 지역으로 가는건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대중적으로 크게 사업을 했어도 돌아서면 손에 쥐는게 없는거죠. 잘하지 않으면. 물론 잘하면 사람도 남겠지만. 차근차근 사람을 챙기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되더라구요.

동여성회 발족한 이후로는 구영이 천상에 비해서는 큰 사업은 많이 안한 편인 것 같아요.

Q. 울주군 작은도서관협의회 얘기를 해주세요.

지역의 도서관 관장부터 자원활동가 등, 협의회 이름으로 사업을 많이 했어요. 도서관협의회는 제가 중심으로 많이 했어요. 협의회에서 지금은 사무국장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일부러 회장은 안하고, 회장은 다른 사람이 하도록 했죠.

도서관이라는 매개로 굉장히 많은 여성들을 만났고, 도서관협의회도 많이 탄탄해졌어요. 지금 군에서도 도서관 활동 관련해서 협의회로 문의가 오는 편이에요. 협의회가 워낙 덩어리로 조직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영에서 도서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을 거점으로 해서 만날 수 있는 것이죠.

협의회는 여전히 유효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도서관 활동을 하는 분들이 보통 진보적인 분들이 많고, 워낙 도서관의 가치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조금 다르긴 해요. 워낙 관 쪽에 걸치고 있는 분들이 많긴 하죠. 협의회도 주부교실이나 이런데 걸치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계속 사업이 필요한 분들이 많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초반에 크게 2가지를 잡았어요. 도서관활동가 교육과,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조례) 만드는 것을 중점적으로 잡았어요.

조례를 먼저 통합진보당 김인식 울주군 의원과 함께 발의했어요. 그때 그런 얘기는 조금 있었어요. '왜 하필이면

5) 울산여성회 회원회비의 배분 = 본부3, 지부3, 동4

통합진보당 의원과 함께 조례를 발의하려고 하느냐?’

또 내가 총무이기도 하고 사회를 보기도 하고, 여성회 일을 하면서 도서관을 하니깐, 도서관협의회가 여성회 아니냐는 뒷말이 지금도 있어요. 여기가 워낙 보수적인 데니까, 군에서 블랙리스트가 올라가있다는 소문도 들려요. 남편이 공무원인 언니들은 좀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도서관학교를 대중강좌처럼 집중해서 딱 하면 80명씩 몰려들면서, 타겟을 정확히 두고 올 사람과 목적을 분명히 갖고 하니 되더라는 자신감도 얻고, 하면서 흥도 났던 것 같아요.

구영은 도서관협의회를 갖고 지역으로 많이 파고들어갔어요. 대중강좌 전단이 나오면 협의회에 돌려달라고도 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아파트 도서관들에 찾아가면 열추 아는 분들이니까 인사도 하고 전단도 맡기고 사업도 하고. 그렇게 지역에 발 디딜만한 곳이 있다는게 도움이 많이 되고 탄력도 받고 그랬던 것 같아요.

Q. 지금 울주군 지부는 어떻게 활동해요?

현재는 강정희 울주군지부장, 배혜옥 울주군지부 사무국장(구영여성회 사무국장과 겸임)이 하고 있어요. 지부가 따로 있는게 아니라, 지부장이 지지지원하면서 동마다 다니면서 챙기는 구조이죠. 주로 교육, 사람 성장 관련해서 지부장이 지지지원 쪽으로 강화되었죠. 왜냐면 사업은 각자 동마다 굴러가니까.

몇 가지는 지부이름으로 하는게 있어요. 회원만남의 날을 상,하반기로 한번씩 하고, 소식지가 지부이름으로 나가요. 작년에는 지부이름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강좌사업을 한 차례 했고, 올해는 언양으로 넘겼는데. 그런 정도 외에는 나머지는 다 동으로 각자 하고 있죠.

Q. 그럼 활동비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지금 상근비가 조금 나오죠. 50만원 받아요. 그런데 안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울산여성회는 남편이 공무원이거나 정규직이면 아예 상근비를 받지 않아요. 남편도 같이 활동하거나 상근하는 경우는, 어느 선으로 조절을 하죠.

혜옥씨도 처음에는 무급으로 도서관 상근을 했어요. 지금은 받고 있구요.

그때그때 맞추는 편이에요. 우리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요, 뭐.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Q. 사실 활동가들의 기본 생활이 보장이 안되면, 활동가들이 힘들어지면서, 회원들이 활동가가 되기 어려운 분위기가 생기기도 하더라구요. 어느정도 희생을 감수해야되잖아요. 그런 건 없나요?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실제로 그런 부분도 있죠. “언니처럼은 내가 못할거 같다”는 얘기들도 해요.

예를 들어, 상근을 결심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마음에는 우리처럼 하라고 하는건 아닌데,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우리 삶이 보이잖아요. 아이들도 잘 못챙기고, 저녁 회의도 많고. ‘언니들 힘드시죠’ ‘고생하세요’라고는 말해도 내가 그 삶을 살기에는.

그렇게 봤을 때 혜옥씨의 성장과정을 쭉 한번 보는 것도 좋겠네요. 회원으로 시작해서 상근자로 왔으니까.

Q. 구영여성회 자체의 조직과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각 체계의 역할이 있을텐데, 어떻게 구성되었고 왜 그렇게 구성했는지?

동여성회 발족하고 제일 신경쓰게 이 부분이었어요. 사업 크게 벌이는 것보다, 첫 번째는 역할을 주는 것, 그리고 그 역할을 받아안은 사람이 수행하면서 성장하는 과정.

역할로는 회장, 사무국장, 관장, 수서팀장(책 선정 및 구입 담당), 프로그램 기획팀장 이렇게 있죠.

그 외에 자살한 역할들은 있죠. 도서관 총무도 있고, 3개월마다 도서관 자원봉사 접수올리는 역할도 있고, 도서관 자원봉사 시간표 짜고 정리하는 역할도 있고, 자살하게 역할을 나누려고 무진장 애를 썼죠. 역할을 가지고 여기에 오는 사람과, 그냥 오는 사람들은 다르더라구요.

회의구조는 작년까지는 구영 운영위원회(월2회)가 있어요. 웬만한 소모임장은 다 오고, 소모임장 아닌데 개별로

온 사람도 있어요. 있던 모임이 없어져도 적어도 한 사람은 남는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개별로 온 사람도 있죠. 작년까지는 그렇게 하다가, 올해부터는 도서관 쪽이랑 소통이 여전히 부족해서 임원단 회의(관장,사무국장,회장)를 짰어요. 임원단 회의에서는 생활논의, 사업논의, 교육의 내용으로 하고 있죠. 이 세 사람이 계속 만나지 않으면 소통이 안돼.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아예 교육팀으로 만들어서, 자본주의 관련된 주제 잡아서 영상도 보고 책도 토론하고, 아예 두 사람을 성장시키는 게 제일 큰 목표죠. 제가 빠져도 할 수 있게끔 핵심으로 성장시키려구요(웃음).

작년에 느슨하게 소모임장 회의를 따로 잡았어요. 운영위원회에 소모임장이 반드시 들어오는게 아니기 때문에. 들어오면 일이 편한데, 안오려고 하더라구. 그래서 1달반~2달 정도에 소모임 얘기만 집중적으로 하는 회의, 어려운은 뭔지, 고민되는건 뭔지, 우리가 도와줄건 뭔지, 이런 식으로 아주 낮은 수준이라도 서로 소통하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특히 구영에는 생태 관련 모임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모임끼리 더 소통하고, 같이 뭘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도서관자원봉사자 모임이 월1회 정도 되고, 잘 안될 때도 있지만. 오는 인원은 늘 바뀌는데, 많을 때는 10명도 넘었는데, 지금은 8명 정도. 봉사자가 계속 없어져요. 일하러 가니까, 계속. 제 고민이에요. 그래서 자원봉사자가 빠진 날에는 어디 나가지를 못하죠, 여기 도서관을 오픈을 해놨으니까. 우린 동네고 어디고 막 다녀야되는데. 관장님도 상근관장님이 아니어서 오후에는 없고.

Q. 회원들의 성장과 관련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좀 더 얘기해주신다면?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조직체계와 분명한 교육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죠⁶⁾. 운영위원회로 올리건 활동가 교육을 하던. 그냥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빠단다고 되는 게 아니라. 관계도 높아야 되지만 체계와 시스템을 통해서 그 사람과 상호작용으로 영향을 받고 이런 게 필요하겠죠. 실천 활동, 경험, 체계, 교육 이런 것들이 결부돼야 될 거 같아.

운영위원회를 한달에 두 번 하면 한번은 교육을 하고, 한번은 회의를 한다든지. 소모임마다 영상을 앞에 짧게 틀어준다든지. 이게 큰 사업을 안 해도 비집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뭐라도 하나 틀고, 자극을 받고, 그게 지속될 때 상호작용이 나는 거 같아요.

그리고 뭔가 자신이 이곳에 와서 스스로 만들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기쁨을 느껴보는 것. 이를테면 무상급식 투쟁해서 초등 무상급식을 1년을 받아냈거든요. 그걸 함께한 회원들이 함께 하는거잖아요. 서명을 각자 받았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활동해서 얻은 성과다, 이렇게 했을 때, 그걸 함께 하는 과정에서 성과를 내고 느껴보게 사람의 성장에서 정말 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Q. 우리의 목표 중에 하나가 여성주의 실현이잖아요. 그런데 엄마들이 가진 현재적인 역할이나 위치에서 출발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여성주의와 관련해서 스스로나 외부적으로 가졌던 문제의식이나 고민은 없었는지?

글쎄, 어렵네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상근자들 안에서 그런 얘기는 좀 했어요. '우리가 여성주의 시각은 좀 부족하지' 이런 얘기는 많이 하죠. 뭐, 감수성일수도 있고.

여성단체인데 여성이 엄마로서의 매개도 있는거잖아요. 사업속에 많이 녹아져있는데, 정작 여성 스스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놓쳤다고 생각하죠. 프로그램에서 봐도 여성 자신에 대한 부분 보다는, 아이 키우다보니 거기서 파생된 갖가지 부분을 하다보니, 여성 자신에 대한 기획이 부족했죠. 그걸 눈여겨볼만한 시각도 부족한 것 같

6) 참고 : 울산여성회 전체 회원,활동가 교육체계

울산여성회에서는 조직가훈련, 리더훈련을 포함해 다양한 단기 및 장기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으며, 기존활동가 교육훈련은 활동가마다 차이가 있는 관계로 지부별로 담보하고 있음. 울주군지부와 마찬가지로, 울산여성회 전 지부에 교육모임이 따로 구성돼있음.

올해(2013) 본부차원에서 진행하는 활동가 교육으로는 신입활동가교육(8~9월)을 여성운동 및 여성회 전반, 활동가로서 갖춰야할 내용 등으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신입 및 기존활동가 종합 교육을 1박2일로 계획하고 있음

고.

Q. 엄마학교나 대중강좌의 경우, 아이교육과 관련한 것 말고는 다른 내용이 없었나요?

여성에 대한 내용도 있었어요. 오숙희 쌤도 왔었고, 부산에서 여성학 관련한 내용으로 강사 섭의도 했었어요. 강의 배치도 있었죠. 여러 컨셉 중에 하나 정도는 했었던 것 같아.

작년에 울산여성회 지방자치위원회에서 자체강의를 기획했어요. 울주군에서는 제가 들어갔었거든요. 성평등의제, 성별영향평가, 여성친화도시, 등등... 4강을 나눠서 했었고, 그 중에 1강을 제가 했어요. 제가 그 준비를 하면서 느꼈던게, 우리가 정치적인 이슈를 잡거나 그런 쪽은 굉장히 발빠르지만, 여성단체로서의 전문적인 부분은 많이 놓치고 있었구나. 그래서 예를 들면, 시에서 여성 관련한 포럼을 할 때에도 여성회는 아예 부르지 않죠. 그 이유가 뻔하지 뭐. 아주 여러 가지인데, 우리가 그 부분에서 더 차고 들어가야할 부분도 있고, 시에서 우리를 정치적으로 배척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걸 다 떠나서도 우리 상근 역량으로 보면 여성주의적 감수성이나 내용적인 부분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강의 준비하면서 생으로 다 공부를 했거든요. 그게 필요가 있나 없나를 떠나서, 어차피 정책이 그런 쪽으로 진행될 것 같으면 개입을 해야되고, 동여성회 사업을 펼칠 때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되는거거든요. 예를 들면,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면 동여성회 사업을 펼칠 때 구영이 여성친화도시로 가려면 어떤 의제를 어떻게 만들어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도 해봐야되는건데, 그렇게는 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Q. 여성주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꼭 여성주의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쌤이 하려고 하는 여성운동은 어떤건가요?

‘내가 여성단체에 몸담고 있는 상근자인데, 여성운동의 마인드와 감수성을 갖고 활동하고 있는가?’가 중간에는 고민이었죠.

여성운동이라고 하면, 여성들과 함께 여성의 자주적 삶이랄까, 어떤 지향점을 향해 가는거잖아요. 다양할 수 있지만, 여성이 자신의 자주성이 실현되는 세상으로 가는 거잖아요.

중간에 정희씨하고 지부에서 여성주의 모임도 했었어요. 우리가 너무 떨어진단, 책 읽고 공부 좀 해보자는 것도 했었어요. 우리가 여성운동 하는 사람이 맞나, 지금도 자신은 없어요.

Q. 여성운동은 여성들과 함께 어떤 지향점으로 가는거라고 하셨는데, 그 지향점이 뭔가요?

세상을 바꾸는 거 아니겠어요. 여성들도 이 세상의 절반이고, 여성이 정말 자기의 자주성이 실현되는 세상으로 가는거겠죠.

Q. 지역 여성들의 삶과 관련해 꼭 필요한데 못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혹시 있나요?

제가 오랫동안 지역에 있고 여성들과 만나 얘기를 나눠보니, 말할 수 없는 여러 어려움과 문제가 있더라구요. 어느 정도 내린 결론이, 가족이 튼튼하지 않으면 힘들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가족주의가 아니라.

사업적으로 봐도 활동하시는 분들을 보면 집에서 갈등이 시작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성회 나와보니 좋으니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면서. 그런데 남편까지 아울러서 확 해버리면 사업이 더 잘돼요. 여성회 중심성도 높아지고. 여러 이유로 가족사업은 상황이 되면 계속 해보고 싶은거죠. 단기 프로젝트는 아니고 장기로 해서.

이 지역 안에서 건강한 가족 문화를 만드는데 있어서 여성회가 여성단체로서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걸 나서서 해야되지 않나하는 목적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성회면 가능하겠다는 생각도 있었구요.

Q. 그런 일환으로 부부캠프를 개최한거군요?

작년의 경우엔 사람이 많지는 않아도 부부캠프에 왔던 분들은 굉장히 만족을 하더라구요. 작년에 부부캠프에 참가했던 한 쌍은 올해 와서 후원도 매달 10만원씩 해주겠다고 왔더라구요.

그런데 조직하기가 쉽지 않더라구요. 혼자 오게 되고, 남편을 데려오고 싶은데, 남편은 퇴근도 안하고, 안오겠다

고 하고.

캠핑하고 나서 회원가입한 분이 나중에 얘기를 하는거예요. 남편이 자기 모르게 회사를 그만두고, 턱 하니 왔을 때 완전히 돌아버릴 것 같은 상황에서, 살려고 캠핑을 신청했다는거예요. 홍보전단을 보고 '아, 이거 나를 위한거다' 생각하고. 정말 자기는 헤어지려고 했는데, 제2의 인생을 살게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지속적으로 여성회가 그 고민을 하고 있어요. 오는 사람이 많지 않을 뿐이지, 정말 호응도가 너무 커서. 그래서 우리도 몇 번 고민했어요. 연결해서 해야되는 데.. 결론적으로는 올해는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혼자가 아니라 부부가 같이 와서 참여하면서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부부가 결혼해서 살면서 그럴 여유가 없는거예요. 우리도 왜 그렇잖아요. 활동하면서, 내가 내 모습을 직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힘들구나'하면서 내가 나를 어루만져주고 그러면서 그 자신감으로 그 다음 단계를 나가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부부가 서로의 상태를 알고 서로 어루만져줄 수 있는 시간을 굳이 내서 뭔가를 해보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부부가 건강하면 아이들과의 문제도 건강한 거예요. 가족 중에서도 부부사업은 참 중요한거예요.

근데 사실 동에서 자체로 하기에는 너무 힘이 버거운건 맞아요. 우리도 아는게 너무 없고. 다행히 주변에 인맥이 좀 있어서 해주고 해서는 하지만. 뭘 강의를 배치하려고 해도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는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남자들이 혼나러 온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기 싫어하고. 그건 조심을 해야될 부분이죠.

Q. 구영여성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소모임이 중요한 회원활동이자 조직방안이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소모임을 어떻게 조직하고 운영하는지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우리 회원 하나가 '동구에 작은도서관에 가니까 보드게임하는 프로그램이 있던데, 우리 황금동에서도 한번 해보면 안될까요?' 하길래, 뭐든지 해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우려되는 것 몇 가지만 얘기를 했어요.

'끼리끼리 하는 모임이 좀 그렇더라. 힘도 안받고 자족적인 모임처럼 돼버리니까, 너희들이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 나중에 이걸 도서관 프로그램으로 하든가, 배워서 남줄 수 있게 하면 좋겠다. 그걸 동의하는 사람으로 처음부터 시작하면 좋겠다'고 했죠.

그래서 보드게임 엄마모임만 1년을 준비를 했어요. 엄마들이 계속 놀아보고 준비를 하고 경험을 해보고. 그리고 아이들 모집해서 한거야.

근데 이 친구들이 참 기특한건데, 어떤게 있냐면, 보드를 하면 게임만 하는게 아니예요. 그룹별로 하다보면 문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나와요. 돌출행동이나 승복하지 못하는 아이들이나, 아니면 지가 하고 싶은 게임만 고집하는 아이들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엄마모임할 때 '재가 나빠' 이런게 아니라, '누가누가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걱정이 되고' 하면서 바꿔도 보고, 감당 못하는 애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선생님을 바꿔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그룹별로 보드를 하면 자기 애를 그룹에 넣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자기 애를 더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죠. 처음에는 보드가 그냥 보드라고 생각했는데, 아, 이게 아이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거구나. 그리고 여성회라는게 내 애만 잘 키우려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런 가치에 대해서 조금은 나눌 수 있는 모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좀 아쉬운건 결론적으로 여성회 회원만 하는 동아리로 마무리된 것은 많이 아쉬운데, 시도를 안해보건 아니예요. 지역에 오픈했을 때 너무 애들만 보내니까. 사전 예약도 안하고 갑자기 애 데리고 오면 너무 애들이 많으니까 도서관이 시장통이 되는거야. 지역에 열어놓고 싶는데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여성회와 결합력이라는 부분도 보드 자체로 하긴 힘들고, 보드게임 엄마모임을 하면서 되죠.

그동안 여러 소모임을 많이 하다보니, 이제 딱 보여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지가 느껴지니까. 처음부터 장치들을 해놓고, 평가를 해야하니까.

그리고 아이들 체험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엄마모임처럼 아이들에 대한 얘기도 하고 모임에 대해 평가하고 계획할 수 있는 모임을 낮이든 밤이든 꼭 따로 했으면 좋겠다는걸 얘기하죠.

Q. 현재는 어떤 소모임이 굴러가고 있죠?

너울 2기(월2회, 오전 책모임), 청소년부모독서모임(월2회, 저녁 책모임), 생태모임, 온새미로(월1회 주말 생태활동 소모임), 골목대장(월1회 주말 생태,놀이 소모임), 소피엄마모임, 보드게임 엄마모임(주1회 저녁, 초등 저학년팀,고학년팀) 등이 있어요.

Q. 소모임 운영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저희같은 경우는 소모임은 여전히 잘 굴러가죠. 워낙 오래된 소모임이 많아서.

소모임 안의 갈등은 좀 많았어요. 모임과 모임 사이의 트러블도 많았고.

소모임은 몇 년이 되니까, 좋게 말하면 그 안에 멤버십이 강한데, 나쁘게 말하면 자기들끼리 친해서 다른 모임을 터부시하거나 밀어내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구. 이게 구영여성회 전체로 아우르지 않으면 무슨 소모임 이기주의도 아니고, 하여튼 좀 심각했었어요.

그래서 소모임이 3년 지나면 이래저래, 한계를 좀 많이 느꼈던 거 같아요.

모임이라는 게 해보니까, 굉장히 잘 되다가도 어느 날 다 없어지거나 하기 때문에 영원한 건 없고, 좀 비집고 들어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모임은 정말 따로 가니까 되게 속상하고. 그 안에 멤버십만 높아지니까 이 상근자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Q. 소모임이 잘되는 이유와 안되는 이유가 있다고 하셨는데, 핵심적인 것은 뭔가요?

모임의 리더가 정말 중요하죠. 핵심적인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보면 리더를 세우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고. 리더를 세울 때, 물론 그 안에서 민주적인 절차가 다 필요하겠지만, '이 사람이다' 라고 보는 안목도 필요한 것 같아요.

없어진 모임 중에 갈등이 정말 심했던 모임이 있었어요. 두 소모임이 똑같이 갈등이 있었어. 그런데 한팀은 깨지고 한팀은 살아남아 있어요. 그 이유는 리더인 것 같애. 그 안에 토론 문화, 계속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 울고불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그걸 만드는 리더가 있고, 살아남은 그룹은 운영위에 지속적으로 들어와요. 저쪽(깨진 모임)은 안되는 리더예요. 여성회 소통도 잘 안됐던 것 같고.

Q. 소모임 리더와 관련해 경험적 교훈이 있으신거죠?

빠져린 경험이 있죠.

리더란 튀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착각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리더란 그렇지 않구나. 세월이 쌓이면서 점점 빛이 나는 회원들이 있어요. 말수가 없고 드러나지 않지만 세월이 갈수록 정말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구.

그 다음에 모임의 장이 여성회 중심성이 없으면 헛거구나, 사조직 되는구나, 그거. 모임의 리더들이 여성회와 동떨어진 모임이 아니라, 여성회 속에 있는 소모임이라는 입장이 분명한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소모임 회원들이 갈등이나 여성회에 대한 불만이 있을 때에도, 그 소모임장이 여성회를 바로 이해하는 모임은 그 사람이 소모임에 가서 전해주는 얘기 한 마디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되는데, 딱 뼈뺀 소모임장들은 자기 생각을 덧붙여서 소모임에 막 얘기를 하면 모임 자체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도 리더사업이 중요하구나, 경험으로 느꼈죠.

소모임이 어느날 아침에 갑자기 생겨난게 아니기 때문에 여성회에서 끊임없이 그 리더들과 함께할 수 있는 구조

가 만들어져야만 가능한 거 같아요.

제가 들어가는 모임은 확인이 되고, 여성회가 가고싶은 방향이나 함께하고 싶은 내용 이런걸 어떻게든지 같이 해 보려고 애를 쓸 수가 있는데, 자체로 가는 모임같은 경우는, 그 안의 리더들이 여성회 중심성이 없다보면, 소모임 들이 주말에도 모이고 밤에도 모이고 하는데, 저희가 그걸 다 가량이 찢어지도록 다 참여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성회는 여성회대로 가고 그 모임은 모임대로 자체적으로 굴러가는 느낌이 들죠.

근데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리더를 세우고, 리더사업을 하는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애. 그것만 되면 사실은 소모임 몇 개라도 자발적으로 그 절차를 거쳐서 활동할 수 있죠.

Q. 구영여성회에서 현재 고민되는 과제나 어려움이 있다면요?

구영도 회원중에 직장여성의 수가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일하는 여성들과 함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점이 제일 고민이 많이 되죠.

2. 배혜옥 (구영여성회 사무국장)

Q. 언제 어떻게 여성회에 오시게 됐죠?

2006년 9월에 둘째 출산을 했어요.

그전에 임신부 강의를 듣고, 여성회 사무실에 50일된 아기를 안고 왔죠. 2006년 10월에 'PC중독' 월례강좌가 있어서 절박한 마음으로 왔어요. 그래서 강의 마치고 이곳에서 여성회 소모임이나, 제가 함께할게 없냐고 물어보니까, 유아엄마모임이 있다고, 거기에 와서 활동을 하면 좋겠다고 제안이 받아서 그때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Q. 그때의 절박함이 뭐였는지, 그 내용을 얘기해주실 수 있을까요?

휴우... 저의 애기아빠가 게임중독이었어요. 그때는 그게 게임중독인지 몰랐어요. 왜냐면 그게 버젓이 우리의 생활에 밀접한 곳까지 정부가 허가를 다 내줬어요. 그래서 우리 가계가 완전 탕진을 했어요. 근데 중독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지를 못하는 거야. 항상 신랑한테 잔소리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문제의 근본을 해결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었는데, 여성회에서 중독에 관련된 강의를 한다면 전문가 쌤하고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오게 됐죠. 와서 물어보니까 심각하다더라구.

난 여성회를 통해서 그런걸 알아보게는 됐었는데, 그 이상 남편이 변화가 되진 않았어요. 악화가 됐지. 오히려 서막에 불과했지. 아직 현재진행형이에요.

Q. 강좌 이후에도 여성회에 계속 나오게 된 건 어떤 이유였을까요?

이곳에 오니까 사람들이 되게 나를 칭찬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잘 살고 있고, 넌 참 예쁘고 능력이 있고, 뭐든지 잘할 수 있는 아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허한 마음을 이곳에 와서 달래면서 활동을 했던 거 같아요. 아이들 독후활동을 했었는데, 거의 여성회를 맨날 나가서 활동하고 수업 준비하고 계획안 짜고 그렇게 계속 시간을 보냈죠.

그니까 남편에게 집중됐던 시선이 분산됐던 건 맞는데, 그게 그 사람을 케어하진 못했던 거 같아요. 자꾸 돈 관련해서 ping ping 터졌어요.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는 얘기하면 여성회 계시는 분들은 '너의 문제가 아니다, 이 사회의 문제다', 이렇게 시선을 확장시켜줬고 '사회의 문제라면 구조를 바꾸는데 우리가 힘써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나의 작은 활동들이 구조를 바꾸는 데에 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공지를 가지고 하게 됐지만, 매 순간 오는 그 경계는 같이 있는 사람이 안 끌어줬으면 지속이 가능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Q. 주변의 사람들 덕분에 계속 있을 수 있었다는건가요?

뭔가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막 내가 운동성을 가지고 막 뚫고나가야 되겠다는 마음보

다는, 제 옆에 사람들이 있었고, 저는 그 사람들로부터 따뜻한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함께 나눠야 된다고. 누군가도 저와 같이, 그런 사람이 필요한 삶을 살고 있을 텐데, 여성회에서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 지금도 그래요.

예를 들면 집이 갑자기 폭삭 망하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저는 그냥 울면서 누워만 있었거든요. 그럴 때 제가 집에 책이 많았어요. 여성회 사람들이 노끈을 들고 와서 책을 다 묶고 중고장터를 열어 다 팔아가지고 저한테 500만원인가 손에 돈을 쥐어줬어요. 그런걸 보면서 저 사람들이 자기가 수수료를 떼먹는 것도 아니고, 책이랑 그 무거운 걸 자기가 직접 싸가지고, 사람들에게 판매를 해서, 그 수익금을 나에게... 내가 뭐라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렇게 애길 하면 그 사람들은 저한테 받은 게 있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활동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했던 수많은 말이나 행동들을 두고요. 자본의 원리 속에 살아가지만 사람이 빠진 상태에서 돈으로만 굴러가진 않는다는 생각이 저는 그 때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돈이 없지만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이라도 해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걸 몸소 체험해서 그런 걸 좀 나누고 싶다는.

Q. 계속 집안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샘이 여기까지 올 수 있고, 여성회에 남아 활동할 수 있는 동력이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그거는 아무도 몰라. 사람한테 받았던 그 전율. 그걸 내가 어떻게 문장력이 뛰어난 사람하고 이렇게 해서 책을 쓰면 뭐가 나올 거 같은데 저는 그 때 그 감동이 잊혀지지 않아요. 감동, 사람에게 받았던 그 감동.

사실은 하루하루도 먹고살기 어려운데, 제가 이곳에 오는 이유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니까. 못 하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사실은 큰 것 같아요. 내가 안 도와주면, 여성회 어떡하지? 내가 받을 때면 여성회 이거 문 닫으면 어떡하지? 이 마음이 있는 거죠.

Q.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황금동도서관을 만들게 된 때의 얘기를 듣고싶네요.

유아엄마 소모임으로 시작을 해서, 제가 소모임 짱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거든요. 그 안에서 여성회 공간 한 칸을 도서관으로 만들자라는 얘기가 나와서 제가 총대를 메게 됐죠. 공간을 꾸미고 책꽂이도 사놓고, 책도 사놓고, 이런 모든 걸 유아 엄마 모임에서 주축이 돼서 하게 됐는데. 거기에 제가 소모임 짱이다 보니까 중심이 돼서 2007년에 황금동도서관을 만들었어요.

Q. 도서관 활동을 쫓 해오면서 가장 즐겁고 신나게 했던 경험, 기억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가 방학 때마다 유아 및 초등 애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학 특강을 준비하거든요. 그 때는 되게 재밌었던 거 같아요. 그럴 때 엄마들하고 같이 역할을 나누고 뭘 할지 짜고 되게 재밌었는데, 어느 순간엔가 힘들더라구요. 역할분담이 갈수록 잘 안돼서 혼자 다 해야 되는 부담감도 생기고.

Q. 왜 갈수록 역할분담이 잘 안됐을까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완전히 불이 확 붙었었는데 지금은 그 동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도서관을 리모델링(2012년)하면 더 잘될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뭘까. 고민이 많이 되고 있고.

정말 사람들의 생활상이 너무 다양한 것 같아요. 그걸 못 맞춰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됐냐면 내 아이도 그걸 들을 거니깐. 근데 그 엄마들은 아이들이 다 커버렸잖아요. 초등학교 가면 엄마들은 초등학교의 눈으로 또 다른 걸 하려고 하지, 나처럼 내 아이는 초등학교인데 유아를 대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엄마들이 많지 않다는 것. 그래서 점점 이게 커가야 되는 게 그런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다고 해서 다 요구에 맞게끔 다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여성회가 지역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하는 게 맞느냐, 회원이 하고 싶어 하는 걸 하는 게 맞느냐, 그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Q. 그런 괴리나 고민이 부딪치는 때가 많이 있었어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예를 들어, 여성회가 통일에 관련된 얘기를 회원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하잖아요. 회원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오는 건데, 자기의 시간을 쪼개 가면서 그 얘기를 듣고 싶은 요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 상근자인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적절하게 줄 것인가가 정말 난해하고 어렵고 힘들어요. 내 것도 체화가 안 된 상태에서 그걸 또 회원들한테 나누려고 하니깐, 사실은 어려움도 있고. 늘 부담스럽다고 얘기해요, 나는.

여성회는 일반 회원이 성장해서 상근 간부가 되면 그것에 대한 단계가 없고 바로 상근간부로서 해내야 되는 그게 있잖아요. 물론 나도 년차가 많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을 난 아직도 많이 못 깨부셨고 내가 여성운동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금도 얘기하고 있고. 서로가 메아리만 치고 있다는 느낌. 어려워요.

Q. 늘 부담스럽다고 하셨는데, 부담스러운 내용은 비슷합니까?

음, 정치나 통일이나 진보적인 사안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부담스러운 나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아는 바가 별로 없는 거죠. 프린트물을 보고 똑같은 멘트로 얘기하고 서명을 받아내는 내 모습을 봤을 때, 내 신념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하는게 아니라서.. 저는 그게 많이 힘들더라고요.

올해 초에는 반전평화 1인 시위가 있었거든요. 통일과 평화를 바라는 마음이야 모두가 있지만, 그걸 활동성으로 녹여내기 위해서는 자기 신념이나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인 시위지만 저는 혼자 못 갔어요. 1인 시위 피켓을 들고 있을 때, 누군가 나에게 반격을 했을 때, 내가 다다다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야. 나 하나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도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가지고 있지만. 되게 힘들었어요. 나에게서는 너무 긴 시간이더라고, 한 달 동안 매일 가니까.

다행히 저희 회장님은 기다려줘요, 그런 나를. '사람에 따라 빨리 치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기가 체화되지 않고 한발 한발 조심스럽게 내딛는 사람은 다르다, 너는 그럴 것이다' 하고 아직도 기다려주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기다려주니까 내가 별 부담이 없는데. 어려움에 대해서도 얘기하면 잘 수용을 해주시고, 이의 제기를 해도 잘 피드백을 잘 해주시니까, 나도 거기서 해답을 얻는 거고.

Q. 울산에는 더 많은 사안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사안들 중에서도 처음엔 부담스럽다가도 어느 순간에 편해질 때는 없던가요?

내 생활과 밀접한 사안일 때는 편안한 거 같아요. 예를 들어 비정규직에 관련된 사안으로 동구 쪽에 파업을 하고 누가 분신을 했나 그랬어요. 제가 그 때는 잠도 거의 못자고 겨울이라 추웠는데도, 거긴 꼭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라. 그래서 30분도 채 안 되는 시간을 쪼개고 다시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지만, 내가 가서 잠깐이라도 앉고 가는 그 자리에 그 사람은 힘을 받을텐데, 내 시간 잠깐 내서 가는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나, 그런 생각이 정말로 많이 들었어요.

이번에 비정규직 철탑 농성 지지하는 곳에 갔을 때도, 그 사람은 위에서 우리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힘을 얻잖아. 그럴 때는 되게 편안했던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렵지 않았어요.

직접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힘들거나 어렵지 않은데, 정말 큰 그림 속에서 내가 정부나 이런데 대해서 메아리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그 안에 내공이나 힘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좀 신념을 더 키워야 되는 그런 과정인 거 같아요.

Q. 비정규직 문제와 같은 경우에는 보이는 대상이 있어서?

네, 그렇죠. 비정규직이란 사안도 나와 맞닿아 있고.

Q. 스스로 조금 더 편한 문제에 대해서는, 회원들한테 얘기할 때도 편하던가요?

전달하는 과정에서는 내가 느끼는 온도만큼 전달하지는 잘 못하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축이 서 있는 거 같아요. 사람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 하고 그런 건 있는데.

예를 들어 이번에 615에 관한 강좌가 있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예 까먹는 거 같애. 그니까 전달을 잘

하는 문제를 떠나가지고 사람들을 보면 고 얘기를 해야지 하는 마음이 드는 거 하고, 아예 잊어버리는 거 하고는 다른 거 같거든요.

Q. 그런 얘기를 할 때,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얘기합니까?

내가 아직까지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안 되다 보니까 일방적인 얘기 수준인 거 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내가 아는 이 한계에서 벗어나는 질문이 들어올까봐에 대한 두려움도 있겠죠. 여성회에서 듣는 그 수준만 딱 얘기해주고 넘어가죠.

저는 책모임 토론을 진행하고, 상담쪽 공부도 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끌고 이런 부분에서는 잘 하거든요. 그런데 현안과 관련해서는 어려운거지. 좀, 안하고 싶은 거겠죠?!

Q. 일상적으로도 정치와 관련된 것이 많잖아요? 그런 사안들을 다룰 때 안하고 싶긴 해도 따라갈 필요성은 느끼시는건가요?

안 따라가고는 안 되니까. 나는 안하고 싶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세상과 단절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꿈도 이 세상과 함께 할 수 있는 꿈이니까요.

제가 중독 문제에 대해서 보기 쉬운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케어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걸 하고 싶거든요. 근데 정책과 이런 게 다 입안돼야지 그 현상을 보완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계속 유지해 가야되는 건 맞겠죠. 내가 생각했던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사람도 내가 뽑아서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부인하진 않는데, 어려워.

Q. 개인적인 꿈을 얘기해주셨는데, 샘이 구영여성회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꿈은 뭔가요?

저는 여성회보다는 도서관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 도서관을 만들면서 도서관에 대해 가지는 상이 다 달랐어요. 저는 제 꿈이 있었죠. 제가 올면서 유모차를 끌고 여성회 문을 두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저처럼 힘든 누군가가 왔을 때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케어 해주는 사랑방의 역할을 하는 공간이라고 저는 막연히 그런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는데, 안 그렇더라구요.

Q. 샘이 그렸던 그림과 차이가 있나요?

여성회는 더 큰 그림 속에 있다 보니까, 도서관에 머물러 있거나 도서관에 에너지를 100% 투자할 수 없더라구요. 지위와 역할이 있으니까 그것에 맞게끔 해야 될 몫도 또 있구요. 여성회가 지역에 와서 뿌리를 내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도 있고.

Q. 여성회가 지역에 와서 뿌리를 내리려는 근본적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냐고 물어보니까 자민통이라든데요? (웃음)

저는 아직 잘 몰라서 큰 그림은 눈에 안 들어와서 모르는데, 저희 회장님은 매일매일 돌아가는 소모임을 보면서 답답해하는게 있죠 소모임이 문화센터처럼 돌아가는건 의미가 없으니까. 저는 그것도 잘 안 보였거든요. ‘왜, 뭐가 문제야. 편하고 사람들이 좀 와서 숨을 좀 쉬겠다는데’ 그랬는데, 아, 사람이 조금 사회를 보는 눈이 바뀌고 깨어있어야 하는 필요성을 있겠다. 그걸 느끼긴 하는데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는 고민이 되는 거죠.

대중성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거예요. 대중적이라는 게 보편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전달하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세련되는가 문제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회장님이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본적인 이유와 내가 꿈꾸고자 하는건 완전 다르지는 않지만, 내가 꿈꾸건 한 부분인 거겠죠.

Q. 선생님이 아까 ‘나는 아직 여성운동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샘이 생각하는 여성운동은 뭔가요?

신념이 불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 그게 도통 뭔지를... 어떤 상황이 되면, 여성회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거에만 착 빠져들어 버리잖아요. 그런 것에서 나의 중심성이 없다는 게 저도 느껴지더라구요. 은정씨가 저한테 세상을 변혁하는 운동가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난 세상을 바꾸는 거야 좋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나는 아직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모른다고 늘 부르짖지.

제가 아는 여성회 간부를 보면 뭔가 꼭 차있어요. 정말. 어깨 살 차오르듯이 꼭 차 있거든요. 저는 아직 빈껍데기 인 것 같아요. 비교를 해서 그런가. 그건 말로 표현이 안 돼. 저 사람은 운동가라고. 어떤 사안이 벌어졌을 때 그 걸 자기 일처럼 가지고 와서 활동 속에 탁 녹아내서 하는 모습으로 말해지는 거지.

Q. 도서관 관장을 하다가 동여성회 사무국장으로 역할이 바뀌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제가 관장을 내려놓으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내 도서관이라는 생각이 많았어요, 내 건데 누가 뺏어간 듯한 느낌이었어요. 여성회 일과 도서관 일 중에 도서관 일 하고 싶은데, 역할이 사무국장이다 보니까 밀린 거잖아. 진짜 많이 속상하고 많이 힘들었어요.

관장할 땐 제가 주체적으로 했는데, 사무국장하니까 처음엔 뭘 해야될지 몰라서 아침마다 ‘회장님, 오늘 무슨 일 해야돼요?’ 물어보곤 했었죠. 제가 제 일을 모르니까 어떤 게 내 일을 찾아서 하는 건지도 잘 몰랐기 때문에 일을 달라고 해요. 회장님이 딱딱 적어주면, 하라는 일 다 하고 탕자 탕자 나는 놀은 거지.

Q. 그런 어려움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기다려줬어요, 저희 회장님이. 서서히 바뀌었겠지.

그렇게 한 해 평가하고 한 해 계획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상을 같이 잡아가면서 같이 맞춰갔고. 그리고 회장님은 아주 쉬운 일이어도 저하고 논의를 했어요. 논의하는 구조에서 이걸 내가 할게요. 자발적으로 되는 거죠.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보고하고. 그러면서 절충해갔었던 거 같고.

그리고 보니까 회장님이 참 잘해, 얘기를. 사람을 잘 기다려주고 맞춰주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사람을 잘 밀고 당기고 이런 걸 잘 했네. 오늘 얘기해보니까. 참 잘 했네.

Q. 선생님이 생각할 때 울주군 지부나 울산여성회가 있어서 좋은 점과 어려운 점은 뭘까요?

제가 지난 일요일 날 텔레비전에서 토크쇼를 봤어요. ‘나는 노동자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하더라구요. 거기에서 보면 연대가 나와요. 연대의 힘이 얼마나 강하고, 그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지 만이 우리는 같이 살아갈 수 있다.

연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 구영여성회만 동떨어져 있으면 아마 그게 잘 안됐을 거예요. 지부가 있고 본부가 있고, 본부 속에서 함께하는 연대 단위가 있고, 이렇게 때문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의 파장이 점점 넓혀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동에서 해결되지 않는 게 지부 안에서 해결될 수 있고, 지부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이 본부로 갈 수 있고, 본부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연대단위에서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음으로써 더 할 수 있게 하는 동력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어려움을 같이 나누거나 할 수 있는 ‘또 다른 나’라고 표현하더라구요. 거기에서는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 뺨이 되는지. 그렇더라구요.

Q. 꼭 본부-지부-지회가 아니더라도 각각의 단체로 존재하면서 연대하면 안되나요? 그런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부 사무국장이어서 본부의 사무국장단 회의를 들어가면 본부와 동사업이 하고 있는 회원을 바라보는 시각도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니까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듣고 답답한 것도 있고, 우리 처지를 모르는 거 같기도 하고, 일상적인 사업을 벌이는 단위하고 본부는 또 다르잖아요. 그럴 때 소모적이라는 느낌도 많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어떨 때 본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힘이 빠지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적절한 교육이나 연대, 이런걸 사무처에서 다 하니깐. 언론에 우리를 알리는 작업도 본부에서 하고.

근데 요청이 가면 요청을 받아서 본부에서 좌자작 돼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또 우린 또 같이 하는 구조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느끼고, 결국은 말한 우리가 다 해야 돼. 되게 힘들어. 그래서 사무처에는 좀 더 많은 인력 풀이나 교육센터나 이런 것들이 탄탄하게 구성돼 있으면 좋겠어요. 진짜 필요해.

Q. 본부가 적절한 교육을 해줬던 것은 어떻게 있었나요?

교육을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저는 풀뿌리대회에 같이 가서 다른 곳의 얘기를 듣고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구조도 좋았던 것 같아요. 본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대회도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본부에서는 보통 저희가 요청을 하면 단기적인 당장의 교육도 있었지만, 또 1박 2일로 단합 워크샵 같은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Q. 샘이 생각했을 때 여성회와 도서관 활동하면서 가장 성과적인 것과 아쉬운 것은 무엇인가요?

가장 성과적인 건 일단은 나의 성장이 있는 거고. 나의 성장으로 인해서 내가 던지는 에너지 파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가정 안이든 여성회 내에서도.

그 사업에 몇 사람이 왔고, 몇 사람이 회원가입을 했고, 또 회원가입을 한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삶의 질이 변했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나를 만들어내는 게 이 활동의 가장 큰 목표이면서, 그런 인자들이 보이면 보람을 느낄 것이고.

오늘 인터뷰하면서 다른 친구를 빨리 그렇게 만들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어려움이 있는 회원들이 저한테 와서 뭔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것도 나한테 내공이 생겼구나 해서 또 보람 있기도 하고. 여성회가 그 역할을 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되게 좋은 거 같은데.

딜레마는, 우리가 지위나 역할에서 해야될 몫이 있다 보니까 너무 바빠. 너무 바빠서 찾아오는 회원도 못 만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저희가 목표 자체가 뭐냐면 1주일에 한 번씩 회원을 만나기예요.

Q. 샘이 해오신 여성회 활동 전 과정을 둘러봤을 때, 스스로 자신을 가장 많이 성장시켰다고 생각하는건 뭔가요?

전반적인데, 제가 여기 활동하면서 그림책에 관련된 강좌를 해요. 요청이 오면 강의를 하러 가고. 책모임에 관한 코멘트가 듣고 싶어 요청이 오면 얘기도 해주고, 그럴 때 제가 보면 말 너무 잘하고, 내가 어찌다가 이렇게 용이 됐을까. 제가 제 스스로 뿌듯하고 징징거리던 내가 대견스럽기도 하고 그럴 때. 행복해요.

그리고 지금은 도서관 프로그램 기획팀장이 새로 생겨서 참 좋은데, 반면 답답하고 해주고 싶고, 왜 저걸 못하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지만 아, 저 사람도 기다려줘야지. 그건 회장님한테 배운 거지. 그런 게 전체적으로 그게 또 나의 성장한 면일 수도 있겠네.

Q. 샘은 어떤 부분이 제일 많이 성장하거나 변화했나요?

저는 다 바뀌었어요. 가족의 구성원들이 제가 많이 달라졌다고 얘기를 해요. 특히 초등학교 4학년인 저희 딸이, 엄마가 많이 변했다고. 제가 지난 일요일날 물어봤어요. 난 너에게 어떤 엄마냐. 우리 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엄마, 부드러워지고 친절하고 상냥하고 잘 들어주고, 호응 잘 하고, 다정다감하고, 요리도 잘 하고. 칭찬 다 해줬어.

예전에는 화가 짝 차있었어요. 신랑한테 받았던 모든 원망과 스트레스가 애한테 갔겠죠. 그래서 큰 애도 상태가 많이 안 좋았었어요. 우리 딸도 예전에는 소리를 많이 질렀다면 줄어들었죠. 많이 변했어요. 예뻐.

Q. 마지막으로 인터뷰하신 소감을 얘기해주신다면?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지금도 일이 뱅뱅뱅 터지니까. 그래도 여성회에 대한 그만둬야지 이 생각은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많이 컸네, 이 생각은 들더라구. 그전에는 맨날 그만 둔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활동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까, 이 고민에 있는 거죠. 금전적인 문제도 해결하면서 활동을 담보할 수 있는 게 뭘까. 인터뷰를 하면서, 답은 얻지 못했지만 그걸 같이 나눌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니까, 같이 얘기를 해서 고민을 좀 나누고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다. 늘 기다려주고, 늘 내 속도에 맞춰준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왜 그걸 까먹고 있었지, 생각이 다시 한 번 드네요. 애정도가 많이 높아졌다는 것도 확인되고.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의 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나서 내가 이렇게 된 건 아니란 생각이 들고, 정말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빼그덕거리긴 하지만 여기까지 오고 있다, 생각이 드네요. 또 다른 나를 위해서 나는 또 어떤 걸 해야 될 것 같고, 각오도 또 다져지고. 내가

인터뷰를 올만큼 이렇게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내가 대견스러워요.

3. 김연경 (황금동도서관 관장)

Q. 여성회에는 어떻게 오시게 되셨나요?

제가 2006년도 아파트 입주하면서 구영으로 이사를 왔거든요. 우연찮게 이 길을 다니다가 여기에 쪼그맣게 아이 들하고 엄마들이 왁자지껄하고, 맨날 복잡복잡해. 뭐 하는지 궁금해하기만 했다가, 둘째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들 어간 때쯤 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들어오기에는 뽕쭙한 공간이었어. 간간이 학교를 통해 전단지가 들어왔으니, 그전에도 소식은 알고 있었지. 4~5년 정도 지나치다가 2010년 7월에 우연찮게 첫째 아이와 같이 벼룩시장에 갔어요.

비가 와서 갑자기 읍사무소 안에서 하게 됐다더라구요. 그 때 제가 느끼기로는 상당히 진행이 어수선하고 미숙해. 우왕좌왕하는 진행자들, 운전자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미숙하고 그런 게 친근하고 편안함으 로도 다가오는, 우리 옆집에서 벼룩시장 하는 거 같고. 관에서의 어떤 벼룩시장하고는 달랐거든요. 그러면서 그 때 처음으로 여성회를 접한 거죠.

Q. 왜 친근하게 느껴졌을까요? '영망이네'하면서 탁 돌아서버릴 수도 있었을텐데..

아마 제가 끊임없이 관심과 궁금함이 있었던 거죠. 뭔지 모르게 저를 끄는 뭔가가 있었던 거 같애. 운명이라고 표 현하기는 참 뭣하기는 하지만. 그 때 사람들을 눈여겨보게 된 거죠.

진행하는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면서 그다지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아. 어이가 없으면서도 한편으로 저분들의 인생관 들이 '아, 저럴 수도 있구나', '인간적인 사람의 모습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 딸이 벼룩시장을 너무 재미있어해서 친근하기도 했구요.

Q. 여성회 활동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2010년 6월인가 학교에서 온 전단지에 가족 벼룩시장 한다면서, 성교육 동아리를 모집한다는 문구가 같이 있었어 요.

마침 우리 큰 딸이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내 아이의 성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알지만 어떻게 해야될 지 되게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때 처음으로 성교육 동아리하고 인연을 맺었어요.

마침 그해에는 본부에서 성교육 활동가 양성교육과정이 있었어요. 우리 성교육 동아리가 통째로 양성교육을 매주 본부로 가서 들었어요.

그니까 저는 여성회 상을 막연하게 듣기보다는, 직접 구체적으로 가서 먼저 본거죠. 상근자들도 보고, 아, 본부라 는 게 있구나. 바로 본부와의 소통에 있어서 제가 직접 보고 그래서 빨리 이 여성회 안의 구조라든지 빨리 캐치 할 수 있었던 거 같애요.

울주군에서는 뭔가 뒤죽박죽이고 뭔가 정말 편안함만 추구하고 수평적인 관계만 있었는데, 본부에서도 물론 수평 적인 관계긴 하지만 뭔가 구조와 체계구분이 있구나, 그런게 명확하니까 뭔가 굴러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Q. 성교육동아리는 어땠나요?

그 성교육 동아리가 굉장히 잘 됐었어요.

일단은 매주 뭔가를 한다라는 게 저한테는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부담스럽긴 하지만 재미있었고. 본부에 성교육 을 갔다 같이 오면서 많은 얘기들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성교육 동아리를 하면서 신입회원인데, 총무를 맡았어 요. 저는 신입회원들이 다 총무를 맡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긴 했 지만 제가 어쩔 수 없이 많은 연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기존 회원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됐던 거 같 애요. 그래서 저도 새로운 동아리가 짜여질 때 가능하면 신입회원들이 연락하는 역할하는게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걸 느꼈죠.

성교육 동아리가 그 때, 활동을 한 1년 넘게 하다가 동아리 장을 하던 언니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고, 다른 언니들도 한 두 명씩 빠지다보니 자연스럽게 없어졌어요. 아쉬운 게 뭐냐면은 동아리가 만들 때에는 으쌰으쌰했는데, 어쨌든 마무리가 될 때에는 공식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 하고, 유아무야 없어지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아쉽죠.

(강귀전 : 성교육동아리가 생긴 직후에 동여성회가 바로 발족됐었거든요. 천상여성회 사업도 아닌 것이, 구영여성회 사업도 아닌 것이 지부 동아리끼리 묶다보니 상근자 속에서 주체가 애매했던 부분도 있었죠. 그리고 성교육동아리 자체의 활동력 문제도 있었구요. 공부를 하면서 그 다음에 실천 활동으로 작지만 우리 수준에 맞는 성교육 활동을 나가보거나 연결이 돼야 되는데, 안 됐어요.)

Q. 그럼 성교육동아리가 흐지부지되고나서 도서관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신건가요?

2011년에 도서관 자원봉사 팀장을 제안받았어요. 상당히 조심스럽게 얘기하셨어요.

저는 그렇거든요. 이게 내가 해야 될 거다, 라고 하면 크게 망설이지 않아요. 내가 일단 여기에서 뭘 하겠다고 온 이상, 나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굳이 내가 안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왕 한다면 좋게 받아들이는 게 맞죠. 내가 여기 활동하는 이 사람들한테 뭔가 선행을 하고 선심을 쓸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쉬운 게 뭐냐면 일반 회원으로서의 경험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 경험을 한번쯤 해봤더라면 내가 사람들을 생각하고 하는 폭이 더 넓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걸 생각하면 항상 내 눈높이가 일반 회원의 높이가 아니다는 생각을 종종 느껴요.

Q. 그 이후 도서관 관장이 배혜옥 쌤에서 김연경 쌤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나 고민은 없었나요?

저는 팀장에서 관장으로 되는 게 크게 뭐 무리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배혜옥 관장님이 힘들어했었어요. 그건 나는 사실 캐치 못했어요. 배혜옥 관장이 2006년부터 무급 상근하면서 개인들이 소장한 책 가져오고 베틀시장하고 바코드프로그램 사고, 그 스토리가 여기 어마어마해. 오랜 세월 동안 정말 땀과 열정으로 이 공간을 일궈나간 데서 저는 밥숟가락만 탁 얹은 거죠. 도서관에 애착이 강했으니까.

근데 저도 관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니, 시스템이 엉망인 것 같고,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게 배혜옥 관장님이 봤을 때는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나는 이제 틀을 만들려고 뭔가를 끊임없이 그렇게 하면은, 혜옥씨 입장에서는 뭔가를 잘못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바뀌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 안에서 같이 한번 얘기를 했었다면 훨씬 좋았을 건데, 그런 부분들 없이 후에 듣게 돼서 조금 마음이 그랬죠. 그게 첫 번째로 혜옥씨하고 나하고의 관계 형성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수도 있었는데 그 부분을 놓쳤던 거죠.

Q. 도서관 팀장에 이어 관장을 하면서, 쌤이 가지는 목표나 포부, 구영여성회나 황금뚝도서관 차원에서 가진 목표나 포부는 어떤 것이었나요?

처음에 여성회 활동으로 들어왔을 때 내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굉장히 일치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끊임없이 주체적인 삶을 살고 싶어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제대로 안됐거든요.

여성회 안에서는 그걸 끄집어내준 거예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아,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내 안의 어떤 역량을 끄집어내서 자아 성취하는 보람을 느끼고 싶어 하는 게 있구나. 그리고 이곳에서는 그걸 펼쳐줄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는구나. 그게 이 분들이 다 차려진 공간 안에서 하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라’, ‘넌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말을 끊임없이 해주곤 했을 때,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 내 같지만 그래도 뭔가 있긴 있는가보다 할 수 있겠구나, 좀 겁 없이 달려드는 경향은 있어요.

큰 틀에서의 삶의 방향과, 여성회에서의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죠.

물론 작은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많이 부딪치거나 반기를 드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리고 관장을 하면서도 제 안에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누군가가 나를 인지해주고, 대외적으로 남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관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내가 이룩해 내온 성과 그런 걸로 평가받아서 기분이 좋고 보람도 느끼고.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에 있어서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도서관 체계에 있어서, 운영일지라든지 구체적인 서류의 체계화라든지 자원봉사자들 안에서의 교육이라든지 지금도 많은 문제점들도 있지만, 나름대로 성과도 있고 그걸 인정받을 때 뿌듯함이 있죠.

Q. 선생님은 여성회와 도서관 활동을 하면서 어떤 부분이 제일 변화되었나요?

내 삶 자체가 많이 변했던 거 같애.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뭔가가 성과가 일어나니까 그게 참 좋은 거 같아요. 내가 뭔가를 하고 변화를 시도하고,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인 결과물로 드러날 때. 나도 뭔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 전에는 어떤 주어진 틀 속에서 내가 부분적인 걸 변화를 시도했다하면, 여기에선 아무 것도 없는 것에서 끊임 없이 내가 만들어가면서 변화를 일궈냈다는 거지. 시작, 출발점에서부터 다른 거 같아요.

Q. 샘이 그렇게 성장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준 것은 무엇이었나요?

저도 결국 인정이고 사람이라는 거죠. 결과물로 나타날 때, 사람의 입으로 내가 평가를 들었을 때, 뿌듯하고 성취감을 맞보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것도 사람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해요. 강귀전 회장님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면서 그 때부터 끊임없이 본인이 이미 간 길에 대한 어떤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걸 아주 담담하게 얘기를 해주신 것도 도움이 됐고.

Q. 선생님이 생각할 때 울주군 지부나 울산여성회가 있어서 좋은 점과 어려운 점은 뭘니까?

좋은 점이라 하면, 일단은 어느 조직이든지 체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원활하게 역할을 나누고 그것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니까. 울산여성회-지부-동여성회가 있어서,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다고 생각해요.

울산여성회 전체 총회를 갈 때 매번 느끼는 건, ‘아, 나는 구영여성회에서 막 치열하게 하고 있다고 하지만, 다른 곳에서도 치열하게 뭔가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방향과 중심을 잡아주고, 구를 연결해주면서, 통합하고 조율할 수 있는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울산여성회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거죠.

제가 작년 활동가교육 때 본부 회장님과 상근자들과 사적인 얘기를 하는 기회를 처음 가졌어요. 그 때 얘길 했어요. 이런 기회가 상당히 많았으면 좋겠다. 이 동에서 사는 사람들은 본부가 도대체 뭘 하는지, 본부가 있는지조차 잘 모른다. 총회를 가거나 공식적인 그런 행사를 가지 않으면 도대체 뭘 하는지, 회원은 천 몇 백 명, 이천 몇 백 명 가깝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뭘 하는지 모르니까. 어느 조직이든 간에 조직이 나뉘어 지다 보면 이걸 구성하는 활동가들과, 본부와 괴리는 어디든지 있을 수밖에 없구나.

정기적으로 활동가연수나 프로그램이 많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해소되지 않을까 싶어요.

Q. 샘 본인이 가진 현재의 과제는 무엇인가요?

필요라는 걸 떼버리고 사람 대 사람으로의 만남을 자연스러운 만남을 내가 끊임없이 만들어내야 된다고. 그걸 내가 먼저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네요.

Q. 샘은 앞으로 구영여성회를 통해서 어떤 뜻을 이루시려고 합니까?

저도 그 상을 머릿속에 탁 그려본 적은 별로 없어요. 여기가 초등 중심 공간인데, 제 아이가 5학년이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싶죠. 구영여성회가 중심이 되어서 어떤 청소년 문화를 끌고 가는데 제가 한 역할을 하고 싶어요.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청소년 사업으로서의 구영여성회가 어떤 역할을 한다면 큰 틀에서 그런 역할하고 싶어요.

4. 이은정 (울산여성회 부회장, 전 울주군지부장)

Q. 초동모임을 조직한 과정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그 당시에 울산여성회가 울산 내 다른데서는 기반을 잡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울주군에서도 지부가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있었는데, 주체가 마땅히 없어서 엄두를 못내고 있던 때였지. 근데 울주군에서 조금씩 아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도 아이들 교육과 관련한 활동을 해보고 싶다', '여성으로서 자기성장을 하는 활동을 해보고 싶다', '지역에서 다양한 여성들과 함께 해보고 싶다', 이런 요구들이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다는걸 알게 됐어요.

마침 내가 울주군에 살고 있었고. 그럼 울주군지부를 만들자고 결정이 돼서, 2005년 봄부터 시작을 했지.

Q. 그럼 그분들이 울주군지부의 초동주체가 된건가요?

그분들이 완전히 초동주체가 되지는 못했어. 그분들과 함께 해서 지역사업에서 초동주체를 다시 만들었지.

그 분들이 씨앗이 되고, 그 중에 핵심이 될만한 언니(현재 울주군지부장 강정희)를 발굴하고, 그 언니랑 같이 했지. '언니, 사무장 해요, 내가 지부장 할게'해서.

그분과 함께 여성회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새로운 주체들을 지역 속에서 새롭게 만나게 된거지.

Q. 구영에 사무실을 얻게 되면서 울주군 사업을 시작하게 된거죠?

천상이 좀 작고 상가 자체가 없어서 사무실을 얻을만한데가 없었어. 구영은 그 당시에는 천상이랑 비슷했지만 아파트 단지가 막 들어서면서 점점 커지고. 그래서 구영으로 구했지.

그때는 1층에 사무실을 구하는 단체도 없었고, 월세를 50만원씩 주고 얻는 것이 큰 모험이었지. 근데 사고 안치면 못한다, 하면서 시작했지. 재정 때문에 참 끊임없이 많이 힘들었어. 그래도 그 기반이 되는 자리가 있었으니까 지금까지도 올 수 있었던 것 같고.

월세를 그렇게까지 많이 주면서 사무실 거점공간을 얻어야될 필요가 있나 하는 얘기도 몇 번 있었어. 인건비는 아예 손도 못대고, 계속 적자구조니까.

근데 지금에 와서 봐도 거점은 반드시 필요했던 것 같아. 거점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구조로 잘 운영하는가는 여전히 고민이긴 하지만.

Q. 2005년 3월에 준비위를 시작해서 사업을 많이 했네요?

아~ 많이 했지. 강좌사업도 하고, 아이들 체험사업도 하고.

사업하면서 괜찮은 사람 발굴해서 같이 하게 하고. 또 다른 사업하고. '함께 하고싶다' '나도 준비하고 싶다'는 사람들 만나서 사업벌이고, 또 주체를 만들고.

첫 강좌하고도 처음부터 회원가입서 계속 돌리고. 활동할 수 있는 모임으로 후속모임을 구성하고. 아이들 체험을 하면 그 체험을 준비할 팀을 구성하는거지. 회원 중에서 구성하고, 회원이 아닌 사람도 뒤에 소문듣고 와서 회원 가입하고 모임에 들어오고.

2005년 3월부터 울주군지부 준비위로 있다가 2005년 12월에 정식 발족을 했으니까. 발족하면서 정식 운영위를 꾸리고.

Q. 회원가입을 받으면서 울주군 지부를 창립할거라는 얘기까지를 다 했던건가요?

그렇지. 처음부터 울주군 지부 준비위 이름을 가지고 시작했으니까.

지역적 특성이 좀 좋아서. 빠른 시간 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호응도 좋고, 지역의 여성들의 요구가 많았던게 컸지. 신생 주거단지이고, 유아부터 초등을 둔 엄마들이 많아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많고, 지역에 상주하는 전업 주부들이 많은 편이었는데, 문화적 혜택은 잘 없는 지역이고.

지금은 조금 또 다르지. 세월이 한 10년 지나면서. 그때는 그게 딱 맞아 떨어졌던게 있었지.

그래서 처음에 발족할 때에도 회원들이 적어도 30~40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Q. 울주군지부에서 구영여성회를 만들 때 여러 논의가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천상은 회원들로부터 요구가 많았는데, 구영은 동여성회 발족에 대한 당위성은 있지만 고민은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동여성회를 창립을 하게 된 과정에서의 고민과 논의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풀뿌리 여성주의와 연결되는 지점인 것 같아. 여성회가 무엇을 지향하는가, 어디로 가고자 하는가, 그 과정에서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가. 그 문제인거지. 동여성회도.

여성회는 자기 삶에서든, 지역사회에서든, 세상에서든 주인으로 설 수 있게끔 스스로 만드는 조직인데, 어떻게 하면 최대한 여성들의 특성에 맞게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처음부터 내걸었던게 지역 속으로 가야된다. 몇몇 활동가 중심의 이슈 파이팅 여성단체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 근거리에서 본인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조직이 되어야한다. 이게 여성회의 창립할 때부터의 방향이었으니까. 그게 풀뿌리 여성주의라면 풀뿌리 여성주의인거지.

동 여성회로 가야 그게 완성된다고 볼 수 있는거지.

지부를 만드는 과정도 그 단계의 하나인거지. 말이 지부이지, 구 단위를 다 커버할 수가 없는거잖아.

그렇게 보면 조금 늦은거지.

울주군지부를 먼저 만들고, 구영과 천상에서 집중적으로 그 지역에서 여성들과 함께 양성하게 활동을 벌였고. 그 때 방향이 명확했다면 빨리 주체를 세우고, 그 주체들이 우리 동네에서 우리가 만드는 동여성회로 방향을 빨리 틀어서 갈 수 있게끔 해줬어야되는데.

그 타이밍을 지나버리니까, 따로 동여성회라는걸 만들어야되나, 왜 만들어야되나, 누가 어떻게 하지, 하는 고민이 있었던거지.

그 흐름대로 쭉 갔으면 우리가 언제까지 사람을 어떻게 만들고,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언제쯤에서 구영,천상여성회를 만들어야겠다. 동네여성회라는건 어떤 사업을 해야되는거지, 또 우리가 울주군에서 꼭 필요한데 우리 손길이 미치지 못한 곳에 다시 조직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구상이 됐어야하는거지.

울산여성회 전체가 조직화 방향성을 일관되게 밀고가긴 했는데, 틈이 좀 있었던거지. 울주군만 그렇게 아니고 전 반적으로.

천상에도 그렇게보면 타이밍이 맞았다기보다는, 요구가 계속 쌓였던거지.

Q. 동여성회라는 방향이 맞구나, 꼭 필요하구나, 라고 활동가들이 딱 느끼는 지점은 어떻게 있을까요?

활동가들이 주도해서 만들어가는 여성회는, 우리 일이 많긴 하지만, 움직이기가 쉽지. 근데 지역에 있는 여성들이 스스로 주체가 돼서 만드는 여성회는 쉽지는 않은거지. 한걸음한걸음 나갈 때마다 끊임없이 걸림돌이 있고, 힘들어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고 빠르지 않아.

그렇지만 그래야 사람이 남는 거니까. 진짜 그 사람들이 여성운동의 주체가 되고, 그 사람들이 성장하면서 바꿔갈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거니까, 그게 진짜다, 라는 걸 느끼는 과정이 있겠지.

동여성회를 하면서 회원들이 주도하는 사업, 모임, 활동, 그리고 그 시선 자체가 우리 동네로 가있는 것에서 그런 걸 느끼는 순간이 있었겠죠. 예전에는 ‘우리 이렇게 하자’고 하면, ‘네~ 같이 할께요’, 이 정도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들이 주체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짜고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보면서 느끼지 않았을까.

Q. 동여성회가 가지는 어려움과 한계점은 뭐가요?

동여성회 회원들이 열성적으로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방향을 잘 잡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여성들의 성장이나 발전에 큰 구상을 가진 사업이라기보다는, 그냥 현상적 요구만을 쫓아서 현실에서 그때그때 하고 싶은, 아니면 혼자 못하니까 같이 하는 종류의 사업을 한다든지.

여성으로서 이 사회에서 목소리를 내거나 우리 힘을 모아야된다든지, 이 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할 때, 이 사람들이 좀 주저한다든지, ‘우리는 그냥 요구만 할래요’, ‘우리가 맡은 이것만 해도 버거워요’ 이럴

때, 그런걸 높여가기 위해 끊임없이 교육하고 높여가야 되니까.

동여성회가 동네에서 스스로 주체가 돼서 움직여가는 조직이지만, 그게 우리가 자족하는 모임은 아니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만드는데는 좀 힘든 점이 있는거지. 그들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상근자들이 잘 교육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 한편으로는 길고 어려운 과정이기도 하고.

Q. 동여성회도 상근자들이 다 있잖아요? 상근자와 관련해서 지부와 동여성회에서의 차이는 뭔가요?

지부로만 있었다면 동네에서 발굴된 새로운 사람들이 자기 영역을 가지고 상근하는 사람으로 커올라올 수는 없었을거야. 그 장을 열어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활동영역이 생기고, 거기에 열정이 있는 사람을 발굴하고 교육하고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니까.

그들이 주체가 돼서 활동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것, 그런 의미에서 동여성회는 커져.

다만, 장을 열어줬으면,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편향없이 균형된 관점을 가지고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체계적인 교육, 실천, 사람들과의 부대낌, 이런 것들이 다 종합해서 잘 돌아가야 자신들이 실제 역할을 해나가면서 쪽~ 성장하는건데, 그게 쉽지만은 않은거지.

Q. 플뿌리 여성주의와 관련해서 질문할게요. 플뿌리 여성주의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울산여성회가 하려고 하는 여성운동은 어떤것인지.

여성주의라는건 모든 생활에서 다 깨어있지 않으면 획 지나가버리기도 하잖아. 돌아서보면 '아, 내가 둔감했구나, 미처 생각 못했구나'하는 부분이 생기는거니까. 여성회 활동을 할 때에도 우리가 얼마큼 민감하게 캐치하고 사업화하고 사람들과 나누고 우리 대화의 주제로 삼았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늘 부족함이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해.

근데 나는 여성주의가 민감성이 다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민감성에 부족함이 있었다면 좀 더 채워가면 되지만, 여성회 활동에서 우리가 여성주의를 하는데서 크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큰 틀에서 여성주의가 뭐냐는 부분은 우리가 분명하게 그리고 왔어. 그대로 해왔다고 생각하고.

여성들 스스로가 주체가 돼야한다, 주인으로 나서야한다. 그걸 억압하고 가로막고 있는 것이 스스로에게도 있고 사회구조로도 있고 사람들의 생각에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아, 이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여성이라면 누구나 겪고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고, 잘못됐구나, 바꿔야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바꾸려면 혼자는 안되겠구나, 함께 힘을 모아야겠구나, 그게 여성들이 스스로 만드는 조직이구나, 그게 바로 여성회다. 함께 바꿔나가보자. 누가? 내가, 우리가 같이. 어떻게?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느끼는 문제를 바꿔나가는 것부터 시작하자. 어디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여기에서부터 하자.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여성운동이 돼야된다.

그리고 여성은 여성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 전체 문제 속에 여성문제가 있고. 이 사회 전체가 제대로 바뀌어야만이 여성들이 제대로 설 수 있고, 또 여성들은 여성들만의 독자적인 문제가 있기도 하고, 여성은 2중3중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분명하게 얘기해야되고.

우리가 얘기하는 여성운동은 그걸 만들어가자는거지.

Q. 그동안 플뿌리 여성조직을 하면서 주로 전업주부들을 중심으로 조직해온 것이 사실이잖아요? 처음에는 일하는 여성들을 조직하는 것을 중심으로 생각했지만, 막상 전업주부들을 중심으로 조직해온 것 같아요.

그렇지.

울산여성회도 초창기부터 분명한 여성조직화의 방향을 일하는 여성들에 대한 조직화로 잡았었어. 절반 정도의 역량을 투여해야한다고 방향을 잡고, 고용평등센터부터 일하는 여성모임 만들고 굉장히 열심히 했더라구. 그러다가 지역으로 확 들어가면서 지역활동이 왕성해지고, 2005년, 2006년 정도부터 일하는 여성에 대한 사업이 점점 줄어들면서 거의 명맥이 없어지는듯한 데까지 왔더라구.

분명히 이건 정말 우리 사업의 오류이자 한계이다. 그걸 평가했었지.

그리고 현재 달라진 여성들의 조건을 봤을 때 더더욱 이 시대에 우리가 여성운동을 하면서 무엇이 필요한가. 일

하는 여성 조직화로 다시 가야된다.

작년에 그 논의를 1년 내내 했었지. 2012년 총선에서 지고, 전반적으로 지역운동과 전체 운동, 여성회 운동 평가 하면서 여성회에서도 그때부터 연말까지 계속 그 논의를 했었어. 그전부터도 문제의식은 있었는데, 그때 평가작업이 되면서 우리도 본격적으로 논의했었지.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었어. 여성회 활동들이 계급성을 튼튼하게 쥐고 있느냐, 라는 부분이었지. 그건 전업주부와 사업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특히 가장 참여하게 부딪히고 있는 일하는 여성들을 직접 조직하고 있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가 점점 부족하고 약해져가는게 있었다.

Q. '여성회 활동이 계급성 혹은 계급의식을 튼튼하게 쥐고 있느냐'라는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가요?

주요 사업 내용에서 볼 수 있겠지. 예를 들면, 지금 울산의 여성들도 50% 이상이 다 일하는 여성이야. 일을 하고 싶어하는 여성들이 대다수이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거나 그걸 위한 사업을 하거나 그런게 있었냐는거지. 초창기에는 그랬는데, 2000년대 중후반을 넘어오면서 현재까지 그런 사업이 뭐가 있었냐고 돌아볼 때, 별로 없었다는거지.

그리고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하는 사업내용을 봤을 때도 그 부분이 녹아들어가있느냐. 여성들이 성장한다는게 여성들이 세상을 보는 제대로 된 관점이 생긴다는건데, 계급의식이 없는 것이 제대로 된 관점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걸 위해 우리는 어떤 교육을 했고 어떤 고민을 했냐. 많이 부족했구나.

Q. 전업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내용에서 그런 부분이 녹아들어가야한다고 했지만, 전업주부들이 스스로 노동자로 살고 있지 않으니깐 그런 내용이 딱 자기요구는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지. 자기가 노동자는 아니더라도, 그렇다고 그들이 자본가로 살고 있는건 아니잖아.

단순히 내가 지금 어디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 계급의식이라는 것은 지금은 자본주의 세상이고, 자본주의 세상에서 노동자와 자본가가 있는건데, 우리는 다 노동자계급이라는거지. 전업주부들도 100%가 남편들은 다 노동자고 자신들도 다 노동자계급이지. 그런 노동자 의식을 심어주지도 못했을뿐더러, 그걸 함께 집단적으로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없었다는거지.

Q. 우리가 여성으로 산다고 해서 저절로 여성의식을 가질 수 없는 것처럼, 노동자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돕지 못했다는거죠?

그렇지. 예를 들면 민족의식이라고 하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 왜 우리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왜 이렇게 예민해야하고, 피부에 와닿는 것도 없는데, 여성회는 왜 이렇게 그런데 대해서 민감하고, 그와 관련된 일들을 벌이느냐. 그걸 이해하려면 민족의식 자체가 만들어지고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게끔 해줘야, 사람들이 '아, 그래서 여성회가 이런 일들을 하는구나' '중요하구나' '나와 상관없는게 아니구나' 이걸 알아야되는 것처럼.

노동자의식도 마찬가지인거죠. 그렇게 보면 조금 체계적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Q. 풀뿌리운동에 대해 '비정치적이다'라는 비판이 있는데, 그 중에 노동자의식, 계급의식에 대한 내용도 핵심적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풀뿌리조직들이 안하려고 하는건 아니잖아요?

근데 분명한 방침을 안찍고 있는거지. 그것 자체는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게 가면 안돼.

그 방향이 나올 수가 없어. 방침을 딱 찍고 가야 그래도 뭐가 되지.

그렇다고 마구 들이댈 수 없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되거든. 예를 들면 아주 작지만, 하종강의 세상을바꾸는시간15분 강의라도,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이면 회원교육할 때 적어도 이것 정도는 기초교양교육으로라도 넣어야되고, 그 다음 단계를 고민해서 갈 수 있는거지.

여성들의 80%가 비정규직인데, 우리는 비정규직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되고, 여성회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사업해야되냐, 등등 이런저런게 있어야, 그 방침이 없으면 그건 절대로 사업화될 수가 없고, 교육내용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Q. 그럼 울산여성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가기로 했어요?

일하는 회원들에 대해 우리가 전수조사를 다 했어요. 직장, 업종, 고용형태, 힘든점, 등등의 내용으로. 1000명이 넘는 여성회 회원들 내에 일하는 여성이 거의 40% 정도는 넘는 것 같아.

그 사람들을 재조직하는거지. 전업주부 중심으로 돌아가는 활동에 자기가 참가할 수는 없는데, 여성회 활동은 좋고 동의하고 자기도 같이 하고 싶으니까 회비는 계속 내는 회원들로 존재했던 사람들인거야. 이 사람들과 무엇인가를 해야한다. 그들을 재조직화하기 위한 체계를 만들고 거기에 맞는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일하는 여성을 위한 사업을 한 축으로 고민을 했었지.

이 사람들이 지역별로 같이 모여서 도모를 해야되나, 업종별로 모임을 묶어봐야되나. 어떻게 해야되나, 이런 고민이 작년말에도 굉장히 많았거든.

일단은 다 모였어. 그동안 여성회가 굉장히 잘 못했다, 여성회가 올해부터는 이렇게 같이 하려고 한다, 그것부터 시작하자. 그렇게 일하는 여성회원의 날도 한번 진행했었어.

지부마다 상근자 중에 그 사업을 담당할 주체도 선정하고, 그리고 있을거야.

또 직접 조직하는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략적 업종을 지정해서 여성회가 중심으로 여성노동자를 조직해보자는 결정이 있었어. 요양보호사와 마트.

본부 상근하던 조영미 언니가 요양보호사로 들어가려고 시험치고 조직을 시작했고, 나는 2012년 12월에 마트로 바로 들어갔지. 마트 여성노동자를 조직해보자, 하고 들어왔는데, 이왕이면 홈플러스로 가다가, 마침 홈플러스가 노동조합을 준비하고 있었고 띄워졌고, 하다보니까 나는 홈플러스 노동조합으로 하고 있지.

내년쯤에는 마트 산별노조를 만들어야돼. 나중에 전체 마트 여성노동자를 조직하게 될 때에는 아마 여성회도 거기에 맞는 자기 역할을 가지고 나와 같이 할거야.

Q. 최근에 풀뿌리운동에서 자생성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흐름 속에서 노동자의식이나 변혁성 이런 부분과 동떨어지게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도 좀 경계해야되는게 그 부분이야.

일반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풀뿌리는 변혁성에 대한 것을 거부하거나, 그들 스스로 나온거면 괜찮은데, 변혁적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들과 같이 하면 안된다고 하는게 있단말야. 그런데 그건 심각하게 사상적 문제가 있어. 굉장히 위험한거지. 나는 그렇게 가면 안된다고 봐.

Q.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주세요. 이건 풀뿌리에서 정치를 다루는 것과 연결되는 문제거든요. 풀뿌리에서 약간 터부시되어 있는 경향도 있잖아요.

왜 풀뿌리가 정치와 연결되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되는지 얘기가 정리되면 좋겠거든요.

그건 대중관의 문제야.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문제거든.

말하는건 다 똑같애. 대중들은 무한한 자기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활동가나 조직가가 잘 도와주면 그들 스스로가 그걸 만들고 활동해나가고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믿는 건 똑같애.

근데 다른건 뭐냐면, 나는 사람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지만, 그냥 자생적으로 스스로가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고 봐. 왜 그러냐면 개인 하나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을 가진 운동과 만나야만 그런 무한한 가능성을 펼칠 수 있다고 봐. 그냥 사람 자체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다 자생적으로 만들 수 있고 그런 존재는 아닌거지. 내가 가진 대중관은 그런거야.

그런데 일반적으로 풀뿌리에서는 그걸 거부하잖아.

그래서 궁극적으로 풀뿌리가 하려고 하는게 뭐냐.

나는 세상을 바꿔야된다고 본다. 모든 사람들이 존중받으면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와야만 된다. 그런 세

상을 누가 만들어주느냐, 어떤 한 사람이 만드는게 아니라, 이 사람들 스스로가 자기 힘을 발견하고 뭉쳐서 조직화되어서, 이 사람들의 힘으로 세상을 바꿔야된다, 이게 내가 생각하는 변혁이야. 세상을 바꿔야된다는거지.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올바르게 성장해서 갈 수 있느냐, 이렇게 없이는 그냥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아~ 사회가 썩었어'하면서 스스로 조직하고 그렇게 되진 않는다는거지. 정치가 필요한 이유도 그거지. 정치는 그 중에서 정치권력을 갖고자 하는 것이고. 정치가 다는 아니지만, 정치가 바뀌어야 세상을 바꾸는데 있어서 선도해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거지.

풀뿌리들이 그 점에서 많이 깨워야되는 게 있는 것 같애. 풀뿌리를 해서 뭘 하자는건지가 명확해야되는거지. 그냥 힘없는 사람들이 우리끼리 뭉쳐서 잘 해보자, 이렇게 아닌거잖아. 뭘 할려고 하는거고, 왜 하려고 하는거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거고, 그래서 풀뿌리다, 이게 나와야되는건데. 그러면 당연히 정치도 필요하고, 지도자도 필요하고. 어떻게 잘 결합해서 같이 성장해서 스스로 주체가 돼서 확 바꿔볼거냐, 그게 나와야되는거지. 그게 진짜지.

Q. 그게 진짜 풀뿌리라는거죠?

음... 그게 풀뿌리라고 하기에는 좀 퇴색되는거 같애. 풀뿌리라는 말이...

Q. 풀뿌리라는 말을 만들거나 주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오고 있기 때문에 굳이 '풀뿌리'라는 이름을 쓰고 싶지 않다는거죠?

그렇지.

탈정치적이고 비정치적이고, 그런게 어디있어?! 그건 말이 안되는거잖아.

섬에서 자기들끼리 사는 것도 아니고, 정치제도와 경제제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걸 거부하고 순수하고 고상하고, 우리끼리의 뭉개, 이렇게 하는건 말이 안되는거지.

그걸 풀뿌리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아니다. 세상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거지.

Q. 앞으로 풀뿌리 여성운동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10년전에 지역에서 거점만들고 사업만들고 터 닦고 하던 것과는,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애. 세상 자체가. 나는 지금의 조직 방향 자체를 예전에 했던 것처럼 지역 속으로 들어가는게 맞을까? 물론 그것도 있어야되겠지만.

예전처럼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그렇게 하는건, 조직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옛날처럼 사람을 남기고 성장시키는게 굉장히 힘들어. 정말 이 사람들은 여성회뿐만 아니라, 다방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이나 자기 풀, 인간관계와 조직들이 있어. 예전과는 달라. 옛날 여성회처럼 그냥 한 곳에서 와서 정기적으로 와서 같이 책 읽고 활동하고 애들 프로그램하면서 성장해나가는 식으로 정적으로 움직이지가 않아. 요즘에 전업주부들조차도 굉장히 동적으로 여기저기 막 움직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면에서 옛날 방식을 자꾸 하는게 맞을까.

나는 1차적으로는 여성을 조직하려면, 움직이고 있는 여성노동자층을 공략하는게 나는 지금은 제일 주력해야될거라고 봐.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 지역안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이 있을 수 있고, 숫자가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걸 기초조사부터 잘해봐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애. 대체로 30,40,50대 여성들이 어디에서 뭘하고 있는지, 우리 동네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없는지. 이를테면 마트, 학교 비정규직, 도서관, 자원봉사자들, ... 다 동네 아줌마들이 움직여.

그게 동네를 약간 벗어나더라도, 일하고 있는 여성들을 공략하는 식으로 가야된다.

아무리 일하는 여성들을 재조직화하면서 계급성을 제고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성회라는 단위 자체에서 하는 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더라구. 자기 일터에서 자기 일이 있고, 집안일 있고, 자기 모임도 있고, 이러다보면 아무래도 여성회에 물리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작고, 전적으로 같이 뭘 하기가 힘들어.

그러면 지역은 지역대로 현안 문제를 가지고. 요즘에 보면 울주군 범서같은 경우도 비리 사학재단이 천상으로 이

전해오려고 해서 동네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도 만들고 싸움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 중심에 여성회가 서있지. 그 동네에 단체라고는 여성회밖에 없으니까. 지역에 나타난 현안을 가지고 지역을 조직하고 싸우고 성과를 만들어가는건 정말 지역 안에서 동여성회가 해야될 몫인 것 같애.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을 제외한 기본 조직은 이제는 그냥 지역 이렇게 예전에 하던 식으로 가면 안된다. 더 현장을 찾아가야된다고 봐. 여성들이 일하고 있는 현장, 자원봉사하고 있는 현장, 움직이고 있는 현장. 그냥 지역은 더 이상 옛날처럼의 현장이 아니라는거지.

물론 나도 여성노동자 조직하면서 어려움은 많지만, 어쨌든 방향은 그렇게 가야된다고 봐.

창원 명곡여성회 소개

◇ 창립일 : 2006년 3월 창립

◇ 창립목적

사)창원여성회 명곡지회는 여성들이 자기 삶과 사회의 주인이 되어 차별과 폭력이 없는 성평등 사회와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관심을 갖고 함께 활동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 슬로건 : 여성과 아이가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 가는 변화의 주체, 명곡동여성회

◇ 주요사업

- 행복한 부모학교
- 안전한마을만들기
- 마을정치아카데미
- 지역주민과 연대단체가 함께하는 어린이날 행사
- 알뜰장터와 마을문화제
- 사랑의 몰래산타
- 마을청소 등

◇ 주요활동연혁 : 활동내용을 7년 동안 매년 하고 있음

- | | |
|-------|--|
| 1월 | 새해맞이 차 나눔 행사 |
| 2월,9월 | 평등명절나기 캠페인 |
| 2월,7월 | 마을정치아카데미 |
| 5월 | 어린이날 행사 |
| 6월 | 안전한 마을만들기(모니터, 강좌, 동네한바퀴, 놀이터 조사, 학교주변안전조사, 안전한 보도조사, 밤길안전조사 등 포함) |
| 10월 | 행복한부모교육, 알뜰장터및마을문화제 |
| 11월 | 마을정치아카데미, |
| 12월 | 사랑의 몰래산타 |

◇ 회원수 : 32명

창원 사파대방여성회 소개

◇ 창립일 : 2009년 3월 (사)창원여성회 사파대방지회 창립

◇ 창립목적

사)창원여성회 사파대방지회는 여성들이 자기 삶과 사회의 주인이 되어 차별과 폭력이 없는 성평등 사회와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관심을 갖고 함께 활동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 주요사업

- 지역민과 함께 하는 봄맞이 체육대회
- 갯벌체험
- 역사기행
- 해든누리 풍물단
- 부모학교
- 지역주민과 연대단체가 함께하는 어린이날 행사

◇ 주요활동연혁

- 2009년 3월 (사)창원여성회 사파대방지회 창립
- 2010년 가음남양지회 분리
- 2011년 사파대방지회 가음남양지회 반송지회 3개 지회를 모아 성산지부 건립
- 2010년 3월~현재 우리지역 및 여성의 역사를 배워가는 역사교실, 역사기행운영
- 2013년 4월 해든누리를 기반으로한 예비사회적기업 '예종' 운영

◇ 회원수 : 약 40여명

창원 명곡여성회, 사파대방여성회 인터뷰 (요약정리본)

§ 인터뷰 참가자

강영희(명곡여성회 초기 회장), 박정미(명곡여성회회장) / 서영옥(성산지부장, 사파대방여성회 전 회장), 김경자(사파대방여성회회장) / 문현숙(창원여성회회장)

1. 강영희 (명곡여성회 초기 회장)

Q. 창원여성회에서 제일 처음 만들어진 곳인 명곡여성회를 만들었던 초동모임에 대한 얘기 부탁드립니다.

처음 구성원들은 동네에서 활동을 한다거나 그렇게 엮일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니었고, 기존에 활동을 했거나 아니면 활동 경험이 있는 남편의 부인이거나 이런 경우를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당 활동하던 분들도 있었고, 지역에서 나름대로 주민자치활동하시던 분도 있었죠.

우리 회장님 정미언니를 그 과정에서 만난 사람이고.

초동모임은 그렇게 꾸렸었고, 모임을 만들어서 할 때 같이 하자 하니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려고 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모임은 같이 하겠다 이런 정도로 시작했어요.

Q. 어떤 활동으로 시작했나요?

2006년도 첫아이 학교보내기 사업을 하고, 그 다음 3월인가 4월인가 놀이터 문화행사 이런 것들 진행을 했었으니까. 그 때 인제 첫아이 학교 사업 때 만난 사람, 그 중에 3명이 회원 들어오고 그 과정에서 정미언니도 만나고.

Q. 창원여성회와 명곡지회는 언제 만들어 졌나요?

2009년인거 같은데요. 초기에 초동모임에 참여한 몇 분과 함께 경남여성회에서 하는 교육에 참여하고, 여성주의와 관련한 것들, 여성회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 어쨌든 창원지부 만들면서 회원들과 함께 하는 이런 활동들 많이 했으니까. 다니면서 교육 받고 역량이 거기서 컸다고 봐야 될 수도 있으니까요.

조직위원회를 만들어서 동사업을 하자라고 제기했죠. 실질적으로 회원들과 하는 사업들, 직접적으로 만나기를 하려면 동으로 가야된다, 그렇게 출발했어요.

Q. 명곡지역에서 활동가를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나요?

명곡지회를 만들고 쪽 동여성회 활동 책임지고 해왔으면 무리가 없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2007,8년쯤 지회장 세우면서 나름 회원들도 확대하고 만들고 하다가 2008년도 4월 총선에 출마하고, 특정정당의 후보가 선출직 임원을 맡는 문제에 문제 제기가 있어서 지회장을 갑자기 그만두게 되면서 약 1년 가까이 지도력의 공백이 생겼어요.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회장을 세우게 되다보니, 활동초기 2년은 실무를 내가 하다가 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회원들이 발굴되지 않고 활동가들 키워나갈 수 있는 활동 동력도 없고, 이런 과정이 된거죠.

새롭게 시작해야겠다 이런 고민이 들기도 하면서 그 상황 속에 의원을 한다는 게 갑갑한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Q. 그래서 지금은 회원 내에서 활동가를 찾기 어렵다 이게 핵심적인 고민인데, 왜 이렇게 됐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좀 더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의원이 되고, 지회장은 또 새롭게 썼고, 회원은 30명 정도 유지는 되고, 그 속에서 활동들은 지역사업들은 꾸준히 해서 지역 내에서 명곡동 여성회 하면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회원들 성장을 위한 뭔가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한 거죠.

어떻게 보면 소극적일 수도 있고, 지금 있는 회원들을 성장시키면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회원에 대한 믿음이 약한 것도 있고, 실제로 그 사업을 차고 갈라 하니 나도 의원활동 해야 되고. 이런 고민을 새 지회장님과 함께 집약적으로 해내지도 못했고. 그러다보니 회원 성장보다는 사업 위주로 회원들이 결합해 온거죠.

그러다 뒤에 결합한 몇몇 회원들 같은 경우도, 이사 가고 탈퇴하고 이래 딱 정리되니까 15명 정도가 남더라구요.

Q. 현재 회원이 15명인가요?

이사 간 분들, 탈퇴한 사람 있고, 30명에서 정리하면 15명이 남았어요. 새로 회원을 확대하고 회원역량을 키워가야죠. 올해 창원여성회 중심 사업이 교육사업이고 그 교육사업을 통해서 활동가들 성장시키고 이렇게 하자고 하거든요. 명곡은 여성회만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새로운 주민조직(명곡주민회)을 고민해서 8월 달에 띄울 거고, 6~7월에 주민 조직 준비팀과 우리 회원들이 같이 교육해서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딱 9명 정도가 됩니다.

Q. 새로 띄우려고 하는 주민조직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여성회가 쭉 해오면서 지역 내에서 한계가 있고. 회원 확대 안 되고 자체 역량이 그러다보니까, 의원과 함께 여러 활동을 해서 그 위상 자체는 높아졌지만 여성회 혼자 치고 가기에는 아직은 어려운 한계점이 있어요. 동네에서 연대해서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연대사업하는 외부 사람들이 여성회로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별도로 풀뿌리 주민 조직 운동, 연대 운동을 함께 차고 갈 수 있는 힘이 되는 조직이 필요해졌어요.

Q. 그럼 그 조직의 구성은 어떻게 꾸려졌나요?

당원도 있고, 주민활동을 통해서 만났던 사람들도 있고, 쭉 사업하고 연대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이 결합돼서 주민 조직으로 만들려고 해요. 새 주민조직을 띄우면 여성회는 여성회로서 자체 역량을 키우고 여성회 자체사업을 해 나가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 속에서 사무실도 같이 만들고 했어요. 여기서 사람들 만날 수 있는 사업들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과 연관된 사업들도 쭉 계속 해가자, 이런 고민을 가지고 출발했구요.

Q. 새로운 주민조직과 명곡여성회의 역할은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동네에 연대사업이 많았어요. 우리 동네 문화제 행사, 어린이날 행사, 그리고 지금 마을방송국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여성회가 중심이 되어서 조직을 꾸리고 추진위를 만들어 사업을 치고 간 거지요. 몇 십 명 이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규모 자체가 여성회만 하기에는 너무 벅찼어요.

하반기부터는 연대사업들은 명곡주민회 중심으로 하고, 그 힘으로 같이 가자는거죠.

몇 년 동안 여성회가 해왔기 때문에 그걸 같이 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힘의 동력이 다른 데로 가버리면, 여성회는 자체 회원 발굴이나 회원 키우는 사업에 힘을 쏟지 않겠나, 이런 고민이이에요.

나도 여성회로 깊숙이 들어올 수 있고 지회장과도 더 사업을 하고, 여성회를 챙기는 쪽에 더 힘을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Q. 명곡 주민조직은 핵심 멤버가 따로 있나요?

저도 물론 같이 들어가 있지만 그 조직은 우리 아저씨(남편)가 중심으로 꾸렸어요.

의원활동 하면서 만난 사람들 조직하고 만들어가는 과정도 저한테 주어지겠죠. 그 일들은 같이 할 건데, 이 조직을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걸 다 저보고 하려면 힘든 거니까. 그런 짐들은 덜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기댈 데가 있는 거니까. 뭘 하나 해도 이 사람들과 함께 하면 되는구나가 있는 거니까. 그래 되면 여성회를 챙기는 쪽에 더 힘이 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거죠.

Q. 동여성회에서 기존활동은 그대로 진행하면서, 의원활동도 별도로 해야 되는 상황이니 역량이 엄청 많이 들어갔겠네요. 그 속에서 활동가 성장이나 교육을 위한 조직화 목표를 세우기가 어려우셨을 거 같은데 어떠셨어요?

사업은 기존에 하던 사업들의 폭이 넓어지니까 그렇고. 조직화의 관점에서 사업을 못한 측면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여성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만들어져 있긴 한데 그걸 차고 갈 활동가 역량을 키우지 못한 거죠.

지회장님하고 내하고 사업을 치고 갔다라고 보면 되고 운영위원들은 같이 결합하고 도와준 역할이고, 회원들도 그런 역할이었지. 성장해서 내 사업처럼 만들어가고 이렇게는 못했던 거지.

Q. 동 여성회의 리더들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셨을텐데 그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초기에는 지회장, 총무, 소모임장으로 구성했었지만 현재는 6명 정도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역할별로도 나눠봤고, 책임제 비슷한 걸 해봐도 역할을 잘 치고 가지 못했어요. 회원 챙긴다고 회원 담당처럼 담당제를 뒀었는데 그거도 잘 안됐어요. 주로 지회장이 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게 회계나 총무 정도만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명곡동 여성회 회원들이 전부 일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도 있고요.

Q. 운영위원회 들어오는 회원들은 핵심 회원들인 거잖아요. 명곡동 핵심 회원들을 성장시키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얘기해 주세요.

역할 중심, 일 중심 이렇게 편재를 했던 과정이 있고. 하나는 지회장을 세우면 '지회장을 중심으로 모든 게 다 굴러가고 조직 체계가 구성이 되는데 운영위원들의 역할들을 키우는 역할을 내가 한다' 라고 하는 걸 지회장하고 합의 과정을 밟지 않은 측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회장님 간부로 성장하는 거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는 측면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 운영위원들이 편만한 관계는 형성돼있지만, 운영위원들이 성장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친 면도 있죠. 지금은 운영위원들이 의리, 정 이런 걸로 묶여서 같이 해오고는 있는데 여성회를 통해서 뭔가 해야되겠다 이런 걸 갖고 있지는 못하다는 거죠.

Q. 창원여성회 전체적으로 활동가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나 이후의 활동방향은 어떻게 잡고 있으신가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 운영위원 다를 끌고 갈 수는 없고, 일부는 결합도 잘 안되기도 하고 활동할 때 결합해서 역할만 하겠다 이런 수준이니까, 지회장님하고 의논한 건 새로운 사업을 해서 사람을 찾는 것에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명곡주민회 발족하고나면 기존 연대사업을 그 힘으로 가고 여성회 힘은 좀 덜고, 여성회는 그걸 좀 채워가는 중심으로 하면 안 되겠냐, 이래 생각하고 있어요.

Q. 새로운 사람을 찾기 위한 새로운 사업으로 어떤 활동을 계획 중이신가요?

최근에 새로 공간(사무실)을 만들었으니, 사람들이 와서 만날 수 있는 대중사업들을 하자. 하반기에 학부모 교육 사업을 하려고 해요. 여성회가 지향하려고 하는 학부모 교육과 관련한 영역이 있으니까 교육사업을 하고 그걸 통해서 후속모임도 해나가려고 해요. 문화모임도 할 수 있고, 강좌나 이런 걸 열어서 그분들이 와서 이용하고. 그런 걸 통해서 만나지는 사람들과 함께 어쨌든 모임을 해야 되는 거죠. 여성회 월례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체 모임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심을 두려고요.

Q. 운영위원들도 그렇고 이 지역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잖아요, 일하는 여성들을 염두에 두고 소모임 동아리 구성하고 활동가를 성장시킨다든지 고민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현재 여성회 일하는 회원들이 여성회를 통해서 얻는 게 없는 거죠, 실제로. 활동에 결합해라, 월례회 참가해라 이런 정도의 내용 말고는 주는 게 없고. 그렇다고 해서 강좌나 이런 걸 창원여성회가 하는 건 땡기는 것도 아니고. 그 회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요구가 뭔지가 파악도 안돼있고. 몸살리나 이런 것들을 하면 본인한테 필요한 게 될 수 있으니까 여성회와 함께 결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찾아볼 수도 있고. 낮이든 저녁이든, 회원들은 그런 문화적인 요구,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정도로만 현재 기존회원들은 생각하고. 그 외 지금 행복한 부모학교를 할 건데, 그런 걸 통해서 오시는 분들하고 소모임 만들고 그 분들하고 책임기든 인문학이든 공부하는 모임이 되었던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여기 결합할 수 있는 성원이 있으면 같이 결합하고. 일하는 회원들을 위해서 뭔가를 제공해줄 수 있는 아이디어가 없고, 문화적인 부분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Q. 회원확대 프로그램을 지부가 아니라 지회에서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했던 부분이 소모임 동아리 이런 활

동을 강화하는 것인가요?

자기가 직접 운영하는 모임이나 동아리를 해서 일을 맡아 봐야 활동가로 성장을 하는 건데, 현재는 그런 체계가 아예 없는거지요. 사업만 있고 운영위, 월례회 있고 이러면, 사업은 공동으로 하고 운영위원들이 자기가 맡은 일만 하면 되는거니까요.

문화모임이든 교육모임이든 그런 모임을 자기가 운영을 해봐야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기 요구가 생기는데. 그 역할이 안 주어지고는 성장이 안되는 거죠. 지회에서 아무리 프로그램 만들어 놓는다 해도, 지식은 쌓을 수는 있는데 뭔가 성장될 수 있는 건, 자기 역할이 있어야지. 작은 거라도 운영해보는 게 좋을거 같아서 그럴 수 있는 틀을 하반기에는 어쨌든 만들어 보려고 해요. 다는 못할 거고 4명한테라도 하려고 해요.

Q. 본부랑 지부에서 하는 활동가 워크숍이나 교육에는 지회장님과 운영위원들이 참여해본 경험들이 많나요?

본부 사업은 주로 낮에 하기 때문에 지회장님 말고는 결합 못해요.

그것도 주로 토요일 하는데 지회장님이 토요일은 안되는 경우가 많아서 어려움이 있어요. 다른 운영위원들은 토요일 시간에 가기는 어려워서 결합이 힘든 상황이에요.

Q. 여성활동가 발굴 문제가 어느 조직에서든 항상 고민인데 지금 명곡 말고도 전체적으로 창원여성회 고민이기도 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회별로 교육소모임 형태로 공부하는 모임을 하나씩 만들자. 이런 결의를 했어요. 하지만 지회로 와서 보면 만만치 않아요.

봉림지회가 공주모임(공부하는 주부모임)을 오래전부터 해왔으니까 그 모임은 하는데 그 부분도 활동가 성장을 위한 형식으로 가야하는 건지는 고민이 좀 있는 거 같기도 해요

Q. 여성회 내의 활동가발굴 육성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는 어디인가요?

상집에서 진행되고 있구요. 상집은 봉림지회, 명곡지회의 2명의 의원이 함께 결합해서 실제로 지역사업을 어떻게 해 가는지 같이 논의하고 고민하는 단위로 구성했어요.

근데 하다보니까 매주 하는 상집에서 사업점검하고 이렇게 돼서 여성회 운영위가 잘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상집을 한 달에 한번 하기로 했어요. 활동가 육성 점검단위가 상집이 되는 거죠.

Q. 본인이 생각하는 여성운동, 여성주의는 무엇인지 얘기해주세요.

여성주의라고 하다보니까 여성주의가 조합주의와 똑같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성주의를 너무 강조하니까. 운동으로까지 가기 보다는 실제 거기만 매몰되는 거 같고.

예를 들어, 여성주의만 하다보면, 성폭력 문제라고 할 때 성폭력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게 운동의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요.

운동이라는 게 진보운동 내에서 포괄되는 여성운동, 이런 게 같이 가야되는데 진보운동도 별개로 가버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실제로 있는 거 같아요. 여성회 내에서도. 이것 때문에 참 많이 싸웠어요. 활동가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애 키우는 여성들이 다 그렇지, 힘들지, 그래서 이런 건 이 정도는 봐 줘야 된다.' 그걸 이해하는 것과, 같이 해결하는 것은 다른데 그걸 여성주의로 포괄해서 이해를 해 버린다거나 하는 게 힘이 들었어요.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하는 친구인데도 여성학과 여성주의 여성정체성 요것만 얘기하고, 너무 사안에 민감해지더라고. 여성주의를 하면 그래야 되는가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여성주의를 하면 남성과 대립되는 것만 얘기되는 것 같고. 어떻게 정리를 해야될지 모르겠다. 굉장히 힘들더라고.

Q. 여성주의와 여성운동은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여성운동이 여성주의에서 비롯해서 할 순 있는데, 잘못 해버리면 조합주의를 해버린다고 생각해요.

여성주의는 여성이 갖고 있는 어려움, 문제를 헤쳐나가는 부분만 하려고 하는 것만 여성운동이라고 하는거죠. 실제 여성의 삶을 이해한다는 이런 측면보다, 그런 것과 관련한 사업들만 하려고 하는게 강한거죠. 여성으로 태어나

서 겪고 있는 삶의 무게라는 게 그 처지와 사회적 운동과 환경과 문제와 이런 것들을 해결해나가는 게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여성 스스로가 해결을 하지만 사회 진보운동과 함께 하지 않으면 실제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여성들만 여성문제만 가지고 해결을 한다, 이렇게 느껴지는거죠. 게다가 그들을 주체로 세워서 그 운동을 하게라도 해야되는데 그렇지 못 하고, 자꾸 거기만 딱 빠져있는 듯한 느낌.

그래서 여성주의라 쓰면 안 되겠다, 주의를 붙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차라리 여성운동 하면 되지, 여성주의는 아닌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Q. 그럼 자신이 하려고 하는 여성운동이 뭔지 얘기해주세요.

여성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일자리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노동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성폭력, 가정폭력을 비롯해 여성으로서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차별과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같이 해결하고 하면 되는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성 스스로가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찾고, 그 문제를 자기 스스로 알 수 있도록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운동으로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건 하진 않고 여성주의만 한다는 게, 그것과 관련한 문제를 가지고 사업만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 문제의식이 있어요.

실제로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건데, 여성들의 삶이 바뀌고 사회 구조가 바뀌어야 하는 건데 여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까지는 안 한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여성운동으로 가면 좋겠다고 표현한 거죠.

Q. 의원과 함께 활동한 동여성회로서 명곡동여성회가 그동안 만들어온 성과는 어떤 점들이 있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의원과 함께 하면서 명곡동 여성회가 계속 진행해 온 것은 의제사업이었어요. '동네를 변화시키는 여성회'를 주제로 쪽 걸어왔으니까요.

문화제, 장터나 알뜰장터도 '아이들이 참여하면서 놀이터 문화를 바꿔보자'는 취지로 진행했고 문화제 장소도 놀이터에서 장터를 준비하고 놀이터 변화시키기 위해서 모래도 뒤집어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놀이터가 실제 변화가 일어났어요.

행정기관에서 우리가 하던 모래뒤집기를 하고, 놀이기구도 바뀌게 되고 놀이터 풍경이 변하는 과정들을 만들어냈어요. 그 과정들을 회원들도 보고 주민들도 보았던 거죠. 의원되기 이전부터 명곡여성회 초기부터 쪽 해왔던 일이었기 때문에 의미가 더 컸어요.

마을의 변화가 그렇게 시작됐어요. 어린이들을 위한 동네 놀이 문화가 없어, 전교조가 크게 하나로 했던 어린이날 행사를 동네로 들어가는 마을행사로 기획하자고 제안해서 지역연대행사로 만들어 냈어요. 명곡에서 여성회가 주축이 돼서 아이들과 엄마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행사를 진행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어요.

학부모들이 만들어가는 우리동네 어린이날 행사, 이런 것을 고민하고 여성회가 문화를 형성해주고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단체로 하려고 했던 건데,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계속 진행형 행사라 조금씩 만들어 가려고 해요.

마을모니터 사업도 여성회에서 요원들을 모집해서 자체적으로 교육하고난 후에 놀이터 조사, 학교주변 조사, 보도블럭 조사를 하면서 여성들이 다니기 안전한지 여부를 조사하고, 동과 시에 결과를 전달하는 활동을 했죠. 의원 혼자서 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회원들과 함께 만들면서 회의 성과로 만드는데, 그러면서 실제 변화되는 모습도 보고, 의원이 같이 해서 변화가 있다고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조사해서 하면 뭔가 된다는 것을 느끼게 한 거죠. 올해는 안전한마을만들기를 위한 활동을 함께 하고 있어요.

이런 과정들이 길지는 않았지만 명곡여성회는 동네를 좋은 방향으로 변화를 시키는 좋은 활동을 하는 곳으로 인식이 되어졌어요.

Q.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명곡여성회가 동네에서 위상은 높아졌겠네요?

그렇죠. 여성회가 위상이 높아졌다는건 좋은 측면과 안좋은 측면이 있어요. 좋은 점은 그 외의 조직들은 여성회가 꾸준히 활동해온거니까 후원하거나 함께 하는 면이 있구요. 안좋은 측면은, 기존의 관변조직들은 같이할 법도 한데도, 여성회가 연관되어 있다고 하면 무조건 안하거나 태클거는게 있죠. 그냥 정치적으로 보는데 안타까운게 있죠. 자기들이 하는데도 안끼워주고. 거기에 연연해하지는 않죠.

Q. 주민들의 입장에서 어떤가요?

명서시장에서는 여성회 활동을 계속 봐왔고, 여성회도 시장에 적극적으로 해오려고 했으니까 낯설지 않은 조직으로 받아들여요. 도계동은 얼마전에 이사 와서 아직은 연계가 많지는 않아도 요구는 높은 것 같아요. 어린이날 행사도 도계동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Q. 정치활동과 관련해 선거 때 이외에 회원이나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여성회를 통해서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 접촉면을 높이는 것이고, 그 외에는 의원으로서 지역에서 사안별로 결합하는거죠. 예를 들면, 명서2동에서는 주민들 만나면서 들어보니까 주민들 요구와 상관없이 시에서 시유지를 개인에게 팔아버린 일이 있어서, 주민들 발동해서 대책위 꾸리고 항의하도록 조직했죠. 내가 만나서도 주민들에게 조언만 해주고 내용만들어주고 자료 공개해주고. 그걸 통해서 공청회하고, 결국 원래 주민 요구대로 시유지 환수하게 됐죠. 그 땅은 나중에 도시계획에 따라 주민 요구에 따라 뭔가를 만들게 되겠죠.

그런 과정에서 명서2동에서는 주민들이 무슨 일만 생기면 나한테 와요. 같이 싸운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고나니까 거기 주민들은 다른 당 의원이 뭘 만들어도, 강의원이 만들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문제가 될만한 소지들을 통장회의 등에 가서 듣게 되면, 그때마다 판단해보고 의원이 공무원과 해결할만한 일이면 그냥 그렇게 하고, 같이 해결해야할 문제다 싶으면 주민들에게 문제를 흘려서 대책위 꾸려서 해결하게 되는거죠. 다만 그 과정을 여성회가 함께 하지는 못하게 참 안타깝죠. 의원으로서는 함께할 수 있는 주민조직같은 파트너가 꼭 필요하죠.

Q. 의원이 되면서 확실히 지역의 사안들은 많이 알게 되겠네요.

정보가 있으니까. 예전에는 우리에게 딱 막힌 정보고, 누구에게 물어봐도 알려주지도 않았던거죠. 의원이니깐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지역 차원의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이걸 주민조직이 함께할 수 있으면 정말 좋죠. 지역사안 관련한 대책위들도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해소되거든요. 물론 다른 문제가 생기면 또 모이지만. 그런 것이 좋은 지역 자원이죠. 그런데 의원 개인이 그걸 다 챙길수가 없으니까 많이 놓치고 가는게 아쉽죠.

그래도 주민들과 결합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저에게 보호막이 되어주기도 하더라고요. 나는 주민들이 한 얘기만 정리해서 공청회에서 얘기한건데도, 주민들은 ‘강의원이 우리 동네에 있어서~’라면서, 누가 진보당이 어찌고 하면서 나를 미워하니까 주민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소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2. 박정미 (명곡여성회장)

Q. 창원여성회 활동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경남여성회 회원일 때부터 창원여성회 만들어질때부터 같이 했죠. 강영희, 강성훈, 제가 서로 알고 있었는데, 동네에서 여성모임을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냐가 해서 여성회 가입을 하고 동여성회를 만든거죠.

Q. 가장 재미있었거나 인상적이었거나, 혹은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었던 활동의 경험은 어떤거였어요?

놀이터 실태조사를 했거든요. 샘플링을 해서, 직접 놀이터 다니면서 놀이기구가 낙후되었거나 위험한지, 모래를 깊이 파봤을 때 모래의 높이나 깊이, 땅속의 상태라든지. 외곽지역(동읍, 북면)까지 짝 다 돌아다니며 조사를 했거든요.

그렇게 조사해서 데이터를 동 담당 행정과에 넣어서(제안해서) 놀이시설이 변화되고 모래도 교체되고, 이런 변화들이 있을 때 참 재미있고, 나 하나가 아니라 뭔가를 같이 해서 좋은 뜻을 가지고 하면 뭔가를 이뤄낼 수 있겠다

는 보람이 있었어요.

Q. 놀이터 조사활동은 창원여성회 초기에 했던 활동이지요?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 실태 조사도 하고, 모래뒤집기, 문화제, 놀이터에서 아이들 뛰어놀 수 있는 알뜰장터도 하게 되고. 알뜰장터와 놀이터문화제는 계속 한 7년 정도 하고 있어요.

창원여성회 사무실 안에서 방과후 공부방 이런 것도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체험도 하고, 공부도 가르쳐주기도 하고, 어린이날 행사도 여성회와 지역 단체들이 공동주최로 하고, 부모들 대상으로 부모교육이나 자녀들 진로교육도 하고. 첫아이 학교보내기 사업도 했었어요.

Q. 여성회 초창기 멤버로서 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다가, 작년에 지회장까지 되셨는데, 스스로 어떤 과정을 통해 활동가로 성장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제 성격이 원래, 뭔가를 하나 하게되면 한 우물을 판다고 할까요.

처음에는 같이 하니깐 좋았고, 사람들이 좋아서 했고. 같이 하니깐 힘이 되고, 여성회에서 하는 교육이 있으면 같이 들어보기도 하고.

사실은 그런 교육을 들을 때에는 '내가 꼭 들어야되나', '이런건 조금 어렵네', 하는 생각도 했죠. 처음에 지회장을 맡을 때에는 진짜 부담이 많이 됐어요. 내가 진짜 활동가일까, 활동가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지금은 지회장한지 거의 2년쯤 됐죠. 어쨌든 하면서 이게 내 일이고, 지금 현재론 내가 해야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냥 하는거예요.

Q. 지회장을 시작하면서 부담스럽긴 해도 지회장으로서 가진 포부나 꿈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지회장을 시작하면서 가진 포부와 꿈, 목표는 무엇이었나요?

회원들과 함께 뭔가를 만들어간다는 것, 같이 성장한다는 것,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고, 자기성취감을 얻어갈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사람도 남겨간다면 좋겠다.

회원들이 뭔가로 하나로 묶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회장을 하게 됐어요.

Q. 명곡여성회 지회장으로 가지는 포부와 꿈을 실현하기 위해 본인이 특별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게 있는지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회원들이나 지역에 사는 분들과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가고, 회원들과도 그런 관계를 잘 만들어가고,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힘을 보태서 풀 수도 있고. 힘듬과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Q. 명곡여성회가 하려고 하는 목적은 뭔가요? 이루려고 하는 것은?

여성이 행복한 마을.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마을.

여성회를 통해서 엄마가 건강해진다면, 작은 공동체적인 마을이 되지 않을까.

Q. 지부나 본부에서 하는 교육들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큰 변화나 영향을 주었거나 기억에 남는 교육이 있다면 어떤 건지요?

여성학강의라고 몇 년 전에 박영미 대표님과 몇 강을 가지고 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게 좀 다른 시각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시각을 넘어서 새롭게 볼 수 있었던 계기였죠.

안전한마을만들기 교육중에 성인지적 활동가양성과정을 4강 했거든요. 세 번째 강의에 박영미 대표님 오셔서, 큰 욕심 부리지 말고 내 주위를 작게부터 보고 시작하라는 말을 할 때, 다른 지역의 사례를 얘기해주셨거든요. 우리도 저게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도 저렇게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약간은 기대, 흥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Q. 활동가로 성장하는데 있어서 프로그램이나 체계로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었나요?

본부에서 회원들에게 여성학강의나 리더십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받아보 니 참 좋더라구요. 내가 하고 있는 활동에 체계적인 교육을 받게 되면서, 나와 접목시켜서 하는 것이 좋구나, 이 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은) 지회가 회원들을 많이 모집해서 이런 교육을 들어야 되는데, 본부와 지부가 이게 잘 안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교육을 받았을 때 개인의 역량강화라든지 지회가 탄탄하게 갈 수 있는 구심점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 금은 조금 약하지 않나. 지속적인 교육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Q. 지회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풀리지 않는 고민들은 뭔가요?

지회 회원들 연령층이 다양하거든요. 젊은 엄마들도 있고 나이든 분들도 있고. 내용적으로 아우르기 어렵구요. 맞벌이도 많고 살기도 팍팍하고 낮에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분들도 활동참여는 못하더라도 회비 로 마음을 보여주는 하는데, 여성회를 통해서 같이 엮여서 서로가 끈끈하게 가면 좋겠는데, 그게 숙제인 것 같 아요.

지회 운영위, 월례회를 통해서 사업을 해가는데, 회원들의 요구를 모아내는 것이 부족한 것 같아요. 회원들이 자 신이 원하는 것이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도 있을텐데.

Q. 본인이 새로 활동가로 성장시키고 싶은(있는) 회원이 있나요?

글쎄... 일하시는 분들만 운영위로 꾸려가고 있는 상황이라. 이분들 말고 새로운 활동가를 만들어야 되는게 목표 고 관건이에요.

Q. 새로운 활동가를 만들 계획은 있습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만나고 만들건가 이런..

현재 하고 있는 안전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새롭게 참여하게 된 사람들을 (회원 가입시켜) 역량 있는 회원 들로 키우는 것을 욕심을 부려보고 있어요.

하반기에는 부모교육을 해서 후속모임을 책임기모임을 만들어서 사람을 발굴해 내는 거죠.

Q. 하반기에는 소모임을 만드시려고 하는거잖아요. 그 전에는 소모임을 조직했던 경험이 없으신가요?

그 전에도 소모임을 해볼까 했는데, 잘 안되더라구요. 소모임을 하려면 누군가 장으로 세워서 활성화시키려고 했 는데, 그 사람이 부담감이 없잖아있었죠.

회원들을 소모임으로 묶어보려고 하는데. 하반기 부모교육 홍보안은 다 짰구요, 그걸 통해서 그분들을 좀 묶어낼 수 있는 것까지 고민을 해보자고 하고 있어요.

Q. 본인이 하시는 풀뿌리 여성운동은 어떤건가요?

본능적으로 여성들이든 누구든지 스스로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스스로 움직여서 바꿔내고 변화시켜낸다는 것. 우리 여성회가 그렇게 만들어나가는 것도, 여성이 안전한 마을만들기라든지를 통해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낸다는 것. 자발적으로 움직여지는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닐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게 풀뿌리여성운동이 아닌가. 그래서 그 모인 힘이 변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거죠. 정치적인 힘이라든지. 마을의 변화라든지. 학교의 변화라든지.

Q. 활동하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과제는 뭔가요?

적극적인 리더십을 가지게 부족한 것 같아요. 뭔가 부딪히고 깨지더라도 목표점을 설정하면 그렇게 하자고 해 야되는데, 자신감이 부족한거죠. 이왕 하려면 똑바로 해보자 싶기도 하고.

여성회 일이라는거 자체가, 어떤 목적의식이 확실하지 않으면, 내가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여성회가 어떤거고, 여 성회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며, 어떤걸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일상적인 만남을 통해서 얘기하는 부분에서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여성회 활동을 뭘 해야되고 풀뿌리운동이 어떤건가, 내 속에서 각인이 안됐기 때문에 더 멀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아닌지. 그러기도 하고, 회원들에게 얘기할 때 자신이 없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Q. 명곡여성회를 통해 어떤 정치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창원여성회 안에서도 정치적으로 이슈되는 부분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거기에 동참하는 것, 그 역할을 하는 것도. 이슈에 저희 지회가 같이 맞춰서 하는 것도 생활정치의 실현이고, 회원들과 같이 만들어낸다면 그것도 생활정치의 한 부분이 아닐까.

학교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안전펜스가 설치된 것도 하나의 생활정치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회원들이 조사를 쫓 해서 없는 지역은 만들어지게 된거니까. 회원들도 자신들이 만들어낸 변화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자랑스럽게 얘기하기도 하고.

Q. 명곡은 의원이 있잖아요. 의원이 있고 없다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저는 엄청 크다고 생각해요. 확연하게, 활동영역에 있어서도 많은 힘을 실어준다고 해야되나. 그전에는 창원여성회에 대해 사람들이 그렇게 큰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거든요. 여성회를 외부적으로 알릴 수 있는데도 굉장한 힘이 되구요. 지역에서나 동네에서 행사를 한다고 할 때에도 영향력이 남다르죠. 회원들은 의원이 있어서 심리적으로 든든해요.

Q. 여성회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삶과 가족의 삶에서 변화된 부분이 있는지?

제가 힘들어도 힘들다고 표현을 잘 안하는 성격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이긴하나, 이전보다는 좀 더 적극적이고 활동적이고 표현을 하면서 좀 더 당당해지려고 노력하는거죠.

(가족과의 관계에서는) 처음에는 저녁에 모임을 많이 하면서 남편과 굉장히 마찰이 있었어요.

이제는 여성회 활동이나 다른 활동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편이에요. 지원도 해주고. 같이 동참해서 하기도 하고. 행사할 때 시간날 때 같이 활동도 하구요. 회의공간이 없으면 저희집을 내주기도 하고 사람들 오는 것도 좋아하고.

Q. 그렇게 힘들 때에는 그 어려움과 고민은 어떻게 해소하려고 합니까?

힘들어도 그냥 하는거죠. 하다보면 그냥 잊어버리기도 하고, 좋을 때도 있고 보람을 느낄 때도 있고. 흐름을 타고 가는거죠.

힘들어도 계속 하는 건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우리가 하려고 했던 원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함께 참고 하는거죠.

그래서 저는 성장한 활동가가 아니라, 진행형 활동가라니까요.

3. 서영옥 (성산지부장, 전 사파대방여성회장)

Q. 여성회 활동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저는 창원여성회 창립 이전부터 같이 했어요. 처음 계기는 3.8여성대회였던 것 같아요. 저희 지회는 풍물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고, 여성들 중심으로 쫓 모여서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해든누리라고. 풍물팀을 만든 거죠.

풍물을 하다보니 3.8 여성대회나 집회나 이런 데 가게 됐거든요. 창원여성회 다른 지회와 다른 여성단체 행사에도 풍물공연하면서 참여하고. 참석하다보면 집회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쫓 보면서 사람들의 시각이 좀 달라지더라구요. 자연스럽게 뒷풀이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점차 우리도 다른 동네처럼 여성회를 만들자는 요구가 있었고, 우리도 동아리로만 끝내지 말고 명곡이나 봉림처럼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사파대방동 여성회를 바로 만들게 된 거죠.

Q. 풍물패팀 중심으로 활동하다가 지회를 만들어보려고 했다는거죠?

풍물만 하다보니까 한계가 늘 있는 거예요. 이젠 말 그대로 동아리니까. 다른 동네처럼 갯벌체험도 하고, 우리 동네에서 뭐 좀 해봐야지 않나 이런 요구들이 올라오는 거죠. 그걸 풍물단 이름으로 하지는 못하잖아요. 풍물하지 않는 사람은 들어오기가 좀 그랬던거죠. 2008년인가 지회창립을 하면서 풍물은 동아리로 남아있고, 다른 동네에서 하듯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죠. 첫 해에는 굉장히 할려고 했던 게 많았어요. 풍물, 체험, 교육적인 거, 등산반 만드는 거, 문학 산책, 정기적으로 월례회 해야 되지. 일정들을 너무 과도하게 많이 잡았어요, 1년 동안. 지회장이 창원여성회 상근은 하고 있지. 뭔가는 제대로 안 되지. 그러니까 두 번째 해부터는 사업을 반 이상 확 줄이고. 할 수 있는 것만 잡아서 해보자. 그렇게 좀 했죠.

Q. 당시에 창원여성회 상근과 지회장을 겸임하셨나요?

네. 일자리 사업을 담당하면서 지회장 역할을 같이 했었던 거죠.

Q. 두 개를 같이 하기가 어려웠다는 얘기사잖아요.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를 포기하신 건가요?

당시에 창원여성회에서는 뭐든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사무실에 상근자도 필요했고 또 지회장도 해야 되는 역할이 있으니까. 어차피 지회 일도 여성회일이니까, 상근 일을 빨리 처리해놓고 간다든지, 회의는 저녁으로 잡는다든지. 역할을 한 가지에 집중을 못하다 보니까 회원 확대가 마음만큼 되지 않았던 거. 또 됐더라도 관리를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죠. 지속적으로 만나고 교육하고 함께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하니까.

Q. 그런 문제는 어떻게 극복했어요?

계속 얘기한 부분이 지회장은 지회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1년 반 상근했나, 상근할 때 제가 아팠어요. 여성회 상근은 안 되겠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서 마을로 다시 내려오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지회 일을 하게 된 거죠. 다시 사람들 챙기고 만나고.

Q. 현재 사파대방지회의 회원수와 회원구성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오신 분들인지?

회원은 40명 정도예요. 3년에 걸쳐서 역사체험을 하고 매년 봄에 행사가 있어요. 3월에는 운동회, 5월에는 어린이날 행사, 상반기에 역사교육과 여름방학 때 체험이 있죠. 첫 해에는 거의 두 달에 한 번씩 역사체험을 외부로 나왔는데, 홍보를 보고 오시더라고요. 요구도 맞고 재미도 있고. 그러니까 쪽쪽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로 그렇게 들어와 가지고, 가입은 안 하고 교육만 들으려고 들어왔다가 나가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 중에 몇 분 정도는 쪽 활동 소개하고 활동할 때마다 부르고 이러면 가입도 하고, 자기가 해보니까 재밌으니까 친구들 데리고 오기도 하고. 연령대는 30대가 좀 많죠. 30대에서 40대 중반까지 있는 거 같아요. 20대도 간혹 있고. 일하는 회원들은 많이 없어요. 좀 사는 동네이기도 하고, 또 애가 어리다보니까 아직은 직장생활을 할려고 하는 사람도, 있기는 한데.

Q. 20대들은 결혼한 분들이에요?

20대긴 한데 결혼을 벌써 한 사람들이예요. 미혼들은 들어왔다가 사실 우리하고 조금 안 맞는 게 있어요. 활동들이 미혼들한테 좀 안 맞죠.

Q. 애들 관련해서 맞춰져 있거나 애 키우는 엄마와 관련해서 맞춰져 있어서 그런 거죠?

우리처럼 이렇게 활동을 하면 회원 확대는 많이 돼요. 그런데 자기들 요구가 없어지면 활동을 안 해. 그래서 작년 부터 이 방법은 너무 소모적인 거 같다. 병행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특히 정치적인 성향이 안 맞거나 아니면 선거 같은 게 있을 때, 생각이 많이 다른 사람이 있거나 그랬을 때 좀

혼란이 있더라구요.

교육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 우리 활동을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활동가들이 하고 있는 활동하고, 일반 마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활동하고 갭이 있는 거죠.

Q. 활동가로서의 활동과 마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활동의 갭이란?

여성회의 활동가들이 활동하는 거랑 마을에 있는 여성들의 활동이 달라요.

왜냐면 서로의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그 갭을 계속 좁혀가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자기 요구와 맞지 않으면 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시도한 게 월례회 때 교육을 좀 시사적인 것들을 보여주고 토론하는 것들을 좀 잡았어요.

작년 선거 전에 회원들이 모여서 유신의 추억을 봤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라구요, 어머 세상에 하면서. 그러면서 올해 근현대사 교육을 쪽 하고, 역사기행도 잡았는데 맞았죠.

Q. 근현대사 교육을 어떻게 했어요?

저희 지부에서 해마다 하는 사업으로 역사기행을 하는데, 올해는 다시 보는 한국 현대사를 집중적으로 교육을 했죠. 3시간씩 5강. 이거 들었던 사람들은 역사를 다시 보게 된 거 같아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더라구요.

올 초에 다시 보는 한국 현대사 하기 전에, 지역에서 평화교육 처음 들어갔을 때는, ‘너무 센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 교육 끝나고 나서 다시 평화 교육을 하니깐 다들 공감을 하더라구요. 평화지킴이 이런 걸 했을 때 막 서명도 하고 받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달라지더라구요.

월례회 때도 의도적으로 그런 영상들을 죽 찾아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좋았다는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거 같아요.

Q. 그러면 역사교육에는 기존 회원들이 거의 참여하겠네요?

첫 해에 역사교육 했을 때,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30명 이상 왔더라구요. 회원들도 교육이 안 돼 있는데 일반 여성들 대상으로 하는 거가 그다지 큰 효과는 없었던 거 같아요.

우리는 회원 확대는 갯벌체험이나 체험을 통해서 많이 되는데 회원 의식화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지 않나 해서 회원교육으로 바꾼 거죠. 주로 회원들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홍보해서 이런 걸 들어올 정도면 회원 가입도 하시더라구요.

Q. 그런데 왜 별 효과가 없었지요?

첫 해에 역사 교육을 여성들을 중심으로 잡긴 했는데, 체험을 가족체험으로 잡은 거예요. 교육은 엄마들이 듣는데 체험 갔을 때는 아이들 체험이 된 거예요. 엄마들 요구도 그랬고. 실제로 오는 엄마들도 자기가 배워서 자기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주려고 오셨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하반기에 이런 교육이 없거나 하면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부터 많은 인원 할 필요 없이 회원 대상이나 소수로 해서 집중적으로, 아이들이 아닌 자기 공부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들어왔던 거 같아요.

Q. 사실 엄마라는 걸 매개로 사업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애들이 어리다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큰 애 연령대가 맞는 엄마들이랑도 소통되는 거고, 지금 구성원들은 작은 애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이 또래 엄마들이 제일 많아요.

풍물 신입회원 받아들이면서 ‘도담다담’이라는 아이들 난타팀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또래 엄마들이 쪽 들어왔어요. 물론 내가 아는 엄마들이 많이 했고. 공교롭게도 같이 활동하는 회원들이 다 애들 나이가 비슷했던 거 같아요.

Q. 사실 애들 프로그램 위주로 하면, 엄마들이 오긴 오는데 조직화는 많이 안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난타든 체험이든 무조건 차등화를 줬어요. 회비 할인이 되는 거죠. 애 하고 엄마하고 둘 다 난타를 배우게 되면은 일반 회원은 삼만 원 받는 거 여성회원은 2만원 받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가입을 하게 되고, 가입을 하면 월례회나 다른 기회들이 많잖아요. 그걸 통해서 또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는 거죠. 월례회나 모든 일정에는 무조건 분리를 하죠. 애들은 애들끼리, 엄마들은 엄마들끼리. 엄마랑 애랑 같이 하니까 엄마들이 애만 보게 되고 아무 것도 안 되는 거예요.

Q. 지부와 지회는 어떻게 역할을 분담해서 활동하고 있나요?

신입회원 교육, 역사체험 프로그램, 프로젝트 지원하는 거, 이런 큰 사업들은 지부가 다 하는 거죠. 지회는 월례회, 소모임하고. 어린이날 행사 같은 것도 각 지회별로 하고. 교육진행은 지회 운영위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 뭐 준비역할이 다 정해져있어요. 대략적인 건 지회장, 지부장, 지부 사무국장이 논의를 많이 하죠.

Q. 월례회나 교육 외에 회원들의 요구와 필요를 꼬집어내고 그걸 발현시키기 위한 노력이 또 어떤 게 있는지 얘기해주세요.

한진 집회라든지 지금 있는 국정원 집회라든지, 밀양, 진주의료원, ... 이런 것들을 알고는 있고 공감은 하는데 누구 하나 같이 가자는 사람이 없어서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회원들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조직을 하죠. 그럴 때 밴드를 통해서 일부러 쪽 내용을 올려요. 그럼 그런 거 보고도 여성회에서 이런 것도 하네, 몰랐던 걸 많이 알게 되는 모양이더라구요. 댓글을 달거나 아니면 다음 월례회 때 그 얘기를 꼭 하시더라구요. 그런 거 올려주니까 너무 좋다. 그러면 다음 갈 때 같이 가자 이래가지고 같이 데려가기도 하고.

Q. 현재 본인이 하고 있는 여성운동, 여성주의는 어떤건가요? 현재 하고 있는 여성운동의 목표와 목적이 어떤 건지요?

제가 사실은 여성주의, 여성회 활동을 오래 하긴 했지만 어떤 여성주의를 가지고 있는 거 같진 않아요. 제가 처음에 여성회에 들어오게된 계기가, 애만 키우고 있었을 때 애를 중심으로 주위에 엄마들을 쫓 만나는 거 같아요. 하루는 이 집에 가서 만나서 놀다 오고, 하루는 또 이 집에 가서 놀다오고, 그런 생활이 2~3년은 됐던 거 같아요. 이게 너무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이 맨날 애들 중심으로. 놀 똑같고 변화가 없고, 내가 성장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애는 계속 크고 있는데 나는 자꾸 안으로 들어가면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옛날에 봉사활동 같이 했던 언니가 여성회 활동 해볼래, 가입하자 그러더라구요. 가입했더니 한번씩 부르대요. 처음에 여성회 들어왔을 때는 보통 여자들이 다 그랬던 거 같아요. 별로 할 얘기 없어요. 처음에 여성회 들어오면. 아는 것도 없고 또 자기가 놀던 세계하고 상당히 다르거든요. 똑똑한 여자들 많이 모여있는 데더라구요. 늘 집에서 애들 중심으로 놀다가 내 얘기를 해야 되니까 나는 별로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여성회 활동 하면서부터 어쨌든 한마디라도 하게 되잖아요. 소개를 해도 내 소개를 하고 내 얘기를 하게 되고, 활동을 하다보니까 할 얘기들을 생기고. 보는 것들도 조금씩 시야가 넓어진다나. 내가 성장하는 것도 느껴지고. 이만큼 뭔가를 할 수 있었던 게 여성회였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가만히 주위를 둘러보면 나처럼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한사람 한사람 여성회를 통해서 자기 성장도 할 수 있고 보는 안목을 키워줬으면 좋겠다, 여성회 활동을 통해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Q. 본인이 성장하고 변화해온 것처럼 다른 여성들도 그랬으면 좋겠다는거죠?

근데 쉽진 않더라구요. 막상 나도 그렇게 성장하는 시간이 몇 년이 걸렸거든요. 여성회 처음 만들었을 때는 그걸 모르고 너무 빨리 왜 저 사람은 바뀌지 않지, 조급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때 봤던 사람들은 1년 있다가 다시 만나게 되면, 다시 만나게 됐을 때는 또 더 쉽게 다가선다나, 더 빨리 흡수가 되더라구요.

**Q. 여성주의, 여성운동은 일단 여성들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찾아내고 발견하고 성장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거
죠? 그러면 본인이 하고있는 여성운동의 목표, 목적은 어떤 것인가요?**

여성이 주체가 돼 가지고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거죠. 뭘 일을 하든지 간에 혼자 하면 안 되잖아요. 힘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을 위한 조직이 필요해요. 여성들도 무슨 활동을 하든지 간에 그 주체가 자기여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사실 여성주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여성주의적 개념이 있어서 활동하게 된 건 아니었으니까. 어떠한 목적으로 해야겠다, 이런 건 정리되어가고 있는 과정인 거 같아요. 끊임없이 여성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교육하기도 하고.

Q. 어떤 교육으로 정리해가고 있나요?

우리에게 맞는 걸 찾는 과정인 거죠. 창원여성회가 지역에서 이만큼 자리 잡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은 아니었던 거 같거든요. 여성회가 만들어지고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고, 여성주의를 생각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다른 사안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여성주의에 대해 정리하고 이렇게 나가야하지 않나’ 그렇게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 경험을 통해서, 이래이래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당당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개인이 성장해야 조직이 성장하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부심을 가지고 이 조직 안에서 발전해야지, 창원여성회 성산 지부 같은 경우도 함께 성장한다고 생각해요.

Q. 개인의 발전, 조직의 발전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개인과 조직의 발전이 같이 충족이 되는게 맞고, 또 오래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내가 하고 싶은 여성운동도 하면서 경제적 보장을 통해 저의 여성회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걸 찾았죠.

나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활동하면서 돈도 벌 수 있는 게 없을까 고민하다가, 풍물을 중심으로, 창원에서 문화를 고민하는 청년들과 같이 사회적 기업을 몇 개월 전에 만들었어요. 제가 대표인데, 아직 수입이 안돼서 제가 돈을 받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활동하는 청년들이나 여성들이 이 안에서 개인의 발전이 있는 거고, 돈도 벌고 여성회 활동도 보장해주고, 이게 되더라구요.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걸 키워낸다면 공동체, 협동조합 같이 다른 것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Q. 여성주의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성주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여성주의는 어떤 거죠?

저는 남들이 얘기하는 여성주의라는 게 되게 어렵더라구요.

굉장히 다양하고 또 여성주의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도 각 단체마다 다 다른 거 같아요.

여성들이라고 해서 꼭 여성들만을 위한, 이건 아닌 거 같거든요. 여성들이 행복해야 뭐 다 행복하다 이런 말도 맞긴 맞아요. 가정을 중심으로 봤을 때, 엄마가 기분 좋고, 엄마가 자기 안에서 행복하면 가족도 다 좋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회 구조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거든요. 조직 안에서도 여성들이 뭔가 자기의 그릇을 찾고 자기 자리를 잘 하고, 성장하면 주위에도 분명히 그런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표현을 잘 못하겠네요.

어떤 사람을 보면 모든 남성들이 다 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대부분의 기득권에 중심으로 있는 사람들이 남성들이긴 해요. 근데 모든 남성들이 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실 때 저거는 좀 안 맞지 않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요. 이러니까 여성들이 욕을 얻어먹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모든 여성운동 하는 사람들을 다 한 뭉텅이로 본다나.

Q. 여성운동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하나요?

네. 남성들이나 여성운동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는 건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칠 수도 있어요. 근데 같은 여성운동 하는 단체가 우리 단체에 대해서 ‘느그가 무슨 여성운동 하는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건 우리 단체를

존중이라기보다는 활동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 관점 잘못됐다고 봐요. 자기가 하는 거는 다 옳고, 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Q. 그런 지적 혹은 비판 혹은 비난 이런 게 올 때, 잘 못 된 거 같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여성주의, 여성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거죠?

호주제 폐지 이런 운동을 하고 있을 때는, 그런 거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때는 여성운동의 이슈가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 특별히, 성폭력이 일어났을 때 그 일 말고는 크게 뭔가 부각되는게 없어보인다나. 또 이거만 찾아서 하거나, 이런 운동만 하기에는, 최근 몇 년 동안 전체적인 사회적 이슈가 너무 많았던 거죠. 그리고 또 여성회든 운동이든 지금은 진보운동을 하는 모든 단체들이 함께 연대하지 않으면 깨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거 같아요. 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Q. 전체적인 사회 이슈를 다루는 건 여성운동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오.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Q. 여성운동 이슈만 하기엔 전체적인 사회적 이슈가 많다 라고 얘기하시니까, 여성운동 이슈는 어느 정도 따로 있고, 사회 운동의 이슈에는 여성운동이 참여하는 수준인 건지, 그 자체가 여성운동의 이슈이기도 한 건지? 어떤 의미인가요?

사회적인 이슈가 여성들의 이슈가 아닐 순 없는 거잖아요. 모든 문제가 다 연결고리인 거잖아요, 여성이 이 사회에 살고 있는 이상, 그렇게 보는 거죠. 어느 한 부분이 여성이 배제되고 돌아가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여성문제가 더 많은 거죠.

Q. 회원이나 활동가들이 여성운동가, 여성주의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 근현대사를 바라보더라도 그 안에 여성들의 활동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부각을 시키려 하는 거죠. 같은 교육을 해도 그런 관점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를 찾는 거고.

얼마 전에 3강에 걸쳐서는 근현대사를 했어요. 다시 쓰는 현대사. 그 책을 중심으로 했죠.

나머지 2강은 뭘 했냐면, 지역에 있는 여성노동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노동운동이, 남성들이 막 이렇게 한 것처럼 이야기 하는데 사실 시작은 여성들이거든요. 경남 창원에서 여성의 역할이 크다 봐요.

대방동은 공장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사는 여성들은 노동을 했거나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근데 이런 교육을 통해 노동운동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건, 여성이 주체적으로 그 운동을 했기 때문에 된 거다, 이런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무조건 교육의 1강 이상은 '여성이 바라보는~' 그런 쪽으로 교육을 해요.

저도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배치를 어떻게 해야될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의논을 하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김해에 있는 역사 속의 여성인물을 찾아보자, 이런 것들을 항상 배치를 하려고 하는 거죠. 노력이라면 그런 노력인 거 같아요.

Q. 여성인물을 찾아보자 이런 건가요?

여성노동사를 찾아보거나 지역에 있는 여성노동자를 만난다거나. 그리고 작년에는 여성노동자가 있는 사업체를 여성회에서 방문하는걸로 했었어요.

올 봄에 진해 동의의료원에서 요양사 아주머니들 대량해고 한 적이 있었어요. 여기가 100%는 아니지만, 거의 복직을 시키고 성공을 했어요. 여성들이 있는 조직이 남성들 있는 조직보다 결집력이 높아요. 여기에 전체 집회할 때, 각 지회별로 지부장이나 지회장이 같이 한다거나 방문을 쫓 하는거죠. 창원에는 공장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접할 기회가 상당히 많은 거 같아요. 여성 투쟁사업장에는 여성회에서 함께 하려고 하고, 회원들이 같이 가기도 하죠.

Q. 여성주의, 여성운동가로서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에서 어려움이나 고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창원여성회 안에 열심히 하는 활동가도 있고 키워야 되는 중간단계 활동가도 있고, 그리고 활동하고는 있지만 초보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는 회원들이 있는 거예요.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데 목적이잖아요. 지회나 지부 활동 같은 경우에는 쉽게 풀어갈 수 있는데, 여성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다가가고 계속 의식화시키기에는 제가 부족하지 않나. 여성주의적 관점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걸 봐도 짚어낼 수 있는데 그걸 짚어내는 눈이 부족하다는 거죠.

Q. 그럼 스스로 그런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회장님이나 창원여성회 운영위나 핵심활동가교육 등을 통해서 많이 충격을 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책을 보고 그 책에 대해서 토론하고 발제하고. 영화도 보고 그걸 한 1년 정도 했었는데, 그런 공부를 계속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도 있는거죠. 핵심활동가들이 공부하지 않으면, 지회 지부도 성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Q. 풀뿌리 여성활동이 보통 엄마로서의 삶과 관련한 활동으로 많이 시작하다보니 전통적인 성역할을 고정한다거나 그런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강화하는데 일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하고, 고민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하고 있는 활동 중에 갯벌체험 같이 아이들 중심으로 활동하려고 하는 활동이 있고, 또 여성을 중심으로 활동하려고 하는 활동, 사회적 이슈 중심으로 하는 활동이 있는 거잖아요. 병행해서 같이 하는 거잖아요.

지금의 (여성들의) 요구와 여성회에서 바라보는 요구가 함께 가야지, 사업이 된달까. 병행해서 같이 하지 않으면 안되죠.

제가 지금까지 여성회 활동 하면서 제 아이를 데리고 항상 집회를 같이 갔던 거예요. 광우병 소고기반대 촛불문화제, 효순이 미선이 사건 때 촛불문화제, 서울에서 하는 3.8여성대회, 그럴 때 이 아이들을 데리고 끊임없이 참석했죠. 이 활동을 하려면 내가 애를 데리고 다녔던 거죠. 신랑이 회사를 그만 두고 애를 보고 있을 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엄마는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경제적으로 돈을 벌진 않아도 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지 친구들 사이에서도 선생님도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관점, 시각에서 굉장히 사회적인 면이 높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엄마를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고, 꼭 돈을 벌어야지 사회활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애도 엄마가 돈을 안 벌지만 활동하는 사람인거지, 가정과 아이들만을 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죠.

Q. 보통 회원들도 처음엔 엄마역할에 관련된 요구로 여성회에 오게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자신의 요구가 변화했던 모습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얘기해주세요.

처음에 제가 큰 애 키울 때 같이 활동했던 분인데, 정말 자기 애 밖에 모르는 거예요. 운영위나 여성회 모임에서 우리랑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도 이 언니는 모든 신경은 애한테 가 있는 거예요. 애들은 애들끼리 있으면서 나름의 규율이 있는건데, 늘 개입하고 관여하고, 여성회 활동과 무관하게 애를 바라보는 관점은 그다지 변하지 않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도 놓지 않고 여성회 활동을 꾸준히 하고, 주위에 여성회 활동하는 다른 언니들이 애 키우는 것도 계속 봐왔죠.

작년부터가는 이 언니가 여성회가 나의 조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조금씩 '우리'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처음에는 느그 여성회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우리 여성회 어쨌으면 좋겠다. 우리 지회 뭐 했으면 좋겠다, 올해 들어서 사무국장이라는 역할을 줬죠. 그랬더니 정말 열심히 해요. 그 전에는 어림도 없었던 것도 지금은 '그래?', 이러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는 거죠. 시간이 많이 필요할 뿐이지, 끊임없이 하다보면 이 언니 같은 경우처럼 변하더라고요.

내가 이 언니를 데리고 와서 같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건데 이 언니가 우리 신입한테 하는 방식이 내가 했던 방식하고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걸 봤을 때 아, 내 방식은 그렇게 틀리진 않았는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변화한 거죠, 이 언니가.

Q. 신입한테 하던 방식이 어떠했나요 ?

모임이나 교육이 있거나 집회가 있으면 늘 데리고 가는 거예요. 못 갈 때도 있지만 늘 챙기는 거죠. 집에 직접 가서 데리고 가고, 어디 가야 되면은 데리고 가기도 하고, 늘 챙겼던 거죠. 빠지지 않고 챙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언니가 신입들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차로, 그 전에 운전도 안하던 사람이 자기가 운전 배워가지고, 자기 신입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오고 챙기고, 그런 방법으로 하더라구요. 그 방법이 처음 내가 느꼈을 때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왜 주위 언니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방법은 아니었나봐요. 이 언니도 딱 그렇게 하더라고. 물론 이 언니가 지금도 막 시각이 완전 달라지진 않았어요. 40년을 살았는데 변화시키려면 40년의 세월이 시간이 필요하다 했거든요. 완전 이게 바꾸기까지는. 그것처럼 시간이 많이 필요할 뿐이지 끊임없이 함께 하다보면 되는거죠.

Q. 그 샘을 변화시킨 건 뭐였던거죠?

여성회 활동가들의 모습인거죠. 활동을 한다 해서 애를 내버려둔 건 아니잖아요. 비록 애랑 같이 있는 시간은 짧지만은 그 시간만큼은 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 한 거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활동가들이 다른 엄마들에 비해서 에너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활동할 때는 활동에 집중하지만 또 집에 가서는 집에 집중하는 거 같거든요. 집에 집중한다는 게 집을 막 치우고 이런 데 집중하는게 아니고 애나 가족들한테 집중을 하려고 하는 거 같아요.

Q. 본인도 그런 변화의 과정이 있었던 건가요?

제가 몇 년 전에 박혜란씨 책을 본 적이 있었는데 가장 인상적인 게 뭐냐면 집에 관련된 거였어요. 저는 집이 지저분하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근데 이 책을 보고나서, '내가 집에 계속 있는 것도 아닌데 집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뭐 있노' 확 공감 이 되는 거예요. 활동하면서 집도 치우고 애도 키우고 공부도 하고 쉬운 일인 게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뭔가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는 뭐 안 생길 정도만 치우고 살면 되는 거를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애랑 같이 있는 시간도 마찬가지로 거 같아요. 많은 시간 있다고 해서, 양질의 뭔가를 하는 거 같진 않아요.

그리고 또 자기만을 위한 시간도 우리는 상당히 많아요. 중심이 가족이라기보다는 활동에너지가 나눠져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활동함으로써 갈수록 애들은 또 자기 아빠랑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빠가 생전 안 하던 설거지를 하고 집안일을 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애랑 같이 밥도 먹고, 사먹든지 해먹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랬을 때 애는 엄마랑 아빠의 역할을 구분짓지 않고. 엄마가 있으면 엄마가 하는 거고, 아빠가 있으면 아빠가 하는 거고, 스그끼리 있으면 스그끼리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Q. 그럼 주제를 바꿔서, 창원여성회와 성산지부, 사파대방지회가 하는 정치적 활동은 어떤 것이 있는가요? 그리고 그런 활동들은 왜 하는지도 얘기해 주세요.

창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명곡이나 봉림이나 다 의원들이 계시는데 통합진보당 의원이 나오기 참 힘든 지역이었어요. 정치적인 성향이. 사파대방 같은 경우에는 진보적인 의원들이 많았어요.

명곡이나 이런데는 여성회 회원들이 직접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그건 활동가 수준이고.

선거운동에, 지회장이거나 저나, 몇 명 정도만 선거할 때 같이 하지. 활동을 막 시작한 회원들은 연고자를 주는 정도. 자기 인맥, 회원들 중에 반 이상은 적어달라 하면 다 적어줘요. 그 정도의 정치활동을 하는 거죠.

Q. 여성회 안에 여성의원들이 있는 것은 회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우리 안에 여성의원들이 있는 걸 회원들이 보잖아요. 의원이 있는 마을이 바뀌는 걸 보면서, 왜 여성의원들이 있어야 되는지, 또 우리가 교육하는 이런 부분을 가장 빨리 바꿀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는 게 정치라는 걸 알게되는거죠. 정치는 말 그대로 생활과 떨어져있는게 아닌거죠.

예를 들어, 똑같은 여성회 활동을 해도 우리가 한 5년 동안 하나의 사안을 바꾸기 위해서 집회하고 서명하고 이

렇게 해도 바뀌지 않던게, 의원 한 분이 딱 배출이 되면서 그게 6개월 안에 바뀐다든지, 바꿀 수 있다든지 이게 힘이더라구요. 그걸 회원들이 보는 거죠. '아! 여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려면 여성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 인지하는 거고. 그렇게 바뀌는 거 같아요.

가장 정치활동을 해야 되는 것도 여성이었던 거 같아요. 바뀌거나 누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근데 여성위원이 나오고 변화하고 하는 걸 보니까 우리 안에서 인식이 바뀌는 거 같아요. 아직 그걸 위해서 자기가 나서거나 행동을 하기에는 부족하지만 뭔가 연고자 찾아달라고 하면 자기 아는 사람의 연락처는 정도는 줄 수 있는 정도까지는 성장한거죠.

Q. 회원들이 직접 지역의 의원과 소통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경험들도 있나요?

한 언니의 경우에도 이 언니는 개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버려지는 유기견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 때 이 언니가 자기 지역구 의원을 찾아가서 요구를 하더라구요. 유기견이 있으니 이렇게 좀 해달라고. 지금은 애완견이지만 나중에 또 다른 것도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바뀌는 거고. 이것도 소소하지만, 정치활동이라고 생각해요.

일부에서는 아직도 문제제기를 해요. '왜 여성회가 정치운동을 그렇게 하나?' 라고.

선거 기간에 여성회 활동이 거의 50% 정도는 집중을 해요.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앞선 얘기들을 해주는거죠.

Q. 창원여성회가 하는 정치활동 중에는 정치의식을 높이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노력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일단은 정치교육을 잡죠. 그리고 사실 이 사람들이 직접 선거운동에 뛰어들어야 빨리 느끼고 빨리 관점을 잡아가 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선 우리 선거구에 우리 의원(후보)이 있으면 뭐라도 역할 부여를 하는 거죠. 자원봉사 하자. 이렇게 한명씩 조직하는거죠. 그리고 소극적으로는 연고자 써주면서 그 연고자는 본인이 전화해야지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챙기게 만드는 거죠. 그게 제일 빨라요. 의식화하고 변화시키고 우리가 원하는 의원을 배출시키고, 자기가 뛰어서 이 사람이 또 선거에서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게 크더라고요.

Q. 정치교육은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그건 저희 지회에서 맡아서 하는 건 아니구요. 창원여성회나 지역의 요구에 맞게 하죠.

초반에는 아무래도 인식에 대한 내용을 하죠. 여성들의 입장을 가장 빨리 관철시키고 그걸 갖다가 실현시켜줄 수 있는 정당을 찾기도 하고. 그런 교육을 초반에 하다가 나중에 직접적이진 않지만 구체적으로 사안과 관련해서 진행해요. 교육도 하고, 강의도 하고, 워크숍 방식으로도 해요.

Q. 정치교육이 일방적으로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 가고 있나요?

일단 여성회 내에서는 각 지회에 우리 회원들과 가족들만큼은 제대로 된 사람을 찍어야지 않나 해서 정치교육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성회 시의원이나 기초단체장 찍을 때는 우리 지역에 어떤 사람이 나오는지 만나보자,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회에 회원들이 그 사람을 만나서 이번에는 어떤 공약을 하실 거냐,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때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 만나기를 했었죠. 그럼 엄마들의 요구사항들도 반영해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Q. 사파대방여성회나 창원여성회에서 일상적으로는 진행되는 정치교육의 장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리는 좋은 점이 의원들이 있잖아요. 이 의원들과고의 간담회라든지, 의원들과 함께 여성과 정치생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교육을 잡기는 해요. 우리 단체에 있는 대표나 의원들이 교육할 때 효과가 높더라구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다행인 게 의원들이 많으니까. 그 중에 요청하시면 강연에 언제든지 오시잖아요. 그러면 간담회를 잡는 다든지, 해달라고 언제든지 와서 해주시거든요.

Q. 창원여성회에 그런 의원들은 몇 분이나 계신가요?

Q. '특정 정당을 지지하게 되면 주민들의 접근성을 제한하거나 막는다'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는다고보다는 거리감을 두게 만드는 거는 맞아요. 정치활동을 하기 위한 매개체로 여성회를 이용하고 있는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정치적인 견해가 완전 달라버리면 활동 자체에 위험요소가 될 수도 있더라고요. 일상적인 활동을 정말 열심히 잘 하다가, 막상 정치적인 사안이 나왔을 때, 이 사람은 우리랑 영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는 거예요. 이 활동과 정치 활동을 별개로 보는 사람들이 거죠. 그랬을 때 오히려 우리의 조직을 와해시킬 수 있는 사람일 수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냥 초반에 우리의 정치적인 성향은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게 선거 기간이 끝나고 닳을 때 타격을 별로 안 받는 거 같아요.

Q. 그런 경험이 있었던 건가요?

우리 지회는 아닌데, 다른 지회 한 곳에서 선거 끝나고 나서 대거 탈퇴를 많이 했었어요.

회원 중에 말빨있는 사람 한두명이 심하게 제기를 하면서, 우리가 여성회지 왜 특정정당을 위해서 있는 하부 조직도 아닌데 왜 그런 활동을 하나, 이 조직은 그걸 위해 있는 조직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활동 자체도 거기 활동은 동화구연, 정치적인 거와 상관없는 활동들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오히려 성향을 조금씩 드러내가면서 활동하고, 평상시에 평화교육 이런걸 같이 하지 않으면, 이게 선거 기간이 지나고 나면 되게 혼란스러워 하더라고요. 혼란스러워하고 오히려 그게 한 두 사람에 의해서 이 조직이 깨지는 상황까지 되는 걸 보니까 좀 그런 걸 느끼는 거죠.

그거 봤을 때 오히려 특정정당 지지한다, 당원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게 괜찮은 거 같아요. 그랬을 때 자기 성향에 맞지 않는 사람은 나가는 거고,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거 같아요. 또 맞지 않더라도 다른 활동들이 맞으면 같이 하는 거고. 활동 속에서 자주 만나다보면 생각들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Q. 여성회 활동 하면서 가장 성과적이거나 의미있었던 것은 무엇인지 얘기해주세요.

제가 사회적 기업의 대표가 됐잖아요. 이게 하루 아침에 사회적 기업의 대표가 되겠다고 생각한 건 아니예요. 여성회 활동을 통해서 내가 성장한 거고, 제가 대표를 맡게 되었을 때 자질이나 지금까지 활동이나 이런 게 없었으면 누가 믿고 따라왔겠습니까? 여성회 활동을 통해서 그만큼 보여줬던 건 있었던 거 같아요. 리더십이라든지. 또 사파대방동 여성회를 통해서 지부장이 되고, 사파대방지회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잘하고 있고. 저를 키운 거죠. 저는 쉬지 않고 여성회활동을 하다보면, 누구라도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가장 큰 성과인 거 같아요.

Q. 예종(창원여성회와 청년회에서 함께 만든 사회적기업) 대표와 지부장을 겸임하면서 회원이나 활동가 안에서 역할의 어려움은 없나요?

사회적 기업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점이 돈을 벌어야하는 조직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벌 수 있을까, 그래야 유지가 되는 거니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게 단점이에요.

사실 사회적 기업은 처음에는 단순하게 생각했던 거 같아요. 여성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제적인 활동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막상 사회적 기업을 하다보니까 너무 많은 돈이 필요하고, 또 너무 많은 투자를 해야 되고. 기업이 그냥 굴러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여성회 활동과의 중심이 흐트러질까봐 늘 마음을 다잡긴 해요.

지금 예종 활동가들도 여성회 운동도 하고, 청년회 활동도 하는 사람들이예요. 활동가 중심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이 사람에게 우리의 활동을 이해시키고 끌어내야 해요. 계속 꾸준히 토론을 하는 거죠. 그런 관점을 잡아가려고 그런 자리를 만들어요. 자기 생각들도 얘기하게끔 하고. 활동가 아닌 사람도 활동을 조금 할 수 있게 되면 더 좋겠고.

Q. 문화활동으로 풀뿌리여성운동을 하고 있는 것의 긍정적인 점, 어려운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얘기해주세요.

저는 예종 활동이 여성회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투자를 해서 돈을 벌지만, 우리는 문화공동체잖아요. 문화적으로 이 지역에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지역에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집회에 돈 안 받아도 가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돈 안 되면 안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집회에 요구가 맞으면 당연히 우리가 가야된다 생각해요.

우리의 부족한 점이 뭐냐면, 한 군데 집중하지 못하니까 전문적이지 않다는 거. 어쨌든 문화적으로 전문적인 팀이 됐으면 빠른 시간 안에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지역에서 인정해줄 수 있는 팀이 되어 되는 건데, 거기에 올인하기에는 다른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게 병행하는게 쉽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고민이죠.

Q. 그 외에 여성을 조직화하고 성장시키는데 있어서, 앞으로의 과제나 고민이 있다면요?

각 마을마다 여성회가 있으니, 공통점이 없다는 게 굉장히 문제인 것 같아요.

창원여성회를 중심으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게 있어야 하는데, 각 활동이 너무 다른 거예요. 체육대회를 하나 해도 우리는 애들이 어리고 가족 중심이다 보니까 그런 걸 요구하는 거고, 이렇게 해버리면 봉림이나 명곡에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지회활동, 지부활동은 잘 되는데 타 지회의 여성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저쪽에서 무슨 활동을 하는지 대충 뭐 하는지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같은 여성회 회원이라는걸 공감을 못할 때가 많은 거죠.

Q. 신입회원교육이나 회원들의 교류의 장이 있나요?

창원여성회 전체가 할 수 있는 게 분기별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 사람 활동도 아는 거고.

그런 자리가 총회, 운동회, 문화제 같은 거 있었죠. 근데 조직화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서로 요구가 다르니까. 우리 성산지부에서는 체육대회를 하면 엄청 재밌게 해요. 우리 지부 회원들은 가족 중심으로 애들 중심으로 재미있는데, 다른 지회 사람들은 가족을 데리고 온 게 아니고 혼자 참석했는데 가족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총회 때 1부는 문화제를 하고 2부는 총회를 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회원 전체들이 만나서 하는 자리에 회의만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병행해서 하는데 그럴 때 우리는 장기자랑이라도 하고, 또 난타팀이 있으니까 난타라도 치고 이렇게 되는데 저쪽 언니들은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애들이 많으니까. 애들도 무대에 세우게 되는 거예요. 지루하게 느끼는 거예요.

Q. 창원여성회의 같은 회원이다, 끈끈한 자매애랄까, 이런 것들이 형성되지는 않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핵심활동가들은 운영위라든지 모이잖아요. 집회를 가도 같이 가고. 근데 신입들까지 회원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각 마을에서 자기 마을에 맞는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연령대도 다르고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요. 그러다보니까 공감대 형성이 안 되는 거라. 우리는 애를 중심으로 고민을 하잖아요. 봉림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 중심으로 만들어 가지고 활동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크면 저걸 하면 되겠다' 그런 건 있어요. 우리도 애들이 청소년이 되는 거잖아요. 상당히 괜찮네. 나중에 우리도 저런 거 해봐야겠다. 이런 거는 되죠. 먼저 언니들이 지금은 활동력이, 봉사활동, 다문화 여성들을 위한 지원사업들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아직까지 봉사활동에 대한 요구는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거 좋네. 괜찮네.' 정도

Q. 활동가들한테도 과제가 있는거네요.

그럼요. 그거는 큰 과제죠.

4. 김경자 (사파대방여성회장)

Q. 어떻게 창원여성회 활동을 시작하셨나요?

4년 전에 창원으로 이사 오면서, 나뉘터 활동하던 선배들의 권유로 여성회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창원여성회 사무국장으로 비상근 하다가, 본부 반상근을 하다가(1년), 그만두고 쉬다가 다시 활동 시작한지 4개월 됐어요. 사파대방지회장은 올해부터 맡았어요.

Q. 여성회 활동을 통해 성장하거나, 변화된 부분은 어떤 것이 있나요?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고 있는 부분이 변화된거죠. 예전에도 알고는 있었는데, 핑계를 대면서 안해왔던 것을 요즘엔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너무 바빠서 여유를 안가지고 있으니까 놓치고 있는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람에 대한 소중함 있잖아요. 가까이서 내 가족에서부터 조금 넓히면 같이 활동하고 있지 않는 우리 회원들을 이해한다든지 좀 챙겨줘야 되는데, 이렇게 안되니까. 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에 파묻혀서 잘 안되니까.

Q. 여성회 활동하면서 어렵거나 잘 안되는 부분은?

사람들은 많이 알게 됐는데, 질적으로 높아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성회 활동하는 것만큼만 알고 그 사람을 진짜는 모르는 것 같아요. 질적으로 사람과 깊은 관계로 사귀었으면 하는데, 잘 안되니까 요즘 힘든 것 같아요. 핑계일수는 있는데, 너무 바빠서...

활동가 한 사람에게 일이 너무 많이 주어지는 것이 안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사업을 잘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을 너무 목적의식적으로 대하는 식으로 스스로가 변하는 것 같고, 사람을 만날 때 솔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Q. 활동가 한 사람에게 왜 일이 많이 주어질까요?

활동가가 없으니까 그렇겠지요. 중간활동가가 없고, 회원들만 있으니까.

Q. 활동가가 부족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고민하신 부분은 어떻게 있나요?

‘일을 벌이지 말자. 있는 일이나 잘 챙기자.’ 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하던 일만 하다보면 발전이 없다고도 하더라구요. 그런데 한 사람에게 일이 너무 많이 주어지니까 힘드는데.. 평가하면서 과감하게 안될 일은 접사고 했는데, 그게 또 단체 입장에서는 안되는가봐요.

Q. 사파대방지회에는 현재 지회장과 사무국장이 있나요?

네. 그런데 저도, 사무국장도 비상근(사회적기업 예종 상근 겸임)이에요. 제가 본부의 재정, 회계 부분을 맡고 있고, 성산지부 회계랑 일하는 것도 있고, 지회장 맡고 있고 하다보니, 사파대방지회장으로서는 거의 못하고 있어요. 진짜 시간을 쪼개서 살아야되는데...

Q. 사파대방지회에서는 어떤 활동을 해오고 있나요?

사업을 많이 하는 못했고, 부모교육을 4회 진행했는데,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쉬움이 남아요. 부모학교를 해서 10명~15명 정도가 왔거든요. 아이들 대화법, 책임기 등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을 못 모아낸 것과, 후속모임을 못 만들어낸게 제일 아쉬운 일인 것 같아요.

운영위원회, 월례회가 매월 1회씩 진행되고 있고, 월례회에는 보통 10명~15명 사이로 와요. 월례회준비와 진행은 제가 맡아서 하구요. 거부감이 없는 교육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여성회에서 원하는 교육이 정해져있으니까. 정세교육이나 평화통일교육 등 정치적인 색깔이 진해서 회원들이 거부감이 약간 있었어요.

Q. 처음에 월례회 하면서 회원들이 뭘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을거잖아요?

네. 작년에 욕구조사도 했었어요. 교육에 대한 욕구가 많았는데, 자녀에 관한 것, 인문학, 성교육, 음악 예술 쪽으

로도 있었고. 영화 보러가는 소모임, 청소년 교육, ... 많았는데, 이런 욕구들을 지회활동에서 녹여내지 못해서 아쉬웠어요.

무겁고 딱딱한거 보다는 재미있고, 즐거운 것으로 해보고 싶어요

Q. 앞으로 어떤 활동을 중심으로 해보고 싶은지?

젊은 엄마들이 많으니까 성산지부 차원에서 하는 체험활동 외에 소모임 하나 정도는 만들어서 1~2년 후에는 중간 활동가들을 만들고 싶어요.

Q. 샘이 여성회 활동을 하는 목표는 어떤건가요?

삶을 무의미하게 살지 않기 위해서 여성회 활동을 시작했지요. 그런데 요새는 좀 끌려가는 느낌이 있어요. 제가 하는 여성운동의 목표는... 내가 모르는 사람들의 삶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외받는 계층이랄까... 그런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조금은 노력하는 삶을 살고 싶었거든요.

Q. 본인이 생각하는 여성운동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여성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게 여성운동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활동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의 삶을 그대로 놔둬도 남편 밑에서 행복한 줄 알고 살아가긴 할건데, 자기 삶이 너무 없는 사람들을 보면 좀 안타깝고, 똑바로 보는 눈을 가지게 해주고 싶어요.
정치적으로 본다면 저게 나쁜건데도 시대의 흐름이나 언론에 의해 모르고 지나가거나 오해하는 것도 안타깝고. 세상이 흘러는대로 살아가는게 아니라고, 내가 알고 있는걸 알려주고 싶기도 하고. 같이 활동 하고 싶고, 활동을 안하더라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키워주고 싶고. 그런게 여성운동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Q. 여성운동, 여성주의를 한 마디로 정리해볼 수 있을까요?

내 이웃에 있는 여성들을 좀 더 사랑하는 것?! 사랑하다보면 그 사람의 어려움도 보이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할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해보고, 필요하다면 마음의 준비를 하기도 하고, 기술을 습득하기도 하고... 근데 꼭 여성에만 국한되어 있는 건 아니예요.

Q. 활동하면서 스스로가 가장 도움이 되었다거나 진짜 신나고 의미있게 활동한 것은 어떤 부분인지요?

정세교육같은건 내가 성장한 측면이 있지만 재미가 없고 해야하는 활동이지만, 해든누리 활동(풍물)은 신나고 아주 재미있었어요. 하고 싶었던 것이니까요. 난타를 배우고 놀고 새로운 걸 배우게 되잖아요. 공연도 하게 되면서, 이걸 해서 다른 사람들도 재미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 좋아요.

Q. 다양한 조직방법 중에 사파대방지회는 문화활동을 통한 시작이 긍정적인 점과 어려운 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하고싶은 사람들이 하나까 즐거워하고 결속력도 높고 참여율도 매우 좋아요.
단점은 의식화시키기 매우 어려워요. 예술분야라서.
난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면, 난타만 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체험 같은 활동은 평가를 하면서, 애들 교육에 좋았는지 어떤지도 얘기하면서 사회문제, 교육문제도 같이 얘기할 수도 있는데, 난타는 어렵네요. 방법을 안찾은건가. 조직이 잘 안되대요. 난타로 해서 회원가입한 사람들은 반수 이상이 떨어져나가거나 안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Q. 핵심적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회원들이 있는지, 어떻게 성장시키고 하고 있는지에 대해 과정과 계획에 대해 얘기해 주세요.

역할주기를 하려고 해요. 사파대방지회에 운영위원들을 성장시키고 싶은데, 잘 안되네요. 작년까지는 신입회원이었던 분들이예요. 사파대방지회가 적절한 활동을 아직 못 만들고 있어서 역할을 잘 못 나눠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후에는 하반기 때 소모임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내가 알고 있는 만큼이라도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은 아직은 여성회가 정치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좀 많아요. 그래도 월례회 때 꼬박 꼬박 나오는걸 보면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해요.

Q. 본인이 생각하실 때, 창원여성회는 정치활동을 왜 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구조를 바꾸려면, 억압되어온 역사가 있고 거의 해결이 안됐으니까 그걸 뒤엎든지 없으려고 노력해야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치인을 배출해서 바꾸고. 어떤 의원이 비리를 저지르면 분노할 줄 알고 분노하는 활동에도 참여하고. 왜 성범죄를 저지른 놈을 규탄하기 위해서 법원 앞에서 일인시위를 하는지에서부터 얘기도 해나가죠. 성교육을 열 번 한들 한 나라의 의원이 성범죄를 하는 사회가 되면 안된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활동한다, 라고 하고 있어요.

회원들 중에는 선거 때마다 왜 여성회는 문을 닫고 선거운동을 하는지 정치활동을 하는지에 대해 묻기도 하거든요. 왜 그래야하는지 얘기를 잘 해줘야겠지요.
예전에 봉사활동으로 보육원에 많이 갔는데, 제가 10번을 가본들 그 아이들의 삶에 도움을 주는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나라의 보육정책을 바꾸면 좀 더 삶에 도움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얘기는 회원들에게 해줄 수 있죠.

Q. 정치활동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선거운동과 지지활동을 하고 있죠. 회원들이 원하지 않으면 억지로 데리고 가지는 않지만 왜 이런 정치활동을 하는지를 얘기하는 것, 당선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있지요.
올해 정치교육은 2회 정도 했어요. 선거만이 아니라 정세도 정치교육이잖아요. 올 초에 전쟁위기를 때라든지, 월례회 때 왜 여성들이 전쟁을 반대해서 집회를 해야 하는지나, 평화통일교육도 했어요.

Q. 정치색을 드러내는게 주민들의 접근성을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적 지향을 정확하게 하거나 정책활동을 하는 것은 해야할 것 같아요. 그게 안맞는건가요? 소외된 계층을 위한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는 한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조심스러워야겠지요. 만약 그렇게 싫어서 다른 활동은 같이 할 수 있는 회원이 나가게 되면, 그건 문제점으로 남겠지요.

Q. 활동을 해오면서 가장 큰 성과는 어떤 건가요?

무대에 서게 된 것이요. 제 인생에서도 가장 큰 성과구요.
그리고 여성회 내에서 의식하고 있었던 것을 많이 실천을 하게 된 거예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 같거든요. 지회장이 되다보니 해보려고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많이 알게 된 것도 성과고. 여성회 활동을 안한 것보다는 하면서 지내온 삶이 훨씬 더 잘 산 것 같아요.

Q. 활동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어떤 게 있나요?

해야 하는 일을 해야할 때, 하기 싫은데 해야할 때. 몇 개월 안 지났는데도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어려워요.
지회장을 하다 보니 모임이 많이 늘었어요. 교육모임도 있고 그런 데 시간을 뺏기다보니까, 회원이 옆집에 사는데도 차 한잔 마시러 못 갔어요. 그 얘가 도움이 필요했을 때 도움을 못줬거든요. 회원들과 그런 관계가 형성이 안되면 지회장을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나.
모임에 쫓겨 다니는 게 싫어서. 그런 맘이 들 때가 제일 힘이 들어요.

Q. 하반기의 과제나, 스스로가 더욱 안정되게 활동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공연을 많이 뛰어야 돼요. 행복하고 즐거우니까. 공연을 통해 재미있는 시간, 활력이 필요하죠. 얼마 전에 회원과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스트레스를 어찌 푸나, 생각해보니 저는 답이 안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Q. 여성회 활동을 하면서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스스로를 지탱해주는 제일 큰 힘이나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20년을 넘게 봤던 사람들. 계속 보고 싶고,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니까 고맙고. 그 사람들이 계속 같이 하자고 끌어주고 손잡아주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힘을 주는 거죠.

5. 문현숙 (창원여성회장)

Q. 활동가 성장을 위한 창원여성회 차원의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여성회 회원들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나는 운동하는 삶을 살겠다' 이런 사람을 모집하고, 실제로 운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하고 있지.

그 중에서도 올해 상반기부터 상집 구조를 묶었어. 우리 여성회로 보면 완전 핵심 활동가들이지. 대부분 자기 조직을 하나씩은 다 책임지고 있고, 지회장은 기본적으로 다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러한 교양과 정치 실무, 이런 것들을 토론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주1회 하면서 핵심 활동가들부터 정세인식, 전반적인 여성회 사업, 지역 사업들에 대한 일치성을 높이는 작업을 하는거지. 그러니까 상집은 활동가들의 조직생활 단위인 거지. 활동가들이 학습도 하고, 자기 조직생활도 점검하고, 개인의 삶에 대해서 나누고, 회의도 하고.

Q. 회원들을 활동가로 성장시키기 위한 부분에서 창원여성회 전체적인 고민은 어떤 것이 있나요?

그게 상당히 더디기도 하고. 참 많은 고민이 있을 거 같은데. 우리 여성회 같은 경우는 풀뿌리 단위에서 사람을 조직하니까, 진짜 동네에서 10년~20년 이렇게 애만 키우고, 봉사활동이나 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되게 많아.

예를 들어 명곡동, 봉림동 여성회는 가장 처음에 만들어졌던 동여성회라서 7년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동조직이라. 동네에서 활동들은 되게 활발한데 실제로 7년 정도를 해도 활동가들이 성장을 안 하는 거지. 이쪽(의창구)의 주로 특징이 어떤 거냐면, 언니들이 나이가 기본적으로 많아. 50대, 50대 초반, 이 정도가 주로 중심이야. 이 언니들 관심사는 주로 봉사활동 이런 거고, 기본적으로 자기 성장에 대한 욕구가 되게 낮고. 교육 이런 걸 하면 거의 효과가 없는 지역. 그러니까 7년 정도, 마을에서 열심히 봉사활동도 하고, 어린이날 행사도 하고, 문화제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면서, 마을에서 좋은 사람으로 성장은 하는데 운동가로 성장을 하지 않는 한계가 아주 분명한 곳이었어.

저 쪽에 서파대방 같은 경우 있잖아. 이쪽은 성산지역인데 젊은 층이 많거든. 주로 30대 중반, 이 정도가 거의 핵심이야. 이 지역 여성들이 어린 아이들이 많잖아. 유치원생이라든가 초등학생, 이런 아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대중 활동을 많이 하고. 활동 자체가 다르지. 아이들 체험활동, 역사기행, 풍물학교 이런 게 되게 잘 되는 지역이었거든. 서파대방 회원도 40명 육박한단 말이야, 이렇게 대중적 기반은 조성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일반 여성들이 다 가입을 하는 거야. 운동적 경험들이 전무한 사람들이 많이 가입을 하거든, 풀뿌리 단위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활동가로 성장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부산하고 울산은 어떤지 궁금한데, 어쨌든 그런 어려움은 분명히 풀뿌리 단위에서 있다.

Q. 그럼 창원여성회 차원에서 했던 노력이나 지원은 어떻게 있죠?

창원여성회 전체적으로 조직가 훈련, 풀뿌리 리더교육을 했었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고민들을 하나면, 한시적인 활동가 교육사업 갖고는 되는 게 아니다, 지금은 이런 식으로 해 볼려고 하거든. 예를 들면 신입활동가 교육 프로그램을 월 단위로 꾸준히 하는 거지. 상시적으로는 5개 정도의

팀별 모임(소모임)으로 만들자. 공부하는 주부들의 소모임, 이런 식의 학습 소모임. 5개 정도의 지역에서 소모임에 각 4~5명 정도로 해서 20명 정도의 신입활동가들을 조직하자 이거지. 그래서 한 명의 핵심활동가가 멘토가 되는 거야. 월 1~2회 정도 책 읽고와서 공부도 하고, 자기 조직생활도 같이 얘기를 하거든.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신입활동가 교육이라고 하는 집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수련회 이런 것까지 배치를 하고. 이렇게 연관성 있게 운영을 하자라고 이야기가 됐어. 그거를 하반기에 이제 만들어갈 계획이고.

Q. 이견 지회에서 동아리를 만들어서 회원활동가를 만들겠다는 거죠?

지회로 만들 수도 있고, 지부로 만들 수도 있고.

처음 하고 있는게 봉림에서 최미니 의원이 공주인문학 하는거야. 5명 정도가 참여를 해. 여성들이 지금 현재 운동에 대한 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하고 공부하는데 흥미부터 좀 가져야겠다 해가지고 내용들을 이렇게 잡았었거든. 생태, 통일, 그리고 여성주의,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 이런 걸로 잡았어. 근데 책은, 예를 들면 『꿈꾸는 지렁이들』 이런 것처럼 상당히 평이한 수준의 책들. 여성주의 같은 경우는 『엄마를 부탁해』와 『즐거운 나의 집』, 이런 걸 비교해서 바라보는 거. 중간에 특강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이런 프로그램을 아까 얘기했던 5개 소모임으로 다 전파를 하겠다. 이런 생각인 거지.

신입활동가 양성이 기존에는 상당히 각 지회에 맡겨두거나 또는 창원여성회에서 일시적인 프로그램을 했다고 한다면, 이 프로그램으로 되는 게 아니다.

전체 핵심활동가들이 아주 구체적인 자기 사업의 결과를 가지고 활동가가 양성되도록 하자. 이것이 지금 현재 고민이라. 그렇게 해서 내년까지 1년 정도를 해서.

Q. 지회나 지부의 운영위원(회)에 대한 논의는 창원여성회 운영위 차원에서 되는건가요?

지회 운영위에 대한 보고과 판단, 공유는 기본적으로 월1회 하는 운영위에서도 되지. 창원여성회 운영위 성원이 17명인가 이렇거든. 그런 데서는 사실은 구체적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걸 보장하려고 하는 게 상집이지. 사업 중심으로 상집 구조를 개편하려고 여러 시도를 하고있지. 근데 이것도 예를 들어 핵심활동가들이 다 사업 열심히 하고 있고 이러면 잘 되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정착해가는 과정에 있는 거지.

Q. 명곡,봉림 같은 경우 4~50대 중심이면서 사람들이 활동은 많이 하는데 활동가로 성장하지 않는 걸 얘기했잖아요. 사파대방은 젊은 층이 많아서 활발하게 하고는 있지만 개인적으로 활동가라고 하기에는 어렵다고 하셨구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풀뿌리 여성운동을 좀 해보면서, 이런 걸 좀 느꼈거든. 아예 운동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나이 40이 넘어가지고 운동적 결의를 한다라는 게 참 어려운 일이겠다.

그 운동적 결의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선거 같은 거 하면 일반 회원들이 다 열심히 도와주거든. 정치 의식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운동을 한다 안 한다를 떠나가지고. 그런 수준은 되는데, 말 그대로 운동가라고 하는 수준으로 올리는건 기본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거 같고.

명곡, 봉림에 연령대가 너무 높은 부분. 이게 요구 자체가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봐. 40대 후반과 50대 초반 이런 사람들이. 여성운동의 요구를 일치시키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 봉사활동 이런데 천착하는 면들이 있고, 여성운동의 요구로 이 사람들을 올리는 과정들이 지난한거지.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건 30대 여성, 젊은 여성을 타겟으로 하는 사업들을 하자.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하면 봉림과 명곡 지역은 역사는 오래되었는데 이런 개척들을 별로 못 했던 거지.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해봐야 되잖아. 30대 여성을 대상으로 부모학교,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거든.

Q. 새로운 시도를 많이 못 했다는 건 어떤 거예요?

명곡이나 봉림은 처음 만들 때부터 30명이었어. 지금도 여전히 30명이거든. 30명 이상 넘어서지를 못 해. 기존의 회원들에게 안주하고 이 회원들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고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인 대중

조직사업을 안 했다라는 거지.

이제 봉림은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돌파가 되고 있고. 봉림은 지역 토대가 되게 좋아. 여성회뿐만 아니라 청년회, 당 등 지역활동이 상당히 잘되는 지역이라.

여기는 최미니가 활동을 하면서 처음에 그런 한계가 있었는데 의원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돌파를 하고 있지. 봉림 지역 같은 경우 최근 임대 아파트 단지가 생긴 거야. 여기에 젊은 여성들이 되게 많아. 이번에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 보조금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타겟으로 사업을 했거든. 그 지역 엄마들이 결합을 한 거야. 그 젊은 엄마들을 대상으로 부모학교 이런 거를 해서 여성회 내에 분회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자라고 이야기 했거든.

이런 식의 새로운 조직사업에서의 개척사업들이 필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명곡하고 봉림은 그렇게 해야 돌파구가 열리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거 같고. 여성들을 여성운동의 지점으로 끌어올리는 데 있어 가지고 30대 여성 사업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 젊은 여성 사업.

Q. 젊은 여성사업이 중요하다는 이유는요?

의식이 변하는 게 상당히 다르지. 의창구와 성산구를 비교해보면, 성산구가 상당히 젊은 층 여성들이 많다고 할 수 있어. 사업을 해보면 교육을 한다거나 또는 활동가들이 어떻게 남고 있지 이런 걸 딱 보면 성산이 훨씬 많지. 실제로. 조직에 대한 애착도 이런 것도 상당히 다르고.

Q. 어떤 지점에서 의식적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던가요?

우리가 여러 대중강좌를 하고나서, 어떤걸 해야 활동가들이 의식적 변화가 있느냐 평가를 해봤어. 의식적 변화는 역사 강의가 제일 의식적 변화가 높았어. 주로 대중강좌를 하는 게 엄마학교, 부모학교 이런 거잖아. 그런 걸 주로 했는데 성산지부가 현대사 강좌를 잡고 현대사 기행을 잡았거든. 아주 정면으로 우리 사회문제를 가지고 돌파를 했을 때 활동가들의 의식변화가 상당히 있다 이런 평가를 했었거든. 이런 거를 내년에 전 지회에서 전면적으로 다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 소스일 수 있지.

팔용동여성회에서 이러저러한 갈등이 있어서 회원 절반이 나가서 재건사업을 한거야. 올해 5월에 어린이날 행사부터 해가지고 지원팀들이 들어간 거지. 활동가 3명 정도를 묶어가지고. 어린이날 행사 할 때도 한 1000명 이렇게 왔는데, 되게 잘 했어. 그리고 나서 대중강좌로 부모학교를 잡았어. 부모학교의 프로그램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 예를 들면 엄마학교 이런 거를 주로 하는 느낌이 어떤 거냐면 엄마가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울 거냐, 이런 걸로 초점이 맞춰지잖아. 우리 그런 식으로 좀 하지 말고 어떻게 다른 식으로 아이를 키울거냐로 초점을 좀 맞춰보자, 이렇게 된 거야.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의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제도권 교육의 틀이 아니라 교육 자체를 다르게 사고할 수 있도록. 완전 우리식의 교육방식 이런 걸로 교육을 잡아보자 해가지고 강사들 전체를 그런 사람들로 배치를 해봤거든. 그 강의에 30명 정도 참여를 했었는데 평은 되게 좋았거든. 우리가 조직화를 위한 대중강좌잖아. 이 사람들을 5회 강좌를 하고 따로 후속모임을 하고 있거든.

대중교육을 하더라도 이런 식의 대중교육을 해야된다 평가를 했었던 지점이라. 내 아이를 잘 키우자 이런 게 아니고 교육을 바꾸자 이런 식으로.

지회에서 교육을 잘 배치하는 것도 중요한 거지. 지부 같은 경우에 몇 명 활동가들만 조직을 한다라고 하면 지회는 일반인 회원들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곳이니깐. 일반 회원들이 다같이 고르게 성장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잖아. 그런 지점에서 교육사업 이런 것도 참 중요한 거 같애. 어떤 교육을 배치하는 가도 중요하고.

Q. 창원여성회 본부에서는 올해 팔용동여성회를 주로 지원하고 있는건가요?

아냐. 우리는 본부가 지원한다 이런 개념이 잘 없어. 예를 들어 팔용이다 이러면 어려운 시기에는 본부에서 팀을 만들어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다시 팔용에서 주체를 다 만들지.

본부가 상근자가 1명밖에 없거든. 왜냐면 우리가 돈 나오는 데가 하나도 없잖아, 회비 말고는. 경남으로 보면 여성운동의 후발대니까 기관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없어. 기존 조직들이 다 하고 있는 거야. 기관 사업들을 몇 개 도전을 했었는데 다 안 됐어. 그게 없으니까 재정적으로 되게 어렵고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상근자를 막 세우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야. 지부장, 지회장, 지회 운영위원 전부 다 자원활동이야. 이게 창원여성회 특징이라면 특징이지.

나같은 경우도 여성회 상근을 하는 경우가 아니고. 나는 여성회 사무실에 많이 못 나가.

그래서 본부가 지원을 하는 시스템을 잘 안 되어 있다라고 봐야되는 거지. 난점이기도 하고 이런 게 있지. 그래서 활동가들이 자력갱생을 많이 해. 진짜 핵심적인 고민이야.

Q. 창원여성회에서 하고 있는 풀뿌리 여성운동, 여성주의와 관련해서 좀 얘기해주세요.

풀뿌리 여성운동을 하다보면 기본적으로 여성주의 의식이 많은 게 아니거든. 여성활동가들도 그렇고 일반 여성회 회원들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여성주의 의식을 가지게끔 우리가 교육 이런 것들은 신경을 쓰지. 풀뿌리 여성운동을 해도 여성주의 내용이 상당히 녹아나는 사업들을 잘 못해. 한계면 한계다라고 보거든. 지난 5년을 평가해 봐도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있지.

풀뿌리 마을사업이라는 게 문화제라든가 마을 영화제, 어린이날 행사, 알뜰 장터,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하는 거야. 여성주의 내용을 포함시키기에 되게 어려운 일들이잖아. 하나같이.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들을 늘 하지. 우리가 특히 풀뿌리 마을 운동을 어떻게 진보적 여성주의를 가지고 할 거냐. 올해 시도했던 게 ‘여성이 행복한 안전한 마을 만들기’를 명목하고 봉림에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마을 문화제나 이런 것들을 되게 열심히 하는데 여기 이러한 내용의 여성주의 내용을 어떻게 넣을 거냐 이런 것을 논의는 하는데 실제로 구현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거 같애.

Q. 회장님이 말하는 여성주의 내용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성평등 의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녹아나도록 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 안전한 마을 만들기 이런 거는 확실하게 여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 우리 마을에서 뭔가 여성들에게 불안한 요소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실질적인 활동이니까. 여성들의 요구와 직결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잖아. 이런 것들을 실현하는 마을 사업,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하고 있지는 못 하지. 그런 것들을 평가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잘 극복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

Q. 왜 극복이 잘 안 돼요?

활동가들이 여성주의 의식으로 철저히 무장되어 있지 않다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는 당과 전선운동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보는 거야. 이 지역은.

우리가 진보적인 여성운동이라고 해서, 당과 전선운동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많은 부분 여성주의 의제를 같이 결합시키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

난 그런 경험을 실제로 많이 했어. 남성활동가들하고 토론도 진짜 많이 했었거든. 난 여성학 대학원 나왔거든. 나름 여성주의로 완전 무장돼 있었는데, 남성 활동가들하고 엄청 많이 논쟁하고 이랬었는데 이런 비판들도 참 많이 받았던 거지. 여성주의를 조합주의처럼 바라본단 말이지. 우리가 진보적 여성운동을 하자, 진보적 여성운동이 뭐냐, 이런 논의를 할 때, 여성주의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지, 토론을 하면. 맞냐, 틀리냐부터 빠시게 토론하고 이랬던 거야. 그러면서 상당히 정립이 된 게 자꾸만 여성주의를 선차적으로 내세우기보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꿀 건지, 어떻게 정치를 바꿀 건지, 이런 것으로 주목해야 한다, 이런 걸로 많이 귀결이 된 거지.

그리고 여성활동가들이 여성주의로 무장을 해야한다고 통용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안 있겠어, 전면적으로. 이것이 정치활동을 열심히 하는 지역들이 있잖아. 이런 데는 그렇거든. 이런 게 딱 정립이 돼 있는 곳이야. 그런데 여성주의 얘기는 별로 안 하거든. 우리는 그런 갈등이 되게 많았고.

지금 현재는 이렇게 좀 되는 거지. 활동가들한테 여성주의로 무장하자, 이런 걸 별로 강요하지 않는 걸로 된 거지. 전반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운동을 해야된다고 많이 된 거고. 의식이 있어야 실천으로 녹아나는 건데. 여성주의에 대한 의식은 그만큼 높지가 않은 거지.

그러니까 마을활동 이런 거를 해도 이것이 정치활동에 유리할까 고민하지만 이것이 여성에게 어떻게 유리하지, 여성에게 어떻게 이득이 되지, 부차적인 고민이 되는 게 실제로 현실인 거지. 서부 경남이나 창원 지역이 워낙 그래, 토대 자체가.

Q. 강영희 쌤과 얘기할 때, 여성주의는 조합주의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논쟁 엄청 많이 했었어. 아직 정리가 안 돼.
예를 들어 통일운동을 하더라도 지역에 잡혀있는 이리저리한 일정에 빠지게 하는 게 아니라 교육을 하나 하더라도 여성의 관점에서 통일과 평화, 그런 고민을 많이 하잖아. 평화기행을 하더라도 여성주의적 평화기행이라던가. 근데 우리는 여성운동 하는데 있어가지고 여성의 정체성을 어떻게 살릴 거냐, 그런 요구가 있는 거고.
근데 이런 것이 지역에서 남성활동가들하고 논의를 하면, 8.15는 정치 대헌데 무슨 평화기행을 하나 이런 식 있잖아. 이러한 논쟁과 끊임없이 부딪히는 거고. 그것이 또 여성의제를 강하게 내세우는 이런 데서는 재들은 여성운동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여성운동이라고 하는 면피만 쓰고 당운동한다, 정치운동한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잖아. 우리가 이런 데서 샌드위치처럼 끼어있다 생각을 많이 했었어.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나 갈등이 많았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고민들은 있는 거지. 우리 여성회 내부에서도. 지금은 그런 갈등들이 이렇게 저렇게 봉합이 되면서, 자기 만족적으로 해야된다고 해야 하나, 깊이 있게 모색을 해보거나 이런 것들은 많이 부족하지.

Q. 풀뿌리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갖고 있는 요구를 여성운동의 의제로 집단적으로 풀어낸 경험이 없어서, 우리가 여성운동을 하고 있지만 여성주의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건 아닌가,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지. 예전에는 호주제 폐지 이런 것처럼 모든 여성들이 달라붙고 해야되는 여성주의 의제가 있었던 거잖아. 그런 것들이 지금은 그런 부분이 참 없잖아.
그리고 우리처럼 당 전선운동 이런 것들을 핵심적으로 보는 데서는 지역 사안이 너무 많은 거야. 우리가 여성주의 의제만 가지고 뭔가 한번 정치투쟁을 해보자거나 이런 것들 자체가 엄두가 안 날 만큼. 올해 상반기만 보더라도 진주의료원, 밀양, 사실은 이쪽에 엄청 활동가들은 거의 쉬지 않고 저녁마다 일정이 있다라고 할 만큼 집회들이 쪽 잡히는 거니까. 여성의제를 전면적으로 실현해볼 수 있는 것들이 전국적으로 판이 안 만들어지는 것도 있다고 나는 보지.

Q. 전국적으로 판을 만들기 힘들다고 봐요 저는. 왜냐면 전국적으로 판을 만드는 건 어차피 제도의 변화인데, 그렇다고 생활이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예전에 말하던 여성 고유의 이슈 이렇게 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활동을 통해가지고 여성주의 의제가 뭐냐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많은 회원들이 실제로 여성회라는 곳을 만나서 본인들의 의식도 변하고 자기 삶에서 자기가 나름대로 주인으로 성장해 나가고 이런 지점만 보더라도 상당히 큰 지점들은 있다라고 나는 보지.

그리고 회원들이 성장하는데 있어서도 여성주의 교양을 해서 의식이 깨이는 지점도 있지만, 현대사 교육이나 부모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의식이 상당히 깨이는 지점도 있는 거거든. 우리가 의식적 지점들을 어디로 잡아야하는지도 상당히 고민해봐야 될 지점이란 생각도 들고.

처음에 내가 여성운동할 때는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활동가들이 여성주의 의식으로 무장을 해야 여성운동을 잘 할 수 있다, 여성운동의 내용을 잘 녹여낼 수 있다, 이런 거에 상당히 나는 빠져있었었어. 근데 이것이 여러 토론 등을 통해서 변화를 하면서 지금은 또 그렇지 않는 거지.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나면 회원들이나 활동가들의 의식이 변화하는 건, 여성주의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자주통일이 훨씬 더 변화지점이 높더라는 생각들도 내 경험적으로는 드는 거거든. 이것이 여성주의와의 갈등을 할 수 밖에 없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지. 그런 거 가지고 토론도 해보고 싶네.

Q. 올해 실천여성학 아카데미를 기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약간의 괴리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떤 부분인지 얘기를 해주세요.

실천여성학은 여성학이 부활해야된다. 우리 활동가들이나 지역의 여성활동가들이 서울에 있는 좋은 강사를 데리고 와서 하기가 쉽지 않잖아. 이런걸 해보자, 좋은 시도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하자라고 됐던거고.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기획한 친구와 우리 여성회 활동가들의 요구가 좀 달랐던거지.

활동가들이 여성주의에 천착을 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 이러다보니까 활동가들이 여기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듣고 이리저리 않았던 거지. 자기 회원들을 조직해서 간다거나 이렇게 하질 않은 거야. 기획자는 창원여성회 회원 중심이 아니라 지역의 여성활동가들과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는게 중심이었고. 창원여성회 활동가들이 봤을 때는 창원여성회 일반 회원들에게 초점을 맞춰주면 일반 회원들에게 맞게끔 내용도 배치하고 활동가들이 이 사람을 조직하고 참가할 수 있도록 해줬어야했는데 그런데서 차이가 있었던 거지.

기획팀 안에 창원여성회 활동가들이 들어가긴 했는데, 기획자가 여성회 구조에 전혀 안들어오니까 소통이 안된 것도 있고. 요구가 주고받아야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소통이 돼줘야 되는데 잘 안된 지점이 있지.

Q. 창원여성회 활동가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목표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뭐냐. 진보적 민주주의다, 자주민주통일이다.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만들자.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여성문제가 해결된다. 이것이 진보적 여성운동이 가야될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활동가들하고는.

회원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역사 강의 이런 걸 하더라도 세상을 바꾸는 운동을 해야된다는 것으로 귀결되게끔 교양을 하지. 현대사교육, 자주통일교육을 전 단위가 다 한다고 방침을 정해서 하고.

Q. 교육 외에 일상적인 정치활동은 또 어떤 것이 있나요?

우리 의원들이 있는 지역은 회원들 중에서 조금 활동하겠다 싶은 사람은 다 당원으로 가입시켜. 이런 거를 일상적으로 실제로 하지. 활동가로 성장시키려고 하면 당 활동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지. 당원으로서의 활동은 또 다른 거든.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장에 자기가 딱 들어간 거잖아. 정치의식을 일상적인 공간에서 가지게 되는 거야. 교양을 받게 되고. 정치적으로 의식의 돌파지점이 상당히 빠른 거지. 활동도 마찬가지로 실천도 마찬가지거든. 여성회가 하는 대중적 실천과 당원으로서 하는 실천은 되게 달라. 정치적으로 하는 새로운 경험들이 여성회에서 할 수 없는 경험이잖아. 이런 지점에서 정치적으로 사람들이 상당히 빠르게 성장하는 측면들이 나는 있다라고 보지. 이게 우리 의원들이 있는 의창지역이 잘 되는 걸 볼 때, 성산 이런 쪽으로 넘어가면 상당히 더디지. 그런 데는 여성회 활동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고.

의창지역은 의원들이 기본적으로 두 명이 있으니까 회원들이 창원여성회는 통합진보당, 이런 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야. 성산은 그 정도가 자연스럽지가 않지.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다 다르지. 다른 부분이 있고 처음에 봉림에서 최미니 의원이 의원 나갈 때 봉림에 있는 회원들이 나이가 다 많다고 했잖아. 이런 분들은 다른 정당 활동하고 이런 사람들 있었어. 그럴 때 최미니 의원이 의원 나가기 전에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최미니 의원을 싹 지지해주고 다 도와줬거든. 지금은 그 사람들이 진보당으로 다 가입이 된 거야.

선거를 하면 상당히 다르지. 핵심들은 거의 다 선거투입을 하거든. 선거는 상당히 활동가들이 핵심들이 상당히 성장하는 장이라고 보거든.

풀뿌리 여성주의 워크숍 토론내용 정리

§ 일시 : 2013년 5월 16일(목) 낮2시

§ 참석 : 김현숙, 민양운, 박계현, 박신연숙, 박영미, 박오숙, 이정은, 조이현임

풀뿌리 여성운동과 관련해 제기되는 우려나 고민들을 얘기하며, 풀뿌리 여성주의가 만들어오고있는 변화와 성과를 짚고, 여전히 나서는 어려움과 과제를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특히 풀뿌리에서 여성주의적 기획이 어떻게 들어가고 있으며, 이후에 어떤 방향이 필요한지 함께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토론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워크숍 기록 정리본 참고)

1. 풀뿌리 여성운동에 대해 가지는 문제제기 혹은 우려점

- 1) 여성들의 성역할을 인정하고 강화하는데 일조하고있지는 않나?
- 2) 여성문제를 뚜렷하게 드러내지(표현하지) 못한다.
- 3) 비정치적이거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지향하지 않는다.

● 출발점과 지향점에 대해 명확히 인식해야함

- 1) 출발점 : 지역에 있는 다수의 여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 - 여성에게 주어진 성역할, 그로부터 비롯된 고민, 현재적 요구 (마을은 그런 여성들의 삶의 터전)
 - ① 토속좋은엄마모임의 예
 - '좋은 엄마'라는 엄마의 역할에서 출발
 - 5년 활동하면서 여성단체의 회원 활동가로 성장. 자주적.독립적 인격체로 여성의 문제를 바라보는 훈련의 과정
- 2) 지향점 : 여성을 억누르는 현실로부터 벗어나는 것(변화시키는 것)
- 3) 출발점 → 과정 (여성의 고정된 성역할에서 벗어나게 하는 활동 및 훈련) → 지향점

● 주요 변화 1 : 여성 자신의 삶의 변화

- 1) 가정주부로서 돌봄(양육, 남편 등 가족관계)에 갇혀있다가 모임과 활동을 통해 자기 시간을 갖고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 자체가 진보 : 아이돌봄, 가족문제에 대한 강박관념으로부터 벗어나
ex. “애를 뭐 방목해도 되지 뭐. 설거지 안 해도 되지 뭐. 왜 내만 해야 돼. 남편도 해 . 니도 안 하면 나도 안 할래. 뇌똥다가 누군가 답답하면 하게 만들고. ”
- 2) 개인별로 아이돌봄에 쏟던 시간과 에너지 → 같이 아이돌봄, 자기 성장을 위한 시간과 에너지 : 자신이 사회화, 자기가 하고싶은 일을 더 할 수 있는 여건, 행복지수의 상승 →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가부장적인 동네문화에 조금씩 균열을 가져올 것

● 주요 변화 2: 남성들의 변화

1) 연제의 예 : 아빠들의 돌봄 참여

- 아빠들의 어린이날 행사 개최 : 집에서는 안해도 지역에서 애들 돌봄 참여
- 여성문제 인식이 있는 엄마들이 기획(처음) → 좋은 아버지 학교 → 아빠 스스로 기획
- 아이돌봄, 노인돌봄을 지역에서 하고 있음
- 가정으로 확대할 차례

● 주요 변화 3 : 돌봄의 주체 및 영역 확대

1) 연제의 예

① 돌봄의 영역에서 출발한 어린이날 행사

- 여성과 아이가 안전한 마을 행사 : 슬로건화, 지역단체 해설 및 동참, 내용 및 진행 과정에서 내용의 확대(성폭력, 평화, 반전 등)
- 돌봄의 공적 확대 및 리더 성장

② 엄마학교

- 실제 주제는 '여성의 눈으로 세상보기', '여성들이 자기 삶과 사회에서 주인이다'
- 사적 돌봄을 공적 돌봄으로 안내 및 확대

③ 평등가족영화제

- 다양한 가족 관계를 둘러싼 영화 상영 : 이를 기획하는 회원들이 여성활동가로 성장

④ 돌봄센터

- 우리 마을에 돌봄이 필요한 아이를 함께 품앗이로 돌보는 이런 활동으로까지 확대
- 일하는 여성들의 아이 돌봄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마을에서의 모델로 지향

● 주요 변화 4 : 다양한 여성들, 가족들의 삶

1) 다양한 형태로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의 힘기르기에 풀뿌리운동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나?

① 좋은세상의 예

- 1인 가구 거주지 :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로 인해서 1인 가구가 된 분들, 청년 등 또 다른 소수자들, 다양한 조직들과 컨택, 구체적인 연대
- 설사 대변형 운동단체일지라도 지역에 살기 때문에 네트워크와 연결이 많아짐
- 청년모임과 어르신모임의 연결, 청년모임과 돌봄활동의 만남 등

● 과정상의 문제와 고민

1) 지역여성활동과정에서 관계 및 소통 훈련이 되어서 과정에 있어서는 약간 여성들의 성역할(돌봄)을 강화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음. 장기적으로는 여성의 주체성, 자기주도성이 커지면서 활동력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

2) 여성운동에서 엄마로서의 역할로부터 거리두기 혹은 거부감 → 여성운동이 보통의 여성들이 가진 정체성, 고민으로부터 한발 떨어지게 되면서 일반 여성들이 여성주의로부터 거리두기

3) 독립적, 주체적, 여성주의적 여성상은 무엇인가? 가족 속에 있는 여성은 주체적이지 않은가?

● 과제

1) 경력단절여성(혹은 성역할 고정화되어 노동자로서 사회에 복귀하지 못하는 여성들)이 사회로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사회여건 조성 / 내 아이를 잘 키우는 문제만 아니라 내 노동이 가치있게 사회에서 인정받도록 하는 문제를 다루는 활동이 필요

2) 여성의 사회적 노동 참여와 돌봄노동의 사회화는 가족 내 성역할 해체와 함께 가야함

● 여성의 관점에서 자신과 사회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교육, 활동이 중요함

1) 여성주의 의식(여성의 관점에서 여성 자신들의 삶을 보게끔)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 교육이 필요

① 여성의식은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 아님. (cf. 노동자의식)

② 주류의 관점, 남성중심의 관점으로 여성들의 삶을 보는 현실 (ex. 남편, 자식 출세시켜 내 삶을 변화시키겠다)

cf. 노동운동에서 노동자의 관점에서 노동자의 의식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 훈련이 계속되는 것과 유사

2) 접근법에 있어서

① 여성학적 개념 설명의 접근은 어렵지만 하고, 거부감만 줄 수 있음

② 자신을 표출해본 적이 없고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낮은 상황의 여성들에게, 자칫 '당신이 잘못 살고 있다'는 식의 분위기 → 반발만 불러일으킬 수 있음 (위로받고, 잘살고 있음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

③ 여성들 자신의 삶을 많이 풀어놓게 하는 것, 자신의 삶을 이해한 것에서부터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끔

3) 방식에 있어서

① 강의, 자체 학습 등의 정형화된 교육

② 회의, 모임 등 일상적인 장에서 서로 의미부여 및 해석

4) 어떤 주제든지 풀뿌리에서부터 사람들의 현재 요구를 모아내는 것 = 평범한 여성들을 여성운동의 주체로 만들어가는 **1단계** : 힘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같은 문제를 갖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모이는 것이 출발점이자 시작

5) 현재적 요구에 대해 뜻을 모으는대로 같이 힘을 모아서 행동 (사적인 요구와 일이 집단적으로 함으로써 마을에서 하는 하나의 공적인 행동이 됨) : **2단계**

6) 1,2단계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뭔가 좀 할 수 있다, 우리가 뭔가를 해냈다 라는 성취감 위에서 여성주의에 대한 본격적 교육을 결합 : **3단계** (여성들의 자신의 삶과 조건들을 여성의 관점으로 보는 교육이 있어야한다)

7) 여성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훈련은 처음부터 계속 하는 것

2. 풀뿌리 현장에서 여성주의 기획이 어떻게 들어가는가 (배경과 관점, 사례)

● 여성주의 관점의 교육과 훈련에 있어서

- 1) 여성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게 어렵고, 여성운동의 주체가 되는데 6-7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걸 좀 쉽게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나
→ 여성주의 관점으로 본다는 것은, 다수 평범한 여성들이 주체로 서는 관점, 가부장적인 주류 시선이 아니라 평범한 여성 공동의 입장에서 보는 것 (여성주의라는 개념에 갇힐 필요 없음)
- 2) 여성들이 놓여져 있는 삶과 그 삶을 둘러싼 조건들을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여성의 입장에서 요구를 모아내는 과정에서 여성주의를 이해시킬 수 있음
ex. 미혼모들도 자신이 당하고 있는 억압, 고통들을 서로 짝 이야기하고, 그걸 가지고 사회경제적인 측면과 여성문제적 측면에서 딱 정리를 하면 사람들의 시야가 크게 트이면서, 또 이해를 더 많이 함
- 3) 여성주의의 관점을 가지고 하는 풀뿌리 운동에서 훨씬 여성들이 많이 발굴되고, 빨리 성장하고 있음

● 남성들과 가족의 변화에 있어서

- 1) 지역사회의 변화를 통해 가정의 변화 → 지역사회와 가정의 변화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사회적 조건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 하나로 연결된 기획으로
- 더 설득력 있고, 재미를 결합시켜
- 2) 남자들도 자기 고통을 수다로 호소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들어야
① 연제의 예 :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인 아빠들이, 아빠학교를 하면서 '이제는 우리 문제 얘기하자', 자기 어려움 드러내기 → 본인의 문제로 인식 : 출발점

● 돌봄의 사회화에 있어서

- 1) 남녀의 성역할해체와 마을 단위에서 공공의 일로 만들어가면서, 그것과 결합한 국가의 제도화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하는 것도 우리의 기획이 되어야함
- 여성들이 많은 직종, 예를 들어 보육교사 노동조합 조직에 풀뿌리운동 차원에서 적극적 연대 + 보육당사자로서 부모 조직 => 보육제도의 정비
- 마을에서의 여성노동자 조직화의 주체 형성 및 조직화

● 마을에서의 다양한 여성주체 조직화

- 1) 일하는 여성 조직화 : 일하는 여성으로서 사는 생활의 문제
- 2) 여성들의 상호 이해와 여성안에서 소외되는 여성이 없어야 됨 → 생활속에서 '내가 나다' 자신의 존

재를 드러내고 살 수 있는 것(마을에서 커밍아웃을 해도 괜찮은 마을) → 마을에서 소수자 여성들을 조직하는 것을 우리의 일로 생각하고 지원

3) 자기 마을 가까운데서 조직되는 당사자 여성모임

- 한부모, 미혼모, 이주여성, ... 등 당사자 모임 조직 지원
- 모임 안에 있는 사람 vs 아직 모임에 들어가있지 않은 사람의 현재적 요구는 다를 수 있음

● **풀뿌리여성운동 차원의 새로운 기획도 필요**

1) 노동시간이 너무 길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풀뿌리 운동에서 사회적 발언과 요구

- ① 아빠들의 돌봄 참여를 위해서는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야함
 - ② 남녀 가사노동, 사회노동, 공동체노동 시간 = 우리 가정의 평등지수
- (cf. 여성학자들의 여성들의 시간사용조사나 돌봄노동 가치 산출과는 차이가 있음. 문제를 밀고나갈 '운동 주체'의 형성 여부 => 풀뿌리운동의 힘)

2) 근본적인 자본과 노동의 문제를 풀뿌리 차원에서 제기해야함

- 인간답게 살고 싶어도 애하고 놀고 싶어도 지역사회 공헌하고 싶어도, 직장이 있는 남자는 너무 긴 시간을 바깥에서 일해야 되고, 일자리가 없는 남자는 자기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안 되는 현실 → 우리의 방식으로 계속 제기하는 활동이 가미되어야함

3) 남성들도 지역과 가족 내에서 돌봄노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기쁨을 느끼면서 자기 스스로의 요구로 같이 나와야함 :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나오면 더 좋겠음

4) '폭력없는 안전한 마을', 혹은 '함께 돌보는 마을' 등 여성의 주제를 특화(브랜드화)해 네트워크 기획을 해보는건 어떨까?

- 여성주간, 성폭력추방주간 때 풀바람 차원에서 마을 공동체 차원의 안전마을 사례를 발표
- 안전한 마을 네트워크의 이름으로 각 마을에서 어떻게 하자 정리해서 공유
- 성폭력없는 마을을 위한 활동을 뒷받침해주는 요구(對 전체 사회, 지자체, 정부 등) 모으기
- 공동브랜드로 현장에서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전국화 할 것인가, 기반으로 논의

5) 여성친화마을(도시) 모니터링, 안전관련제도 모니터링 등이 교육기획이 잘 되면 여성의식과 일반 사회의식을 높이고 지역여성들을 조직화하는 매개로 유용할 수 있음